

서울지역 취약층 교육훈련 현황과 실태조사

2021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서울지역 취약층 교육훈련 현황과 실태조사

2021. 12

연구기관 : 세컨드윈드

책임연구원: 김종진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공동연구원: 윤자호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관성 전북고용노동포럼 위촉연구원

정성진 세명대학교 강사

목 차

1장. 문제의식	1
1. 조사 배경과 필요성	1
2. 조사 대상과 구성	2
2장. 교육훈련 현황과 주요 특징	3
1. 노동시장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	3
2. 노동시장 교육훈련 일반적 개념	7
3장. 서울지역 취약집단 현황과 실태 분석	10
1. 취약계층 논의 및 확인	10
1) 취약계층 논의	10
2) 취약계층 규모 확인: 데이터 활용	12
2.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경제력	13
1) 저소득 임금 노동자	13
2) 저소득 가구원	14
3) 여성 저소득 가구주	15
3.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고용	16
1) 고용불안정	16
2) 노동 조건 및 노동환경	19
3) 실업 상태	24
4.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건강	26
1) 만성질환자	26
2) 낮은 건강상태	27
3) 심리상태: 우울증상	28
5.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사회적자본	29
1) 사회관계	29
2) 인적자본 개발	31
3) 노동권익	33

4장. 지자체 교육훈련 지원제도 현황 분석	36
1. 교육훈련 제도화 및 사업 현황	36
1) 교육훈련 제도화 현황 - 조례, 정책, 위원회	36
2) 지자체 교육훈련 정책, 프로그램 현황	40
3) 지자체 교육훈련 취약층 프로그램 현황	44
2. 고용노동부 교육훈련 현황 -전국민취업지원, 내일배움카드	47
1) 고용노동부 취업 및 교육훈련	47
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제도 지원 현황	48
5장.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와 인식 및 수요도 조사	52
1.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	52
1) 조사 개요	52
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2
2. 분석 결과	55
1) 직장 및 일터 특성	55
2)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경험	59
3) 교육훈련 전망과 의견	72
6장. 요약 및 과제	81
1. 조사요약	81
2. 정책 방향	86
참고문헌	94
[부록]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와 인식 및 수요도 조사 통계표	95

표 목 차

[표 2-1] 노동시장 고용형태별 취업 형태 및 사유와 교육훈련 상황(2020)	4
[표 2-2] 노동시장 기간제 및 시간제 청년(19-34세) 교육훈련 참가 현황(2020)	5
[표 2-3] 고용노동부 교육훈련 영역과 내용(2020)	8
[표 3-1] 취약계층 정의 및 분류	11
[표 3-2] 취약계층 정의 및 활용 데이터	12
[표 3-3] 저소득 임금 노동자	13
[표 3-4] 저소득 가구원	14
[표 3-5]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 및 추이	15
[표 3-6]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규모 및 추이	16
[표 3-7] 프리랜서 규모 및 추이	17
[표 3-8]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 및 추이	18
[표 3-9]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 및 추이	19
[표 3-10]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및 추이	20
[표 3-11] 장시간(52시간초과) 노동자 규모 및 추이	21
[표 3-12] 65세 이상 고령 임금 노동자 규모 및 추이	22
[표 3-13] 기후위기 직접 산업 노동자 규모 및 추이	23
[표 3-14] 장기실업자(6개월 초과) 규모 및 추이	24
[표 3-15]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 및 추이	25
[표 3-16] 만성 질환자	26
[표 3-17] 낮은 건강상태	27
[표 3-18] 심리상태: 우울증상	28
[표 3-19] 사회관계 취약집단	29
[표 3-20] 청소년 가구주 규모 및 추이	30
[표 3-21]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 및 추이	31
[표 3-22] 임금노동자 중 교육훈련 경험자 규모 및 추이	32
[표 3-23] 노동조합원 규모 및 추이	33
[표 3-24] 임금노동자 중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 및 추이	34
[표 3-25]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 및 추이	35
[표 4-1] 17개 광역시도 교육훈련 조례 현황(2021.6)	36
[표 4-2] 17개 광역시도 직업훈련 정책 현황(2021.6)	38

표 목 차

[표 4-3] 17개 광역시도 직업훈련 관련 위원회 현황(2021.6)	39
[표 4-4] 17개 광역시도 담당인원, 전문인력 현황1(2021.6)	40
[표 4-5] 17개 광역시도 담당인원, 부서 현황2(2021.6)	41
[표 4-6] 17개 광역시도 과업 수, 사업비, 기구/시설 수(2021.6)	42
[표 4-7] 17개 광역시도 과업 수, 사업비, 기구/시설 수, 운영방식	43
[표 4-8] 17개 광역 취약층 프로그램 현황 - 청년, 여성, 고령, 장애인(2021.6)	44
[표 4-9] 17개 광역 고용형태별 프로그램 현황 - 비정규, 특수고용/프리랜서, 미취업자 ..	46
[표 4-1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내용	47
[표 4-11]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적용 상황(2020년)	48
[표 4-12]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서울지역 적용 상황(2020년)	49
[표 4-13]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상황 - 15개 취약 계층별(2020년)	49
[표 4-1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지역 적용 상황 - 15개 취약 계층별(2020년)	49
[표 4-15]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상황- 유형별(2020년)	50
[표 4-16]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울지역 적용 상황- 유형별(2020년)	51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연령대, 평균 연령	52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학력	53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혼인여부, 자녀유무	53
[표 5-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지	53
[표 5-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경제활동상태	54
[표 5-6] 설문조사 종사 산업	55
[표 5-7] 현재 일자리 근속	56
[표 5-8] 총 일자리 경력	57
[표 5-9] 지난 3개월 주된 일 통한 평균 임금	57
[표 5-10] 사업장(일터) 속성	58
[표 5-11] 노동조합 가입 여부	58
[표 5-12] 현재 일자리 습득 지식·기술 유용성 인식	59
[표 5-13] 지난 3년 직업훈련 경험 여부	60
[표 5-14] 교육받지 못한 주된 이유 (1순위)	61
[표 5-15] 지난 3년 경험한 교육훈련 횟수	62

표 목 차

[표 5-16] 교육훈련 받은 기관 (1순위+2순위)	63
[표 5-17]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63
[표 5-18]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64
[표 5-19] 교육훈련 성격 (1순위+2순위)	65
[표 5-20] 교육훈련 주된 목적 (1순위+2순위)	67
[표 5-21] 교육훈련 받은 이유 (1순위+2순위)	68
[표 5-22] 교육훈련 비용 부담(1순위+2순위) 및 평균 개인지출 비용	69
[표 5-23] 지난 3년 자격증 취득 여부, 평균 자격증 취득 개인지출 비용	70
[표 5-24] 지난 3년 취득 자격증: 국가자격증	70
[표 5-25] 지난 3년 취득 자격증: 민간·국제 자격증	71
[표 5-26] 자격증 취득 주된 목적: 자격증 종류별	72
[표 5-27] 종사·지방 업무 일자리 전망: 새로운 기술 도입 인한 일자리 대체·감소	72
[표 5-28] 희망 은퇴 연령대, 은퇴까지 일자리 고정 전망	73
[표 5-29]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1순위)	75
[표 5-30] 이용 용이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시설	76
[표 5-31] 독립적 교육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전담시설 필요성, 내일배움카드 인지	76
[표 5-32]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1	77
[표 5-33]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2	78
[표 5-34]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3	78
[표 5-35]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	79
[표 5-36] 주요 집단별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1	80
[표 5-37] 주요 집단별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2	80

그림 목차

[그림 2-1] OECD 회원국 적극적노동시장 지출 규모와 교육훈련	3
[그림 2-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 개요(2020)	8
[그림 3-1] 취업성공패키지 I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11
[그림 5-1] 주된 일자리 직업	56
[그림 5-2] 교육받지 못한 주된 이유 (1순위+2순위)	60
[그림 5-3] 교육훈련 받은 기관 (1순위+2순위)	62
[그림 5-4] 교육훈련 성격: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	66
[그림 5-5] 교육훈련 성격: 정부지원 훈련	66
[그림 5-6] 교육훈련 성격: 서울시 지원 훈련	67
[그림 5-7] 교육훈련 비용 부담 (1순위+2순위)	69
[그림 5-8]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1순위+2순위)	74

1장. 문제의식

1. 조사 배경과 필요성

-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 과정에서 직업능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물론 불안정 취약층은 거의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산업5.0」 보고서가 발간(2021.1)되었고,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훈련과 학습역량이 강조되고 있음.¹⁾
- 현 직업능력개발 방식은 숙련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되지 못하고 공급자(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훈련 과정 제공. 교육훈련 과정의 공급 역시 사업주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사업주가 단기적으로 원하는 특정 과업(task) 수행 위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만, 이러한 국가와 공급기관의 사업주 지향성이 현실에서 국가의 사업수행 능력과 교육훈련 공급기관의 무능으로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미스매치 논의 불러일으킴.
- 교육훈련 목표는 노동자 입장에서 인생 전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그 결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며, 삶 전체의 고용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각각의 시민, 특히 취약층과 노동자 이해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역량 개발 초점을 두어야 함.
- 노동시장 일반적 교육목표는 ‘개개인의 학습과 역량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주의로의 직업능력의 전환이 필요함. 노동자 특히 취약층에게 다양 맞춤형 지원의 교육훈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직업훈련은 인간 발전 관점에서 역량 개발 지원 교육훈련 공급시스템 혁신이 필요함 부문임.
- 따라서 교육훈련은 이제 특정 과업 아닌 포괄적 직업을 교육훈련 대상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실업→일자리→좋은 일자리→더 좋은 일자리)과 맞물린 제도와 정책 설계가 필요함.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하며, 성과목표를 새롭게 설정 필요 개발된 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일터혁신 정책(+산업전환 정책, 공정한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과 함께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1) European Commission(2021) *Towards a sustainable, human-centric and resilient European industry*,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January 2021).

2. 조사 대상과 구성

- 우리 사회에서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은 노동시장 고용유지 비율이 적고, 자발적-비자발적 요인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기제가 미흡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 취업자만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괄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이는 기존 내일배움카드(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재구조화한 교육훈련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임.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1.8.17) 개정으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상황임.²⁾ 이에 서울지역 교육훈련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정책검토 위한 기초자료 성격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2023년 평생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국민평생직업훈련법」 개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숙련형성과 직업능력향상을 고려하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특히 기존의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중심의 교육훈련제도에서, 비임금노동자로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지역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현황과 수요도 등 관련 실태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기에, 서울지역의 임금노동자(정규, 비정규직) 및 실업자, 구직자 및 비임금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본 연구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시민과 노동자 대상 700명의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교육훈련 현황(서울시 포함)을 비교 분석 했음.
- 보고서 2장에서는 교육훈련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서울지역 취약층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음 4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17개 광역 지자체(서울 포함) 교육훈련 실태와 제도화 현황을 비교 분석했음. 5장에서는 서울시 시민과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했고, 6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했음.

2) 제2조(정의)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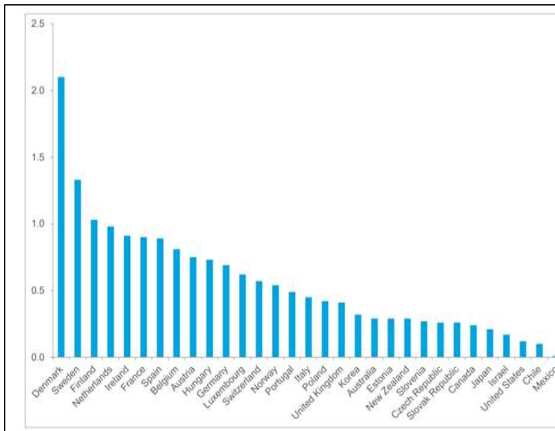
2장. 교육훈련 현황과 주요 특징

1. 노동시장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

-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정한 교육훈련 지출이 필요하나,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에 있어, 실직자 재취업 유인 작동 지출 비중을 보면 각 국가별로 매우 편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나마 덴마크, 스웨덴은 2% 미만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1% 미만 수준,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등은 0.5% 미만이고, 한국은 한국 하위 13위 수준임. 한국 취약 노동자(비정규, 고령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OECD의 절반 이하고, 주요 이유가 비용과 시간이었음.

[그림 2-1] OECD 회원국 적극적노동시장 지출 규모와 교육훈련

[좌] 적극적노동시장 지출 실직자 재취업 지출



[우] 교육훈련 미경험 사유

비정규직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53.94	6.70	13.54	2.04
OECD	27.33	11.44	20.37	8.39	67.53
고령자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바빠서	너무 비싸서	고용주 지원 부족해서	합계
	한국	33.97	11.58	12.01	2.38
OECD	18.80	15.60	13.06	3.87	51.38

* 자료: (좌) https://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reports/Citi_GPS_Technology_Work.pdf (86쪽)

(우) OECD 2019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9)

- 유럽연합(EU)은 앞으로 기업 조직은 의사소통과 협업은 빨라지고, 온라인 확장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창출하고, 육체적 노동과 반복적 과업은 로봇과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임. 이에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함. 하지만 비슷한 디지털 기술을 지닐지라도, 취약층은 자신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특히 디지털 전환은 직업 전문화와 차별화가 지속적인 증가와 연동되어 있음(EU, 2020).

-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은 노동시장 고용 및 실업, 불안정성(비정규 고용)과 사회 보험(고용보험) 가입 등이 취약층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꼽히고 있음.³⁾ 2019년 기준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 경험은 정규직(61%)과 비정규직(41.3%) 차이가 크고, 비정규직 내에도 시간제(33.6%)는 더 낮은 상황임. 교육훈련 유경험자 비율은 성별-고용형태별 차이가 확인됨. 여성은 20대 초반과 5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경험이 적은 편임.
-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 선택은 자발적 선택(75.4%)이, 비자발적 선택(24.6%)보다 많지만,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선택(44.4%, 시간제 49.3%, 간접고용 47.6%, 특수고용 31.9%)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임. 특히 호출근로 형태의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자발적 선택(80.7%)이 10명 중 8명이나 되는 상황임([표 2-1] 참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이유는 '생활비는 수입'(33.9%, 호출근로 70.6%, 특수고용 23.1%) 문제가 대부분이었음. 그런데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적용율은 43.1%(호출근로 6.5%, 특수고용 7.6%)에 불과했고, 교육훈련 유경험 비율(37.6%, 호출근로 11.1%, 특수고용 53.3%)도 매우 낮은 상황임.

[표 2-1] 노동시장 고용형태별 취업 형태 및 사유와 교육훈련 상황(2020년, 단위: %)

	자발적, 비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이유				고용보험 및 교육훈련	
	자발적	비자발적	생활비 등 수입 필요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어서	기타	고용보험 적용	교육훈련 유경험
임금노동자	75.4	24.6	18.9	2.5	1.0	2.2	67.5	52.2
*정규직	89.5	10.5	8.2	1.0	0.7	0.6	84.4	62.6
*비정규직	55.6	44.4	33.9	4.7	1.4	4.5	43.1	37.6
기간제	63.3	36.4	27.4	4.6	1.3	3.4	62.5	55.1
시간제	50.7	49.3	35.2	5.9	1.8	6.5	27.6	35.5
호출	19.3	80.7	70.6	4.8	1.7	3.7	6.5	11.1
간접고용	52.4	47.6	41.4	3.6	1.0	1.6	64.2	42.8
특수고용	52.4	31.9	23.1	3.2	1.0	4.6	7.6	53.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20년 8월 재구성.

3)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여성 66.7%, 남성 74.6%)는 정규직(87.2%, 여성 85.7%, 남성 88.1%)과 비정규직(44.9%, 여성 45%, 남성 44.9%) 내 성별 차이가 크고, 비정규직 내에도 시간제(26.1%, 여성 29.3% - 남성 17.4%)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더 낮은 상황임.

[표 2-2] 노동시장 기간제 및 시간제 청년(19-34세) 교육훈련 참가 현황(2020)

		기간제 노동자 교육훈련 참가자		시간제 노동자 교육훈련 참가자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전체		516	54.1%	186	21.8%
성별	남성	257	54.7%	67	21.2%
	여성	260	53.6%	118	22.2%
연령별	19-24세	122	42.9%	84	16.5%
	25-29세	236	60.1%	53	27.4%
	30-34세	159	57.2%	49	33.2%
성연령별	19-24세 남성	48	40.7%	29	15.6%
	19-24세 여성	74	44.5%	55	17.0%
	25-29세 남성	123	60.6%	23	27.2%
	25-29세 여성	113	59.5%	30	27.6%
	30-34세 남성	86	57.7%	15	33.3%
	30-34세 여성	73	56.7%	33	33.1%

*자료 : 통계청 MDIS,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한국은 고용안전망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이 2022년 정부 재정정책에서 약 4조 6천억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됨(기획재정부, 21.8). 국내 고용과 일자리 안전망 재정은 ▲실업소득과 안전의 고용안전망(22년 12조 7천억원 : 특고 등 실업구직 급여 포함), ▲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22년 11조 1천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22년 4조 6천억원 : 유급훈련, 정의로운 전환), ▲창업지원(22년 3조원: 스타트업 등 벤처 지원)임.
- 그러나 기존 정부의 노동시장의 교육훈련은 몇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무엇보다 공공과 대기업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며, 교육훈련이 공급자 중심의 ‘양성·인재’ 육성 방식에 고착되어 있음.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나 니즈에 맞게 변화하는 방식에 부합하지 못한 교육훈련과 직업능력 향상 방식임.
- 게다가 교육훈련 전달체계와 프로그램 또한⁴⁾ 몇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고, 이는 직업훈련 기관·전달체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인학습역량 불일치, 공급자 중심의 사업 방식과 연동되어 있음. 2020년 기준 정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15,532개(2019년 17,01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이나 참여자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음(김종진, 2021a).

4) 유럽 각 나라별 직업교육훈련 운영실태는 ILO-UNESCO-WBG의 2020년 실태조사 자료 참고할 것.

- 특히 실업자 및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제도인 ‘내일배움카드’(5년간 최대 300~500만원)는 활용성이나 조건 및 프로그램 문제점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음.⁵⁾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교육훈련 전달체계도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미흡이 지적되고 있음. ‘취성패’ 운영 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위탁 교육훈련시설(**센터)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한계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노동시장구조로 인한 내부노동시장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체계 역시 기업 중심의 숙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계적인 숙련체계의 개발과 발전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기업 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배제된 상태임. 현재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숙련형성을 위한 직업능력향상이나 재취업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은 사실상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구조임.
- 한국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은 전형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시스템은 주로 OJT 방식(사업장 내)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숙련의 축적과 확산에 한계가 있고, 학교와 산업계와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OJT 이외의 OFF-JT 교육과 자기개발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최근 기술교육과 일자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숙련형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재취업 등의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숙련 노동자 대신 자동화/디지털화 확대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취약층은 저숙련에 놓여 있음.

5) ‘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300만원 이상 (임금) 대기업 노동자(만45세 미만),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제외되며, (취업률 기관 따라)자부담15% 등의 대상과 조건이 있음.(<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2. 노동시장 교육훈련 일반적 개념

- 일반적으로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개인 및 그룹이 진로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OECD)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은 ‘진로교육’의 관점보다는 직업훈련으로서 직업 능력향상과 숙련형성에 더 초점이 있음.⁶⁾
- 국제노동기구(ILO, 1998)는 직업훈련을 직장과 사회에서의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숙련개발 과정,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숙련은 교육, 훈련, 경험을 비롯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적 능력을 의미함.
- 이미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강조되고 있음. 특히 노동시장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음. 숙련개발형성은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및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사회적 권리와 보호의 차원에서 자유로운 교육훈련과 숙련형성이 검토될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진로, 취업지원, 평생학습 등 약 10개 정책 현황을 정리해 보았음([표 2-3] 참조). 교육훈련 내용은 성인기 일반적인 내용과 취창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별 내용으로 정리했음. 대부분 교육은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중장년이나 여성 등 취약층은 교육 과정이 일반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유럽연합에서 직업훈련개발은 평생(생애)지도는 모든 연령, 모든 진로 단계에 놓인 사람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CEDEFOP, 2020. Lifelong Guidance).

[표 2-3] 고용노동부 교육훈련 영역과 내용(2020)

	진로교육 목표 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청년취업아카데미		○	○	△		△
취업성공패키지	△	○	○	○		○
대학일자리센터		○	○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가족부 공동)	△	△	△	△	△	○
중장년 희망일자리센터	△	△	△	△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중장년 일자리)	△	○	○	△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	△	△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고용 센터)	△	○	△	△		○
4차 산업혁명성도인력양성		○				○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	△				○

* 자료 :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별 현황 재구성.

[그림 2-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 개요(2020)

회계	사업	세부 내용	'20년 예산(백만원) ※ 기금변경 및 추정 포함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주 훈련 (자체+위탁)	291,24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대중소 상생형	24,896
		미래유망 분야 맞춤형	21,300
		지역형	20,000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4,320
		전략분야	43,095
	산업현장일학습 병행지원	일학습병행제	330,091
	국민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488,734
		일반직종훈련	483,911
		일반직종훈련	3,372
일반회계	국민 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훈련	67,58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29,370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자영업자-특고 등 대상 훈련	786

* 자료 : 고용노동부(2020). 직업능력개발제도 및 정책 소개.

- 한편 2020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노동시장 예산과 대비되는 교육훈련 사업은 [그림 2-2] 처럼 확인 가능함.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산은 약 1조원에 달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050명, 자영업자는 17,503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0.7%,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임금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외에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약 2,912억)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705억) 등의 교육훈련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9년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 훈련비용 중 정부 지원 비율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사업주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훈련은 정부 예산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큼.
- 물론 현재 직업능력개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기금은 기업이 피용자 숫자를 기준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플랫폼화’ 혹은 ‘비임금노동자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금노동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취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여기에 맞춘 제도의 조정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3장. 서울지역 취약집단 현황과 실태 분석

1. 취약계층 논의 및 확인

1) 취약계층 논의

- 취약계층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큰 축은, 인적 속성에 따른 구분과, 각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특정 요인(경제, 주거, 건강, 고용 등)에 대한 결핍 또는 부족임.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영역도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시각이 더해진 기존 노동 및 사회정책 대상자와 돌봄영역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취약계층 논의는 전통적 취약계층(소득수준별, 정부 지원대상)과 확대된 취약계층(다차원 빈곤, 환경관련 요소 등)으로 구분 가능하고, 김문길 외(2017)은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들을 정의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의 결핍 또는 부족현상을 정의했음.

[표 3-1] 취약계층 정의 및 분류

차원	지표	내용	빈곤선
경제력	가처분소득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순자산	(가구총자산 - 가구총 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순자산 50% 미만
주거	주거비 부담	총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	점유형태 ① 자가는 비 빈곤,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는 RIR 30% 초과, ⑤ 기타는 비빈곤
	최저주거 기준	최저주거기준 대비 주 거면적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
	주거 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① 내구·내열·내화·방열·방습', '②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③ 오염으로부터 안전', '④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주거 설비 2개 이하 총 족
	주거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최저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 실, 전용 목욕 시설(온수)) 1개 이상 미충족
건강	만성질환	6개월 이상 투병·투약 하는 질환 유무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하는 질병 있음
	주관적 건강상태	① 아주 건강하다 ~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 다~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우울	CESD-11 우울 척도 11개 문항	0~3점 리코딩 후 합산 된 우울 점수가 9 초과
	의료비 부담	총생활비 중 보건의료 비 비중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 의료비 10% 초과 지출
고용	실업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직한 상태	실업자
	근로지속가능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vs.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 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음.	해고 가능
	근로시간형태	시간제	
사회문화적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여가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차원	지표	내용	빈곤선
자본	문화비 지출	총생활비 중 교양오락 비 비중	교양오락비 비중의 중 위 50%(가중치 적용) 미만
안정성	공적연금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물질적 박탈	집세, 공과금, 공교육 비, 난방비,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박탈 및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여부의 박탈 접수	1개라도 박탈

자료: 김문길 외(2017), <표 6-3-9>, pp259-260.

[그림 3-1] 취업성공패키지 |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대상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니트(NEET) 층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으로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층으로 판정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 학습지도사 (4) 골프장 경기보조원 (5) 보험설계사 (6) 택배·퀵서비스 기사 (7) 신용카드모집인 (8) 대리운전원 (9) 대출모집인 (10) 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제외)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방문교사 (13)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FTA 피해 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에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자료: 김문길 외(2020), <표 2-8> , p53.

2) 취약계층 규모 확인: 데이터 활용

-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정의된 다양한 각 영역별(경제력/고용/건강/사회적자본관련된) 지역별 취약계층 구분을 위해 정부 및 정부연구기관에서 배포한 2차 가공데이터를 이용하였음.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지역별고용조사, 한국노동패널, 한국보건복지패널이 사용되었다.

[표 3-2] 취약계층 정의 및 활용 데이터

구분	취약계층	데이터	구분	취약계층	데이터
경제력	저소득임금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건강	만성질환자	복지패널
	저소득 가구원	복지패널		낮은 건강상태	복지패널
	여성 저소득 가구주	지역별고용조사		심리상태(우울)	복지패널
고용	비정규직	노동패널	사회적자본	사회관계 취약집단	복지패널
	프리랜서	노동패널		청소년가구주	지역별고용조사
	단기계약직	지역별고용조사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5인미만 사업장종사자	노동패널		교육훈련 미경험	노동패널
	초단시간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노동조합 가입자	노동패널
	장시간 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노사협의회 운영사업장	노동패널
	고령 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보험 가입	노동패널
	기후위기 직접 산업 노동자	지역별고용조사			
	장기실업자	지역별고용조사			
	미스매치 실업자	지역별고용조사			

2.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경제력

1) 저소득 임금 노동자

- 서울지역 저소득 임금노동자규모는 2020년 710천명으로 2008년 304천명보다 406천명 (133.6%)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18.7%로 2008년 8.5%보다 10.2%p 증가하였음.
- 전국 저소득 임금노동자규모는 2020년 3,919천명으로 2008년 1,499천명보다 2,420천명 (161.4%)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20.7%로 2008년 9.8%보다 10.9%p 증가하였음.
- 2020년 지역별 저소득 임금노동자규모는 경기 954천명, 서울 710천명, 부산 302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28.7%, 제주 26.4%, 부산 25.9% 순임.

[표 3-3] 저소득 임금 노동자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1,499	2,115	1,921	2,090	2,079	3,073	2,902	2,867	3,335	3,445	4,251	4,448	3,919
	서울	304	403	377	412	402	564	525	506	593	645	834	820	710
	부산	126	175	159	174	180	259	225	226	261	281	327	335	302
	대구	103	147	135	137	124	187	175	166	184	182	207	203	181
	인천	80	130	113	135	136	156	152	156	196	198	267	263	254
	광주	56	81	78	74	76	86	88	90	105	111	140	138	130
	대전	59	80	75	80	82	107	101	97	120	110	126	131	109
	울산	27	47	42	45	42	58	53	45	52	55	83	80	68
	세종	0	0	0	0	0	0	0	0	0	15	21	21	23
	경기	298	398	376	410	412	699	663	691	792	795	963	1,086	954
	강원	53	77	67	65	63	109	108	100	124	129	156	162	146
	충북	42	65	58	60	61	97	91	87	100	107	130	134	118
	충남	49	76	70	70	78	115	114	112	138	134	162	163	143
	전북	55	79	73	72	79	114	107	109	117	114	140	168	144
	전남	47	76	60	75	69	98	101	107	120	128	152	156	127
	경북	89	123	112	123	118	181	171	157	186	183	223	231	200
	경남	82	121	101	128	126	191	176	174	191	203	259	288	247
	제주	29	37	27	30	31	50	52	44	54	56	60	69	62
	비율 (%)	전국	9.8	13.5	12.0	12.8	12.4	17.7	16.4	15.9	18.1	18.3	22.3	22.8
서울		8.5	11.4	10.5	11.3	10.9	15.4	14.1	13.5	15.7	16.7	21.4	21.1	18.7
부산		11.5	16.1	14.5	15.4	15.6	22.3	19.4	18.9	21.7	22.8	26.2	27.3	25.9
대구		13.8	19.0	17.3	17.3	15.6	23.0	20.9	19.6	21.9	21.2	25.2	24.9	23.4
인천		9.0	13.9	11.9	14.1	13.2	14.9	14.2	14.3	17.2	17.2	22.7	22.1	21.7
광주		12.3	16.6	15.8	15.2	15.3	17.2	17.0	17.2	20.4	21.0	25.5	24.6	23.8
대전		11.7	15.6	14.3	15.4	15.3	19.7	18.1	17.2	20.7	18.9	21.7	22.2	19.3
울산		6.9	11.6	10.3	11.0	10.0	13.2	11.9	9.9	11.7	12.2	18.3	18.1	15.7
세종		-	-	-	-	-	-	-	-	-	15.1	17.8	15.9	16.0
경기		8.0	10.5	9.6	10.2	9.9	15.8	14.7	14.9	16.6	16.1	19.2	20.5	18.3
강원		13.4	18.7	16.4	16.1	15.2	24.8	23.6	21.5	25.6	25.7	30.8	31.1	28.7
충북		9.9	14.7	12.4	12.8	12.7	19.4	17.6	16.4	18.1	18.7	22.3	22.4	19.8
충남		9.1	13.4	12.1	11.5	11.8	16.5	16.0	15.0	17.8	18.2	21.5	20.7	18.6
전북		12.5	17.4	15.6	14.7	15.5	21.6	19.5	19.9	21.3	20.4	25.1	28.3	25.2
전남		11.6	17.6	14.0	16.6	14.7	20.0	20.2	20.5	22.9	23.9	28.7	28.2	23.8
경북		12.6	17.3	15.7	16.5	15.3	22.4	20.5	18.8	21.9	21.3	26.2	27.0	24.4
경남		9.0	13.0	10.5	12.5	12.1	17.7	15.6	15.3	16.9	17.7	22.7	24.2	21.8
제주		17.0	21.1	16.0	17.5	17.5	26.2	25.9	21.2	24.6	23.9	25.4	27.9	26.4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저소득=최저임금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환산 월임금 미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2) 저소득 가구원

- 서울지역 저소득가구원 규모는 2019년 1,065천명으로 2011년 1,146천명보다 81천명 (7.1%)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1.0%로 2011년 11.4%보다 0.4%p 감소하였음.
- 전국 저소득가구원 규모는 2019년 6,593천명으로 2011년 7,464천명보다 871천명 (11.7%)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2.8%로 2011년 15.0%보다 2.2%p 감소하였음.
- 2019년 지역별 저소득가구원 규모는 인천경기 1,515천명, 경남 1,077천명, 서울 1,065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경북 17.8%, 전남/전북/제주 16.9%, 강원 15.8% 순임.

[표 3-4] 저소득 가구원

		조사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7,464	6,951	7,160	6,787	6,634	6,905	6,729	6,561	6,593
	서울	1,146	1,220	1,095	1,115	1,090	1,153	1,119	1,098	1,065
	인천경기	1,937	1,675	1,705	1,783	1,663	1,722	1,678	1,409	1,515
	경남	1,056	970	942	967	887	996	861	1,000	1,077
	경북	1,100	1,040	1,234	965	971	914	908	881	907
	충남	488	382	476	452	423	498	511	512	565
	강원	594	503	509	545	523	532	514	600	497
	전남/전북/제주	1,142	1,163	1,199	960	1,077	1,091	1,139	1,061	968
비율 (%)	전국	15.0	13.8	14.2	13.4	13.0	13.5	13.1	12.7	12.8
	서울	11.4	12.2	11.0	11.2	11.0	11.7	11.4	11.3	11.0
	인천경기	13.3	11.3	11.4	11.8	10.9	11.1	10.7	8.9	9.4
	경남	13.5	12.3	12.0	12.2	11.2	12.5	10.8	12.6	13.7
	경북	21.5	20.2	24.0	18.8	18.9	17.8	17.6	17.1	17.8
	충남	13.4	10.8	13.4	12.7	12.2	14.2	14.6	12.7	14.0
	강원	19.6	16.5	16.6	17.6	16.8	17.1	16.4	19.1	15.8
	전남/전북/제주	20.3	20.0	20.5	16.2	17.6	17.7	18.3	18.4	16.9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전국인구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빈도수 합계(횡단면 모수추정 통합가중치 적용/결측치삭제).

주3: 저소득=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여성 저소득 가구주

- 서울지역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는 2020년 168천명으로 2008년 481천명보다 313천명 (65.1%)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4.1%로 2008년 13.0%보다 8.9%p 감소하였음.
- 전국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는 2020년 929천명으로 2008년 2,724천명보다 1,795천명(65.9%)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4.3%로 2008년 15.2%보다 10.9%p 감소하였음.
- 지역별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는 경기 188천명, 서울 168천명, 부산 75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6.0%, 광주 5.9%, 전북 5.4% 순임.

[표 3-5]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2,724	2,881	2,904	2,991	3,054	1,157	637	636	746	782	956	1,040	929
	서울	481	541	522	569	567	210	106	103	132	138	188	204	168
	부산	239	240	248	244	261	93	48	49	60	67	77	79	75
	대구	146	157	160	164	165	78	39	41	45	44	49	48	41
	인천	128	131	135	139	143	64	35	34	47	46	59	60	59
	광주	87	95	94	93	92	46	20	22	28	30	36	34	37
	대전	77	79	86	87	100	53	25	25	29	31	31	37	30
	울산	46	48	50	52	49	24	8	7	10	10	17	16	16
	세종	0	0	0	0	0	0	0	0	0	4	5	5	7
	경기	437	473	480	507	534	200	130	131	147	150	184	217	188
	강원	115	117	119	120	115	42	27	26	32	31	42	41	39
	충북	88	100	100	100	101	46	20	19	23	24	32	32	26
	충남	134	133	136	135	143	44	27	28	30	31	38	38	34
	전북	142	150	146	149	145	50	27	28	30	32	34	45	42
	전남	160	160	160	163	160	41	28	31	32	33	38	41	34
	경북	201	207	215	217	216	71	46	42	46	47	58	59	54
	경남	207	212	215	213	227	73	40	43	44	52	56	69	65
	제주	37	39	39	36	38	24	11	8	11	12	12	16	14
	비율 (%)	전국	15.2	16.0	16.0	16.2	16.2	6.0	3.2	3.2	3.7	3.8	4.5	4.8
서울		13.0	14.6	14.2	15.3	15.0	5.5	2.7	2.6	3.3	3.5	4.6	5.0	4.1
부산		18.7	18.8	19.3	18.8	19.7	7.0	3.6	3.6	4.4	4.8	5.4	5.5	5.2
대구		16.7	17.7	17.9	18.3	17.9	8.3	4.1	4.2	4.6	4.6	4.9	4.8	4.1
인천		13.6	13.8	13.9	14.1	14.0	6.1	3.3	3.1	4.2	4.0	5.1	5.1	4.9
광주		16.7	17.8	17.5	17.2	17.2	8.5	3.6	3.8	4.8	5.0	5.8	5.5	5.9
대전		14.8	15.0	15.9	16.0	17.5	9.1	4.1	4.1	4.7	5.0	4.9	5.6	4.6
울산		11.7	12.2	12.6	12.9	11.8	5.6	1.9	1.7	2.3	2.3	3.7	3.4	3.3
세종		-	-	-	-	-	-	-	-	-	3.7	4.4	3.5	4.8
경기		11.1	11.8	11.7	12.2	12.4	4.5	2.9	2.8	3.1	3.1	3.7	4.2	3.5
강원		19.9	20.4	20.4	20.5	19.5	6.9	4.3	4.1	5.0	4.8	6.4	6.3	6.0
충북		15.8	17.4	17.2	17.2	17.1	7.5	3.2	3.0	3.4	3.6	4.6	4.5	3.7
충남		17.4	17.0	17.1	16.7	17.0	5.1	3.0	3.0	3.2	3.4	4.1	4.0	3.5
전북		20.9	22.0	21.2	21.3	20.4	6.9	3.6	3.7	3.9	4.1	4.4	5.7	5.4
전남		22.5	22.6	22.4	22.8	21.9	5.5	3.7	4.0	4.2	4.2	4.8	5.2	4.3
경북		19.4	20.1	20.6	20.8	19.7	6.4	4.1	3.6	4.0	4.0	4.8	5.0	4.5
경남		17.5	17.6	17.6	17.4	17.9	5.6	3.0	3.2	3.2	3.7	4.0	4.8	4.5
제주		18.5	19.8	19.5	18.4	19.1	11.2	5.2	3.6	4.5	5.1	5.0	6.2	5.3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가구주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여성 저소득 가구주: 여성+가구주+월소득이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미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3.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고용

1) 고용불안정

(1) 비정규직

-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1,362천명으로 2010년 1,045천명보다 317천명 (30.3%)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34.2%로 2010년 30.9%보다 3.3%p 증가하였음.
- 전국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6,964천명으로 2010년 5,135천명보다 1,829천명(35.6%)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34.7%로 2010년 32.4%보다 2.3%p 증가하였음.
- 2019년 지역별 비정규직 규모는 경기 1,739천명, 서울 1,362천명, 부산 511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충남 45.6%, 전남 43.9%, 충북 42.6% 순임.

[표 3-6]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5,135	5,723	6,050	5,845	6,664	6,559	6,568	6,770	6,690	6,964
	서울	1,045	1,242	1,374	1,266	1,373	1,347	1,305	1,286	1,323	1,362
	부산	350	390	462	433	535	553	457	489	502	511
	대구	289	339	359	320	325	295	324	351	332	322
	인천	166	179	164	143	175	166	183	191	217	215
	광주	184	230	237	254	299	270	259	310	304	341
	대전	187	213	193	152	209	267	176	192	136	172
	울산	134	131	102	107	149	146	104	128	128	128
	세종	0	0	0	0	5	26	29	13	12	11
	경기	1,065	1,138	1,335	1,261	1,352	1,395	1,530	1,605	1,600	1,739
	강원	99	104	99	123	154	169	131	144	172	185
	충북	188	209	219	244	237	221	244	264	266	265
	충남	320	272	288	319	386	367	420	403	418	437
	전북	193	208	172	213	237	231	218	204	218	214
	전남	158	255	205	191	256	225	266	278	251	256
	경북	338	339	319	284	364	274	332	299	274	310
	경남	339	368	397	439	455	425	472	469	445	426
	제주	80	106	125	96	153	182	118	144	92	70
	비율 (%)	전국	32.4	32.9	34.1	32.4	35.8	34.8	34.6	34.6	33.6
서울		30.9	33.2	36.1	32.7	36.1	33.9	33.4	31.8	32.7	34.2
부산		31.8	31.7	36.9	35.4	41.8	41.6	35.1	36.8	36.6	37.7
대구		35.9	37.8	42.2	36.9	35.2	32.0	35.1	37.9	35.7	35.0
인천		30.1	30.7	28.3	23.9	30.4	29.8	30.3	30.3	35.5	35.2
광주		20.2	22.5	22.5	23.4	27.3	26.3	23.9	27.0	26.6	29.0
대전		35.3	38.7	35.1	28.3	32.2	39.9	29.8	32.4	22.6	26.9
울산		33.6	31.3	22.4	22.9	32.0	30.4	22.5	26.2	26.9	27.6
세종		-	-	-	0.0	27.8	47.3	42.6	15.9	11.1	9.7
경기		28.7	27.4	31.2	29.3	30.7	30.9	32.7	33.5	31.8	33.6
강원		28.3	29.1	25.4	28.7	34.7	38.2	27.8	33.1	36.4	37.5
충북		36.4	37.7	37.8	41.5	36.7	37.0	40.1	42.3	41.6	42.6
충남		48.3	38.4	39.9	41.7	45.0	44.1	51.1	46.9	47.7	45.6
전북		38.4	36.0	29.7	37.8	38.2	40.0	35.9	33.9	34.4	35.8
전남		33.5	51.6	40.7	34.9	46.0	40.3	45.8	47.1	43.3	43.9
경북		38.9	36.8	36.0	32.2	39.9	30.5	37.8	32.8	29.4	33.5
경남		34.7	34.9	36.7	38.6	38.6	35.9	38.6	37.6	36.0	34.3
제주		70.8	65.8	78.6	61.9	80.5	78.4	63.8	57.8	39.3	32.6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주4: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비정형근로.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프리랜서

-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는 2019년 492천명으로 2010년 546천명보다 54천명(9.9%)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0.2%로 2010년 12.4%보다 2.2%p 감소하였음.
- 전국 프리랜서 규모는 2019년 3,978천명으로 2010년 3,898천명보다 80천명(2.1%)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15.1%로 2010년 17.4%보다 2.3%p 감소하였음.
- 2019년 지역별 프리랜서 규모는 경기 937천명, 서울 492천명, 경남 336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전북 24.4%, 전남 23.9%, 세종 23.0% 순임.

[표 3-7] 프리랜서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3,898	3,940	4,153	4,128	4,118	4,038	4,060	3,971	4,010	3,978
	서울	546	559	689	664	678	642	650	565	527	492
	부산	268	267	270	265	233	239	242	212	177	197
	대구	186	160	190	169	188	199	177	173	180	167
	인천	148	138	156	156	112	116	112	131	100	99
	광주	204	201	197	221	228	230	238	252	270	254
	대전	86	70	94	99	81	91	106	78	126	89
	울산	66	74	75	82	70	62	67	65	55	78
	세종	0	0	0	4	6	12	16	34	34	35
	경기	831	845	874	883	881	773	793	904	923	937
	강원	128	124	147	136	133	142	117	114	113	117
	충북	123	127	128	137	146	166	169	170	152	140
	충남	216	250	239	252	241	264	273	187	231	214
	전북	186	165	190	192	219	208	201	200	208	223
	전남	238	274	235	206	233	248	234	232	212	222
	경북	300	307	344	340	318	314	338	317	318	297
경남	280	288	261	252	262	256	254	293	313	336	
제주	92	91	64	70	89	76	73	44	71	81	
비율 (%)	전국	17.4	16.3	17.0	16.7	16.3	15.9	15.9	15.2	15.2	15.1
	서울	12.4	11.7	14.0	13.5	13.9	12.9	13.1	11.3	10.6	10.2
	부산	17.2	15.9	15.7	15.7	13.6	13.6	14.0	12.1	10.3	11.5
	대구	17.6	14.1	17.1	15.3	16.2	16.9	15.2	14.8	15.4	14.7
	인천	19.4	17.9	20.1	19.9	15.5	16.6	15.1	16.3	12.9	12.8
	광주	15.8	14.6	14.3	15.3	15.5	16.4	16.3	16.3	17.1	16.0
	대전	12.1	9.5	13.3	14.0	10.2	11.1	14.0	10.1	15.8	10.9
	울산	12.6	13.0	12.6	13.6	11.8	10.3	11.4	10.8	9.4	13.4
	세종	-	-	-	50.0	25.0	17.6	18.0	28.3	23.3	23.0
	경기	16.2	15.0	15.2	15.2	14.7	13.0	12.9	14.3	14.0	14.0
	강원	22.7	21.2	23.3	20.6	20.0	21.3	16.6	17.2	16.5	16.3
	충북	18.2	17.1	17.0	17.5	17.5	20.1	20.0	20.0	17.6	16.7
	충남	20.7	22.6	21.8	22.2	19.5	21.7	22.1	15.3	18.5	16.8
	전북	23.7	19.6	22.6	22.2	23.5	23.0	22.1	21.6	22.4	24.4
	전남	27.9	30.5	27.1	23.5	25.8	26.9	25.7	24.8	23.2	23.9
	경북	21.8	21.5	24.6	24.4	22.6	22.9	25.1	23.5	23.2	21.9
경남	19.3	18.7	16.8	15.6	15.8	15.4	15.0	17.1	18.4	19.6	
제주	36.7	30.0	21.5	24.7	29.3	21.7	23.6	12.7	18.6	23.0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취업자(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주4: 프리랜서=김종진 외(2020), 광의 프리랜서 정의(1인자영+특고).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3) 단기계약직

- 서울지역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는 2020년 718천명으로 2008년 1,108천명보다 390천명(35.2%)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18.9%로 2008년 31.0%보다 12.1%p 감소하였음.
- 전국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는 2020년 3,656천명으로 2008년 4,484천명보다 828천명(18.5%)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19.3%로 2008년 29.2%보다 9.9%p 감소하였음.
- 2020년 지역별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는 경기 925천명, 서울 718천명, 부산 239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전북 24.6%, 강원 23.2%, 전남 22.1% 순임.
- 2020년 지역별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2008년대비 53.3% 증가), 강원(2008년대비 2.6% 증가), 충북(2008년대비 1.8% 증가), 경남(2008년대비 1.5% 증가) 순임.

[표 3-8]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4,484	4,628	3,925	3,827	4,247	4,410	4,331	4,175	4,153	4,343	4,046	4,142	3,656	
	서울	1,108	941	894	858	953	981	941	862	869	899	820	811	718	
	부산	321	331	246	270	339	321	307	312	309	309	291	266	239	
	대구	271	253	229	214	214	207	208	199	209	199	176	181	149	
	인천	280	331	271	256	266	266	250	220	252	260	253	255	239	
	광주	153	166	130	128	134	119	125	122	119	123	133	133	116	
	대전	160	169	127	123	131	152	149	146	155	149	133	141	123	
	울산	115	114	101	99	95	96	85	85	82	87	93	85	76	
	세종	0	0	0	0	0	0	0	0	0	22	22	23	23	
	경기	1,061	1,140	1,019	877	1,002	1,083	1,056	1,033	980	1,101	997	1,083	925	
	강원	115	143	94	107	102	121	126	124	122	125	126	130	118	
	충북	111	120	94	104	116	123	126	130	126	126	119	122	113	
	충남	139	133	120	119	139	150	150	148	160	170	149	137	140	
	전북	92	141	116	132	162	155	161	155	150	142	143	151	141	
	전남	127	147	99	109	129	138	137	140	132	133	130	141	118	
	경북	168	200	154	172	202	207	216	200	191	204	183	179	168	
	경남	196	224	175	205	208	232	231	239	222	232	220	236	199	
	제주	69	75	56	54	54	59	61	60	75	62	58	65	51	
	비율 (%)	전국	29.2	29.5	24.6	23.5	25.3	25.5	24.4	23.1	22.6	23.1	21.3	21.3	19.3
서울		31.0	26.6	24.8	23.6	25.8	26.7	25.2	23.0	23.0	23.3	21.0	20.9	18.9	
부산		29.4	30.3	22.5	24.0	29.3	27.6	26.6	26.2	25.6	25.1	23.3	21.7	20.6	
대구		36.4	32.8	29.2	27.0	27.1	25.5	24.9	23.5	24.8	23.3	21.5	22.1	19.2	
인천		31.4	35.6	28.7	26.6	25.9	25.4	23.3	20.3	22.1	22.4	21.5	21.4	20.4	
광주		33.3	33.8	26.6	26.2	27.1	23.8	24.1	23.4	23.2	23.3	24.3	23.8	21.2	
대전		32.1	33.0	24.2	23.7	24.4	27.8	26.6	25.8	26.8	25.6	23.0	24.0	21.8	
울산		29.0	28.1	24.6	24.2	22.7	22.1	19.2	18.7	18.4	19.2	20.7	19.2	17.5	
세종		-	-	-	-	-	-	-	-	-	-	22.1	18.8	16.8	15.9
경기		28.4	30.0	26.1	21.8	24.1	24.5	23.3	22.2	20.5	22.4	19.9	20.5	17.8	
강원		29.4	34.4	23.2	26.6	24.8	27.4	27.6	26.6	25.2	25.1	24.9	25.0	23.2	
충북		25.9	26.9	20.1	22.0	24.2	24.6	24.4	24.4	22.7	21.9	20.3	20.4	19.0	
충남		25.5	23.4	20.8	19.5	21.0	21.5	21.1	19.8	20.6	23.0	19.7	17.4	18.2	
전북		20.6	31.2	25.0	27.0	31.7	29.4	29.5	28.2	27.1	25.4	25.5	25.4	24.6	
전남		31.6	34.1	23.1	24.1	27.5	28.2	27.2	26.8	25.3	25.0	24.6	25.5	22.1	
경북		23.9	28.2	21.4	23.0	26.2	25.7	26.0	23.9	22.5	23.7	21.4	21.0	20.5	
경남		21.6	24.0	18.2	20.1	19.9	21.5	20.5	21.0	19.6	20.3	19.2	19.9	17.6	
제주		40.3	43.0	32.4	31.7	30.2	30.7	30.2	28.7	34.2	26.5	24.7	26.2	21.9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단기계약직 노동자=일용직+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직.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2) 노동 조건 및 노동환경

(1)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 서울지역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19년 67천명으로 2010년 111천명보다 44천명(39.6%)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7%로 2010년 3.3%보다 1.6%p 감소하였음.
- 전국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19년 621천명으로 2010년 412천명보다 209천명(50.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3.1%로 2010년 2.6%보다 0.5%p 증가하였음.
- 2019년 지역별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경기 124천명, 경남 117천명, 부산 115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울산 9.9%, 경남 9.4%, 부산 8.5% 순임.

[표 3-9]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412	566	538	531	568	677	634	693	665	621
	서울	111	147	200	141	147	141	109	126	81	67
	부산	17	58	51	67	54	88	77	74	81	115
	대구	7	17	14	6	18	16	26	9	31	19
	인천	15	6	10	16	9	13	19	35	30	13
	광주	17	13	23	25	27	26	25	80	64	41
	대전	15	45	9	19	6	32	21	28	11	11
	울산	5	21	18	18	9	22	19	35	24	46
	세종	0	0	0	0	0	0	0	2	0	0
	경기	100	118	107	96	114	146	142	85	161	124
	강원	11	20	5	3	10	7	6	17	4	7
	충북	13	22	9	18	55	12	16	14	8	10
	충남	5	8	2	0	12	7	6	9	0	7
	전북	9	9	7	4	6	15	11	14	12	18
	전남	1	14	11	17	4	7	9	15	14	10
	경북	39	3	14	7	11	20	6	7	18	11
	경남	23	46	52	66	70	113	121	104	116	117
	제주	24	19	6	28	16	12	21	39	10	5
	비율 (%)	전국	2.6	3.2	3.0	2.9	3.0	3.6	3.3	3.5	3.3
서울		3.3	3.9	5.3	3.6	3.9	3.6	2.8	3.1	2.0	1.7
부산		1.5	4.7	4.1	5.5	4.2	6.6	5.9	5.6	5.9	8.5
대구		0.9	1.9	1.6	0.7	2.0	1.7	2.8	1.0	3.3	2.1
인천		2.7	1.0	1.7	2.7	1.6	2.3	3.2	5.5	4.9	2.1
광주		1.9	1.3	2.2	2.3	2.5	2.5	2.3	7.0	5.6	3.5
대전		2.8	8.2	1.6	3.5	0.9	4.8	3.6	4.7	1.8	1.7
울산		1.3	5.0	4.0	3.9	1.9	4.6	4.1	7.2	5.0	9.9
세종		-	-	-	0.0	0.0	0.0	0.0	2.4	0.0	0.0
경기		2.7	2.8	2.5	2.2	2.6	3.2	3.0	1.8	3.2	2.4
강원		3.1	5.6	1.3	0.7	2.3	1.6	1.3	3.9	0.8	1.4
충북		2.5	4.0	1.6	3.1	8.5	2.0	2.6	2.2	1.3	1.6
충남		0.8	1.1	0.3	0.0	1.4	0.8	0.7	1.0	0.0	0.7
전북		1.8	1.6	1.2	0.7	1.0	2.6	1.8	2.3	1.9	3.0
전남		0.2	2.8	2.2	3.1	0.7	1.3	1.5	2.5	2.4	1.7
경북		4.5	0.3	1.6	0.8	1.2	2.2	0.7	0.8	1.9	1.2
경남		2.4	4.4	4.8	5.8	5.9	9.6	9.9	8.3	9.4	9.4
제주		21.2	11.8	3.8	18.1	8.4	5.2	11.4	15.7	4.3	2.3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초단시간 노동자

- 서울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00천명으로 2008년 89천명보다 11천명 (12.4%)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2.6%로 2008년 2.5%보다 0.1%p 증가하였음.
- 전국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498천명으로 2008년 371천명보다 127천명 (34.2%)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2.6%로 2008년 2.4%보다 0.2%p 증가하였음.
- 2020년 지역별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경기 120천명, 서울 100천명, 부산 39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광주 3.9%, 부산 3.4%, 전북 3.3% 순임.
- 2020년 지역별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2008년대비 114.3% 증가), 제주(2008년대비 100.0% 증가), 인천(2008년대비 80.0% 증가), 강원(2008년대비 77.8% 증가) 순임.

[표 3-10]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371	415	433	502	518	384	389	436	462	474	592	718	498
	서울	89	110	101	128	129	78	72	82	89	96	114	129	100
	부산	33	27	30	41	41	28	33	31	35	33	46	54	39
	대구	15	22	20	27	25	22	23	25	28	26	25	27	20
	인천	20	24	23	30	32	32	23	27	27	27	39	44	36
	광주	18	15	19	20	21	12	12	16	15	21	25	31	22
	대전	16	16	20	19	23	15	13	15	14	10	16	19	13
	울산	12	13	13	11	14	10	10	8	9	9	12	15	10
	세종	0	0	0	0	0	0	0	0	0	3	5	6	4
	경기	82	85	109	103	106	77	80	92	102	102	115	144	120
	강원	9	12	13	15	15	13	18	20	22	25	37	42	16
	충북	10	12	12	15	14	12	14	13	14	15	21	22	16
	충남	13	15	14	12	20	15	15	15	16	13	16	23	15
	전북	12	12	15	14	14	12	12	15	17	17	25	39	19
	전남	7	11	10	13	13	13	15	20	16	22	24	31	15
	경북	13	17	15	20	24	21	21	25	25	26	34	42	21
	경남	18	18	16	27	22	19	19	25	23	23	28	36	25
	제주	4	5	5	7	6	7	8	7	8	7	9	14	8
	비율 (%)	전국	2.4	2.6	2.7	3.1	3.1	2.2	2.2	2.4	2.5	2.5	3.1	3.7
서울		2.5	3.1	2.8	3.5	3.5	2.1	1.9	2.2	2.4	2.5	2.9	3.3	2.6
부산		3.1	2.4	2.7	3.6	3.6	2.4	2.8	2.6	2.9	2.7	3.7	4.4	3.4
대구		2.0	2.8	2.6	3.4	3.1	2.7	2.8	3.0	3.3	3.0	3.0	3.3	2.6
인천		2.2	2.6	2.4	3.1	3.2	3.0	2.2	2.5	2.4	2.4	3.3	3.7	3.0
광주		4.0	3.0	3.8	4.0	4.2	2.3	2.4	3.0	3.0	3.9	4.5	5.5	3.9
대전		3.3	3.2	3.7	3.7	4.2	2.7	2.3	2.7	2.5	1.6	2.8	3.3	2.3
울산		3.0	3.2	3.2	2.8	3.3	2.3	2.3	1.7	2.0	1.9	2.7	3.3	2.4
세종		-	-	-	-	-	-	-	-	-	3.0	4.0	4.1	2.5
경기		2.2	2.2	2.8	2.6	2.5	1.7	1.8	2.0	2.1	2.1	2.3	2.7	2.3
강원		2.3	3.0	3.1	3.8	3.7	3.0	3.9	4.4	4.6	5.0	7.3	8.1	3.1
충북		2.4	2.7	2.6	3.2	2.9	2.4	2.8	2.5	2.6	2.6	3.7	3.7	2.6
충남		2.3	2.6	2.5	2.0	3.0	2.1	2.1	1.9	2.0	1.7	2.2	3.0	1.9
전북		2.7	2.7	3.2	2.9	2.7	2.2	2.3	2.7	3.0	3.0	4.4	6.5	3.3
전남		1.8	2.6	2.4	2.9	2.8	2.6	3.0	3.8	3.2	4.1	4.6	5.7	2.9
경북		1.9	2.4	2.0	2.6	3.0	2.6	2.5	3.0	2.9	3.0	4.0	4.9	2.5
경남		2.0	1.9	1.6	2.6	2.1	1.8	1.7	2.2	2.0	2.0	2.5	3.1	2.2
제주		2.1	3.0	2.8	3.9	3.4	3.4	3.8	3.6	3.9	3.2	3.9	5.5	3.3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3) 장시간(52시간초과) 노동자

-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68천명으로 2008년 837천명보다 669천명 (79.9%)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4.4%로 2008년 23.4%보다 19.0%p 감소하였음.
- 전국 장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817천명으로 2008년 3,824천명보다 3,007천명 (78.6%)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4.3%로 2008년 24.9%보다 20.6%p 감소하였음.
- 2020년 지역별 장시간 노동자 규모는 경기 223천명, 서울 168천명, 인천 65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제주 5.6%, 인천 5.5%, 경남 5.2% 순임.

[표 3-11] 장시간(52시간초과) 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3,824	3,841	3,969	3,560	3,300	2,951	2,914	2,705	2,375	2,389	2,109	1,436	817
	서울	837	850	823	727	668	604	574	509	461	467	447	294	168
	부산	287	257	280	279	224	194	212	175	142	150	142	91	44
	대구	176	197	201	187	175	167	145	138	116	119	104	57	27
	인천	252	223	241	202	234	214	219	187	185	172	161	105	65
	광주	109	121	143	104	88	67	65	61	54	50	53	33	19
	대전	119	118	121	116	99	84	92	86	65	58	51	37	28
	울산	103	89	107	104	112	70	84	78	64	60	47	32	15
	세종	0	0	0	0	0	0	0	0	0	14	12	11	4
	경기	907	966	974	891	801	769	764	735	631	662	543	382	223
	강원	102	94	97	79	72	72	71	63	55	59	47	34	20
	충북	104	110	114	93	97	78	79	84	79	83	64	34	23
	충남	154	166	174	168	154	139	133	117	106	85	70	60	34
	전북	103	114	117	92	94	80	74	80	61	66	49	39	21
	전남	100	85	96	76	77	69	57	59	58	49	47	31	19
	경북	175	161	190	163	161	134	130	129	109	114	103	63	36
	경남	256	250	248	240	210	179	185	168	161	151	141	112	59
	제주	41	40	44	38	33	32	29	35	27	31	26	19	13
	비율 (%)	전국	24.9	24.5	24.9	21.8	19.6	17.0	16.4	15.0	12.9	12.7	11.1	7.4
서울		23.4	24.0	22.8	20.0	18.1	16.4	15.4	13.6	12.2	12.1	11.5	7.6	4.4
부산		26.3	23.5	25.6	24.8	19.4	16.7	18.4	14.7	11.8	12.2	11.4	7.4	3.8
대구		23.7	25.5	25.7	23.6	22.2	20.5	17.4	16.3	13.8	14.0	12.7	7.0	3.5
인천		28.3	23.9	25.5	21.1	22.8	20.4	20.4	17.3	16.2	14.8	13.7	8.8	5.5
광주		23.7	24.8	29.2	21.4	17.6	13.3	12.4	11.7	10.6	9.5	9.7	5.8	3.5
대전		23.8	23.0	23.1	22.3	18.5	15.4	16.5	15.3	11.2	10.0	8.7	6.3	4.9
울산		25.9	21.9	26.1	25.5	26.9	16.0	19.0	17.3	14.4	13.3	10.5	7.3	3.4
세종		-	-	-	-	-	-	-	-	-	13.5	9.9	8.4	2.8
경기		24.3	25.4	24.9	22.2	19.3	17.4	16.9	15.8	13.2	13.5	10.8	7.2	4.3
강원		26.2	22.8	23.8	19.7	17.6	16.2	15.5	13.6	11.4	11.8	9.3	6.6	3.8
충북		24.3	24.7	24.3	19.5	20.2	15.6	15.3	15.8	14.2	14.5	11.0	5.7	3.9
충남		28.3	29.2	30.1	27.5	23.4	19.8	18.7	15.6	13.6	11.5	9.2	7.7	4.4
전북		23.2	25.2	25.2	18.9	18.4	15.1	13.5	14.5	11.1	11.8	8.8	6.6	3.6
전남		24.7	19.8	22.6	16.8	16.4	14.1	11.3	11.3	11.1	9.1	9.0	5.7	3.6
경북		24.9	22.8	26.4	21.7	20.8	16.6	15.6	15.3	12.8	13.3	12.0	7.4	4.4
경남		28.1	26.7	25.8	23.5	20.1	16.6	16.4	14.8	14.2	13.1	12.4	9.4	5.2
제주		24.0	23.1	25.4	22.4	18.5	16.8	14.2	16.9	12.4	13.2	11.2	7.8	5.6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4) 65세 이상 고령 임금 노동자

- 서울지역 고령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199천명으로 2008년 91천명보다 108천명 (118.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5.3%로 2008년 2.5%보다 2.8%p 증가하였음.
- 전국 고령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1,115천명으로 2008년 377천명보다 738천명 (195.8%)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5.9%로 2008년 2.4%보다 3.5%p 증가하였음.
- 2020년 지역별 고령임금노동자 규모는 경기 230천명, 서울 199천명, 부산 87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12.3%, 전북 9.9%, 전남 8.4% 순임.

[표 3-12] 65세 이상 고령 임금 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377	464	454	479	516	611	679	742	790	876	1,010	1,126	1,115
	서울	91	103	103	99	112	120	137	142	152	167	201	214	199
	부산	28	32	32	38	41	48	50	57	63	72	86	84	87
	대구	19	21	20	25	23	28	34	38	38	43	39	42	43
	인천	20	26	24	27	32	36	42	45	46	48	65	68	72
	광주	11	14	14	14	14	19	19	22	25	29	31	35	37
	대전	12	16	16	17	18	21	21	23	26	26	29	33	31
	울산	5	8	8	10	8	10	12	13	15	15	18	19	20
	세종	0	0	0	0	0	0	0	0	0	4	5	5	6
	경기	74	94	95	89	101	125	137	147	163	177	204	242	230
	강원	15	19	19	17	16	22	27	29	33	39	52	57	63
	충북	12	13	16	15	16	20	23	23	24	30	34	39	38
	충남	15	21	20	20	24	28	33	32	32	35	40	42	39
	전북	14	17	17	19	20	26	28	33	32	35	40	52	56
	전남	14	21	17	25	24	26	31	38	36	41	43	50	45
	경북	20	27	27	30	31	36	39	45	45	51	56	62	65
	경남	17	23	19	29	31	36	36	42	43	48	51	63	65
	제주	7	9	7	7	8	10	11	13	14	15	16	18	17
비율 (%)	전국	2.4	3.0	2.8	2.9	3.1	3.5	3.8	4.1	4.3	4.7	5.3	5.8	5.9
	서울	2.5	2.9	2.9	2.7	3.0	3.3	3.7	3.8	4.0	4.3	5.1	5.5	5.3
	부산	2.6	2.9	2.9	3.4	3.5	4.1	4.3	4.8	5.3	5.9	6.9	6.9	7.4
	대구	2.5	2.7	2.6	3.1	2.9	3.4	4.0	4.4	4.5	5.1	4.8	5.1	5.6
	인천	2.3	2.8	2.5	2.8	3.1	3.5	3.9	4.2	4.0	4.2	5.5	5.7	6.2
	광주	2.5	2.8	2.8	2.8	2.8	3.9	3.7	4.3	4.9	5.4	5.6	6.3	6.8
	대전	2.5	3.1	3.1	3.3	3.4	3.9	3.7	4.0	4.4	4.5	5.1	5.7	5.6
	울산	1.3	2.0	2.0	2.4	1.9	2.4	2.6	2.8	3.3	3.3	4.0	4.3	4.7
	세종	-	-	-	-	-	-	-	-	-	3.8	4.2	3.8	3.9
	경기	2.0	2.5	2.4	2.2	2.4	2.8	3.0	3.2	3.4	3.6	4.1	4.6	4.4
	강원	3.8	4.6	4.6	4.2	3.8	4.9	6.0	6.3	6.9	7.8	10.3	11.0	12.3
	충북	2.8	3.0	3.5	3.2	3.2	4.1	4.5	4.4	4.4	5.2	5.9	6.5	6.4
	충남	2.8	3.7	3.5	3.2	3.6	4.0	4.7	4.2	4.1	4.8	5.2	5.4	5.1
	전북	3.2	3.7	3.7	3.9	3.9	4.9	5.1	6.0	5.8	6.3	7.1	8.8	9.9
	전남	3.5	5.0	3.9	5.5	5.1	5.2	6.1	7.2	7.0	7.7	8.0	9.1	8.4
	경북	2.9	3.9	3.7	4.0	4.0	4.4	4.6	5.3	5.3	6.0	6.5	7.3	8.0
	경남	1.9	2.4	2.0	2.8	3.0	3.3	3.2	3.7	3.8	4.2	4.5	5.3	5.7
	제주	4.0	5.3	4.4	4.2	4.2	5.2	5.3	6.5	6.3	6.4	6.6	7.3	7.2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5) 기후위기 직접 산업 노동자

- 서울지역 기후위기영향 노동자 규모는 2020년 4천명으로 2008년 9천명보다 5천명 (55.6%)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0.1%로 2008년 0.2%보다 0.1%p 감소하였음.
- 전국 기후위기영향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687천명으로 2008년 2,303천명보다 616천명(26.7%)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6.6%로 2008년 9.9%보다 3.3%p 감소하였음.
- 2020년 지역별 기후위기영향 노동자 규모는 경북 307천명, 전남 263천명, 충남 233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전남 27.2%, 경북 22.1%, 충남 19.4% 순임.

[표 3-13] 기후위기 직접 산업 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2,303	2,198	2,186	2,238	1,857	1,988	2,050	1,849	1,816	1,791	1,702	1,694	1,687
	서울	9	5	9	6	7	8	8	6	4	5	4	4	4
	부산	45	39	42	44	15	18	16	10	12	12	12	8	9
	대구	44	45	37	43	26	33	33	23	24	22	24	24	24
	인천	105	103	109	97	21	24	20	18	14	14	15	16	14
	광주	14	17	18	19	25	22	28	22	20	20	18	19	20
	대전	13	12	12	13	10	11	11	11	11	11	12	12	12
	울산	21	16	16	16	12	15	15	15	16	14	9	9	8
	세종	0	0	0	0	0	0	0	0	0	9	9	10	10
	경기	267	243	212	221	180	203	214	172	176	167	145	145	146
	강원	135	130	125	119	122	134	138	125	117	115	108	110	104
	충북	133	133	131	135	127	133	141	140	135	142	112	112	106
	충남	271	261	263	281	216	242	258	241	238	222	232	227	233
	전북	206	203	202	201	179	193	193	179	177	178	162	166	170
	전남	344	325	319	333	294	303	311	287	281	276	274	270	263
	경북	378	356	358	360	325	339	350	314	302	304	302	305	307
	경남	244	235	260	268	221	237	245	228	224	221	207	199	193
제주	76	74	74	83	76	73	71	60	64	59	56	59	64	
비율 (%)	전국	9.9	9.5	9.4	9.5	7.9	8.2	8.3	7.4	7.2	7.0	6.6	6.5	6.6
	서울	0.2	0.1	0.2	0.1	0.2	0.2	0.2	0.1	0.1	0.1	0.1	0.1	0.1
	부산	2.9	2.6	2.8	2.9	0.9	1.1	1.0	0.6	0.7	0.7	0.8	0.5	0.6
	대구	4.0	4.0	3.3	3.8	2.3	2.9	2.8	2.0	2.1	1.9	2.1	2.1	2.2
	인천	8.1	7.9	8.2	7.3	1.6	1.8	1.5	1.3	1.0	0.9	1.0	1.1	0.9
	광주	2.2	2.6	2.6	2.8	3.7	3.3	4.0	3.1	2.9	2.9	2.5	2.6	2.7
	대전	1.9	1.8	1.8	1.9	1.4	1.6	1.5	1.4	1.4	1.4	1.6	1.6	1.7
	울산	4.0	3.2	3.0	3.0	2.3	2.7	2.7	2.7	2.9	2.5	1.6	1.6	1.6
	세종	-	-	-	-	-	-	-	-	-	7.1	6.2	5.9	5.5
	경기	5.1	4.7	4.0	4.1	3.3	3.5	3.6	2.9	2.9	2.7	2.3	2.2	2.2
	강원	19.9	19.0	18.5	18.3	18.5	18.8	18.7	16.7	15.5	14.9	13.9	13.7	13.4
	충북	18.7	18.5	17.9	18.4	17.2	17.1	17.4	16.9	16.1	16.4	13.1	12.9	12.4
	충남	27.1	26.0	25.5	26.8	20.8	21.6	22.2	20.0	19.3	19.1	19.6	18.6	19.4
	전북	25.1	24.9	24.5	24.2	21.4	21.9	21.5	19.8	19.5	19.5	18.2	17.9	18.7
	전남	37.6	35.7	35.8	36.5	32.4	32.4	32.6	29.7	29.1	28.2	28.3	27.2	27.2
	경북	28.3	27.3	27.5	27.6	24.4	24.4	24.7	22.1	21.3	21.2	21.0	21.1	22.1
	경남	16.7	15.9	17.3	17.0	14.2	14.7	14.6	13.4	13.2	12.8	12.2	11.5	11.7
제주	26.4	25.5	26.0	29.0	25.9	23.9	22.6	18.5	18.6	16.6	15.6	15.8	17.6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취업자(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기후위기 직접 산업: 산업중분류 농업+임업+어업+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3) 실업 상태

(1) 장기실업자

- 서울지역 장기실업자 규모는 2020년 5천명으로 2008년 18천명보다 14천명(74.5%)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1.7%로 2008년 9.2%보다 7.5%p 감소하였음.
- 전국 장기실업자 규모는 2020년 16천명으로 2008년 48천명보다 31천명(65.7%)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1.5%로 2008년 6.6%보다 5.1%p 감소하였음.

[표 3-14] 장기실업자(6개월 초과)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47.8	15.6	76.5	24.5	15.0	19.1	17.2	11.8	15.2	25.4	26.0	30.4	16.4	
	서울	18.4	8.0	28.0	13.2	6.8	11.0	8.2	5.7	5.4	8.9	11.7	12.2	4.7	
	부산	1.0	0.9	0.9	1.3	1.8	1.5	0.5	1.5	1.8	2.0	1.5	2.1	1.7	
	대구	1.5	0.3	8.3	1.3	1.0	0.9	0.7	0.5	0.6	2.3	1.5	1.9	1.3	
	인천	5.0	1.6	3.6	1.7	2.3	0.7	2.0	0.2	1.6	3.6	0.4	0.4	0.0	
	광주	1.3	0.0	0.8	0.3	0.0	0.0	0.1	0.2	0.9	1.0	0.9	0.7	1.3	
	대전	0.8	0.0	0.2	0.4	0.5	0.9	0.2	0.0	0.1	0.3	0.7	0.3	0.3	
	울산	0.9	0.3	1.6	0.2	0.0	0.1	0.3	0.0	0.4	0.1	0.2	0.6	0.1	
	세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0.0	
	경기	5.5	2.9	13.9	2.4	1.8	1.9	1.7	1.1	1.7	4.4	3.9	6.4	4.6	
	강원	0.6	0.2	2.5	0.2	0.1	0.1	0.0	0.1	0.4	0.2	0.0	0.2	0.3	
	충북	1.8	0.0	2.2	0.3	0.0	0.0	0.0	0.2	0.0	0.4	0.4	0.0	0.0	
	충남	4.0	0.5	2.9	0.8	0.0	0.1	0.3	0.0	0.6	0.2	0.4	0.4	0.0	
	전북	2.8	0.0	2.3	0.3	0.0	0.2	0.2	0.6	0.0	0.2	0.2	0.1	0.3	
	전남	0.4	0.1	1.8	0.3	0.0	0.1	0.3	0.1	0.3	0.1	0.4	0.1	0.1	
	경북	1.7	0.3	3.8	0.6	0.2	0.6	2.0	0.7	0.4	0.7	1.6	2.3	0.6	
	경남	1.9	0.5	3.5	1.1	0.5	1.1	0.5	0.9	0.9	0.6	1.6	2.2	1.1	
	제주	0.2	0.0	0.1	0.0	0.0	0.0	0.0	0.0	0.1	0.3	0.4	0.3	0.0	
	비율 (%)	전국	6.6	2.1	9.6	2.8	1.8	2.4	2.0	1.2	1.6	2.7	2.5	2.6	1.5
		서울	9.2	4.3	13.1	5.1	2.9	5.0	3.6	2.2	2.4	3.5	4.7	4.2	1.7
부산		1.9	1.4	1.7	2.3	3.1	2.3	0.6	2.1	2.1	2.5	1.9	2.1	1.8	
대구		3.6	0.6	16.4	3.1	2.2	2.1	1.7	1.2	1.2	5.1	2.8	3.1	3.1	
인천		10.5	2.8	5.7	2.3	3.2	0.9	2.5	0.2	1.7	4.8	0.5	0.5	0.0	
광주		5.1	0.0	3.2	1.1	0.0	0.0	0.7	0.7	3.6	4.2	3.3	3.0	5.4	
대전		3.9	0.0	1.1	1.5	1.8	3.7	1.2	0.0	0.7	1.6	3.5	1.5	1.3	
울산		3.9	2.0	9.1	1.0	0.0	1.1	1.8	0.0	2.0	0.6	0.5	1.8	0.4	
세종		-	-	-	-	-	-	-	-	-	2.8	5.0	0.0	0.0	
경기		3.7	2.0	8.7	1.3	0.9	1.0	0.8	0.5	0.7	2.0	1.5	2.2	1.7	
강원		4.9	2.1	13.1	1.2	0.9	0.6	0.2	0.5	1.8	1.1	0.0	0.8	1.4	
충북		9.8	0.0	11.8	1.6	0.0	0.2	0.0	0.8	0.0	1.8	1.7	0.2	0.1	
충남		14.8	1.9	9.2	2.7	0.0	0.3	1.3	0.0	2.1	0.9	1.5	1.3	0.0	
전북		14.5	0.0	9.5	1.3	0.0	1.4	1.5	3.6	0.0	1.2	1.0	0.4	1.8	
전남		2.4	0.4	9.5	1.4	0.0	0.8	2.0	0.3	1.6	0.8	2.6	0.6	0.7	
경북		5.8	0.9	11.9	1.8	0.6	2.2	6.0	2.1	1.1	1.9	3.9	5.1	1.5	
경남		5.6	1.3	8.9	2.7	1.5	3.3	1.5	2.3	1.8	1.2	2.4	2.8	1.6	
제주		2.9	0.0	2.6	0.0	0.0	0.0	0.0	0.0	1.4	3.2	7.1	3.2	0.0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실업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장기실업자=실업기간 6개월 초과자.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2) 미스매치 실업자

- 서울지역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는 2020년 90천명으로 2008년 17천명보다 73천명 (429.4%)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27.2%로 2008년 13.1%보다 14.1%p 증가하였음.
- 전국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는 2020년 482천명으로 2008년 103천명보다 379천명 (368.0%)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28.1%로 2008년 13.9%보다 14.2%p 증가하였음.
- 2020년 지역별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는 경기 103천명, 서울 90천명, 부산 42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대전 45.0%, 전북 43.0%, 광주 41.4% 순임.
- 2020년 지역별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2008년대비 2400.0% 증가), 광주(2008년대비 733.3% 증가), 전남(2008년대비 650.0% 증가), 충북(2008년대비 600.0% 증가) 순임.

[표 3-15]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103	108	114	153	145	88	150	352	374	383	418	402	482
	서울	17	14	30	29	27	21	26	85	87	73	88	80	90
	부산	22	28	16	16	18	9	12	27	28	31	37	33	42
	대구	8	7	9	9	9	4	11	25	21	29	24	23	31
	인천	4	5	5	7	11	6	8	18	21	32	15	19	27
	광주	3	4	3	2	4	2	5	11	14	15	15	19	25
	대전	1	2	3	2	3	4	7	10	13	17	16	15	25
	울산	2	1	2	3	2	1	3	9	12	10	9	13	11
	세종	0	0	0	0	0	0	0	0	0	2	2	1	2
	경기	23	25	22	46	40	26	44	80	73	78	88	91	103
	강원	3	3	2	4	5	2	2	9	10	9	10	10	10
	충북	2	3	3	4	3	1	5	8	11	10	14	17	14
	충남	2	1	2	3	3	1	5	8	13	13	14	14	12
	전북	3	2	2	4	1	1	4	10	15	13	18	13	20
	전남	2	2	4	3	2	2	2	10	12	12	14	15	15
	경북	4	4	6	10	9	4	7	16	14	16	18	13	18
	경남	6	7	5	10	8	4	8	23	26	21	31	22	30
	제주	1	1		1	1	0	1	2	3	4	3	5	6
	비율 (%)	전국	13.9	14.7	15.4	15.6	16.6	18.0	20.0	27.6	30.2	31.3	32.8	32.6
서울		13.1	16.7	17.2	13.6	16.2	18.7	18.7	34.0	33.2	29.7	33.7	34.3	27.2
부산		15.0	11.4	16.1	13.7	19.4	19.5	19.8	30.9	31.8	40.7	34.8	31.5	32.7
대구		16.8	13.8	15.2	14.7	19.9	15.6	21.5	26.9	30.0	35.9	32.1	38.2	28.8
인천		15.8	17.3	13.2	14.4	17.5	17.9	19.5	20.5	29.4	45.7	23.7	25.1	20.6
광주		17.0	13.9	8.9	8.3	17.9	15.6	24.6	26.7	40.4	37.4	39.3	43.2	41.4
대전		10.4	8.8	13.4	7.3	19.9	29.4	19.0	25.3	34.0	46.7	43.6	40.8	45.0
울산		19.0	7.3	11.5	18.3	14.4	16.4	15.9	31.6	37.7	28.3	26.7	41.3	26.5
세종		-	-	-	-	-	-	-	-	-	57.0	41.7	15.1	29.3
경기		13.5	18.2	14.0	17.9	15.9	16.9	22.3	24.0	23.3	24.2	28.1	29.1	24.8
강원		10.7	17.4	15.0	13.3	16.3	18.2	12.4	22.3	25.7	24.6	26.4	29.9	22.6
충북		10.6	23.6	16.0	16.2	10.2	12.6	19.2	22.0	23.5	26.1	35.8	34.0	26.8
충남		13.5	11.1	13.3	16.4	16.0	11.4	18.7	23.7	35.5	36.2	38.7	34.1	27.3
전북		16.1	17.1	13.5	17.8	8.7	17.9	21.9	33.5	41.4	31.0	41.0	36.3	43.0
전남		14.9	13.9	20.5	14.9	15.2	18.5	13.5	29.3	37.1	33.1	38.9	39.9	35.6
경북		9.7	18.0	22.8	23.0	18.2	20.5	22.1	30.3	24.5	28.3	32.9	30.1	22.2
경남		16.4	19.3	15.7	18.5	15.5	24.2	17.1	30.3	36.3	34.0	37.9	29.7	29.4
제주		10.3	9.5	10.0	15.9	20.1	0.0	23.7	18.9	42.8	38.3	38.7	35.1	22.3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희망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미스매치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을 희망하지만 전공불일치/경력 및 숙련 수준 불일치로 구직활동 하지 않는자.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2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4. 서울지역 고응 취약계층 규모: 건강

1) 만성질환자

- 서울지역 만성질환자 규모는 2019년 3,839천명으로 2011년 3,147천명보다 692천명 (22.0%)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39.7%로 2011년 31.4%보다 8.3%p 증가하였음.
- 전국 만성질환자 규모는 2019년 20,673천명으로 2011년 16,404천명보다 4,269천명 (26.0%)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40.0%로 2011년 33.0%보다 7.0%p 증가하였음.
- 2019년 지역별 만성질환자 규모는 인천경기 6,294천명, 서울 3,839천명, 경남 3,094천 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경북 44.1%, 전남/전북/제주 40.7%, 충남 40.6% 순임.

[표 3-16] 만성 질환자

		조사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16,404	17,261	19,034	17,417	18,502	20,152	20,340	18,890	20,673
	서울	3,147	3,328	3,547	3,562	3,507	3,886	3,887	3,490	3,839
	인천경기	4,633	4,834	5,647	5,024	5,264	6,003	6,151	5,539	6,294
	경남	2,446	2,456	3,270	2,469	2,522	2,745	2,713	2,883	3,094
	경북	1,940	1,834	2,141	1,924	2,122	2,210	2,240	2,154	2,246
	충남	1,346	1,439	1,233	1,254	1,308	1,460	1,665	1,409	1,634
	강원	969	1,216	982	1,141	1,283	1,241	1,305	1,269	1,236
	전남/전북/제주	1,923	2,155	2,214	2,042	2,496	2,607	2,379	2,146	2,330
비율 (%)	전국	33.0	34.4	37.7	34.3	36.3	39.3	39.5	36.6	40.0
	서울	31.4	33.2	35.5	35.7	35.3	39.4	39.8	35.9	39.7
	인천경기	31.9	32.7	37.8	33.2	34.4	38.7	39.1	34.8	38.9
	경남	31.4	31.3	41.5	31.2	31.7	34.5	34.1	36.2	39.3
	경북	37.9	35.7	41.7	37.4	41.2	42.9	43.5	41.9	44.1
	충남	37.1	40.8	34.6	35.3	37.8	41.7	47.5	35.1	40.6
	강원	31.9	39.8	32.0	36.9	41.3	39.8	41.8	40.4	39.3
	전남/전북/제주	34.1	37.0	37.9	34.5	40.9	42.4	38.3	37.2	40.7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전국인구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빈도수 합계(횡단면 모수추정 통합가중치 적용/결측치삭제).

주3: 만성질환 치료자(3개월 미만 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낮은 건강상태

- 서울지역 낮은 건강상태인구 규모는 2019년 931천명으로 2011년 948천명보다 17천명 (1.8%)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9.6%로 2011년 9.5%보다 0.1%p 증가하였음.
- 전국 낮은 건강상태인구 규모는 2019년 5,172천명으로 2011년 4,984천명보다 188천명 (3.8%)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10.0%로 2011년 10.0%보다 0.0%p 동일함.
- 2019년 지역별 낮은 건강상태인구 규모는 인천경기 1,190천명, 서울 931천명, 경남 848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12.8%, 전남/전북/제주 12.7%, 경북 12.5% 순임.

[표 3-17] 낮은 건강상태

		조사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4,984	5,405	5,614	4,954	5,030	4,889	4,922	5,952	5,172
	서울	948	978	1,163	1,011	1,005	780	749	1,035	931
	인천경기	1,138	1,321	1,375	1,416	1,411	1,191	1,308	1,518	1,190
	경남	763	798	926	865	892	969	1,016	1,106	848
	경북	658	740	660	586	535	452	552	791	635
	충남	460	417	401	210	266	458	393	442	440
	강원	328	365	381	249	301	408	312	391	401
	전남/전북/제주	689	787	708	617	620	630	593	669	725
비율 (%)	전국	10.0	10.8	11.1	9.8	9.9	9.5	9.6	11.5	10.0
	서울	9.5	9.7	11.6	10.1	10.1	7.9	7.7	10.6	9.6
	인천경기	7.8	8.9	9.2	9.3	9.2	7.7	8.3	9.6	7.4
	경남	9.8	10.2	11.8	10.9	11.2	12.2	12.8	13.9	10.8
	경북	12.9	14.4	12.9	11.4	10.4	8.8	10.7	15.4	12.5
	충남	12.7	11.8	11.3	5.9	7.7	13.1	11.2	11.0	10.9
	강원	10.8	11.9	12.4	8.1	9.7	13.1	10.0	12.5	12.8
	전남/전북/제주	12.2	13.5	12.1	10.4	10.2	10.3	9.5	11.6	12.7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전국인구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빈도수 합계(횡단면 모수추정 통합가중치 적용/결측치삭제).

주3: 낮은 건강상태=건강상태 매우 나쁨+나쁨 응답자.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심리상태: 우울증상

- 서울지역 심리상태 우울증상자 규모는 2019년 1,543천명으로 2011년 1,605천명보다 62천명(3.9%)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6.0%로 2011년 16.0%보다 0.0%p 동일함.
- 전국 심리상태 우울증상자 규모는 2019년 7,555천명으로 2011년 7,514천명보다 41천명(0.5%)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14.6%로 2011년 15.1%보다 0.5%p 감소하였음.
- 2019년 지역별 심리상태 우울증상자 규모는 인천경기 2,282천명, 서울 1,543천명, 경남 1,083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19.4%, 서울 16.0%, 경북 15.0% 순임.

[표 3-18] 심리상태: 우울증상

		조사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7,514	7,545	7,738	7,308	7,546	7,294	7,837	7,085	7,555
	서울	1,605	1,473	1,565	1,692	1,737	1,583	1,638	1,478	1,543
	인천경기	2,269	2,313	2,276	2,075	2,229	2,164	2,569	2,126	2,282
	경남	1,069	906	1,162	1,143	1,125	1,136	1,312	1,097	1,083
	경북	807	779	804	855	820	772	816	555	762
	충남	603	615	655	403	527	475	546	551	558
	강원	426	510	365	417	406	405	350	489	609
	전남/전북/제주	735	950	911	721	701	759	607	788	718
비율 (%)	전국	15.1	15.0	15.3	14.4	14.8	14.2	15.2	13.7	14.6
	서울	16.0	14.7	15.7	17.0	17.5	16.1	16.8	15.2	16.0
	인천경기	15.6	15.7	15.2	13.7	14.6	13.9	16.3	13.4	14.1
	경남	13.7	11.5	14.8	14.5	14.2	14.3	16.5	13.8	13.8
	경북	15.8	15.2	15.7	16.6	15.9	15.0	15.9	10.8	15.0
	충남	16.6	17.4	18.4	11.3	15.2	13.6	15.6	13.7	13.8
	강원	14.0	16.7	11.9	13.5	13.1	13.0	11.2	15.6	19.4
	전남/전북/제주	13.0	16.3	15.6	12.2	11.5	12.3	9.8	13.7	12.5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전국인구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빈도수 합계(횡단면 모수추정 통합가중치 적용/결측치삭제).
 주3: 우울척도 CESD-11 총합 점수치 16점 이상 응답자.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규모: 사회적자본

1) 사회관계

(1) 사회적자본 취약자

- 서울지역 사회적자본 취약자 규모는 2017년 2,637천명으로 2011년 2,299천명보다 338천명(14.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7년 27.0%로 2011년 22.9%보다 4.1%p 증가하였음.
- 전국 사회적자본 취약자 규모는 2017년 13,347천명으로 2011년 11,734천명보다 1,613천명(13.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7년 25.9%로 2011년 23.6%보다 2.3%p 증가하였음.
- 2017년 지역별 사회적자본 취약자 규모는 인천경기 4,479천명, 서울 2,637천명, 경남 1,617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인천경기 28.5%, 경북 27.5%, 서울 27.0% 순임.

[표 3-19] 사회관계 취약집단

		, 조사년		
		2011	2014	2017
빈도 (천명)	전국	11,734	13,627	13,347
	서울	2,299	2,722	2,637
	인천경기	3,555	4,500	4,479
	경남	1,593	1,812	1,617
	경북	1,250	1,470	1,416
	충남	894	927	918
	강원	843	770	705
	전남/전북/제주	1,300	1,426	1,575
비율 (%)	전국	23.6	26.9	25.9
	서울	22.9	27.3	27.0
	인천경기	24.5	29.7	28.5
	경남	20.4	22.9	20.3
	경북	24.4	28.6	27.5
	충남	24.6	26.1	26.2
	강원	27.8	24.9	22.5
전남/전북/제주	23.1	24.1	25.4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전국인구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빈도수 합계(횡단면 모수추정 통합가중치 적용/결측치삭제).

주3: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는 OECD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를 참고하였고, 복지패널 데이터에서 대체가능한 변수를 사용하여 한계가 있다.(자료: 최민정(2015),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령대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5(2), 124-164.)

주4: 사회적자본 취약자=사회적자본 측정지표(0→7점)에서 2.8점이하 응답자 / 해당실문지표는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져서 자료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청소년 가구주

- 서울지역 청소년가구주 규모는 2020년 10천명으로 2008년 8천명보다 2천명(25.0%)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과 2008년 0.2%로 동일함.
- 전국 청소년가구주 규모는 2020년 56천명으로 2008년 60천명보다 4천명(6.7%)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과 2008년 0.3%로 동일함.
- 2020년 지역별 청소년가구주 규모는 서울 10천명, 경기 7천명, 대전 5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세종 1.0%, 대전 0.8%, 광주 0.4% 순임.

[표 3-20] 청소년 가구주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60	49	49	61	65	59	65	66	77	74	84	86	56
	서울	8	7	7	9	9	11	14	13	17	17	19	17	10
	부산	4	3	3	4	4	4	4	3	3	2	6	7	3
	대구	1	2	2	3	4	3	1	2	2	2	3	2	3
	인천	2	2	1	2	2	2	2	1	1	1	2	3	4
	광주	2	3	2	2	2	3	2	3	4	4	3	3	3
	대전	4	2	2	2	3	3	4	4	4	4	5	6	5
	울산		1					0				1	1	1
	세종	0	0	0	0	0	0	0	0	0	1	1	2	1
	경기	8	7	5	6	8	5	6	7	7	8	8	8	7
	강원	5	5	4	7	4	3	4	5	5	5	5	5	2
	충북	3	2	2	4	3	3	3	3	5	4	5	3	3
	충남	5	3	5	6	9	6	6	8	9	8	8	10	4
	전북	5	3	3	4	3	3	3	4	5	5	4	5	3
	전남	2	1	2	1	2	2	2	1	2	2	3	2	1
	경북	4	5	5	8	7	8	9	7	8	6	7	8	4
	경남	4	3	4	3	4	4	4	4	5	4	3	4	3
	제주	1		1	0					1				
	비율 (%)	전국	0.3	0.3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서울		0.2	0.2	0.2	0.2	0.2	0.3	0.4	0.3	0.4	0.4	0.5	0.4	0.2
부산		0.3	0.2	0.3	0.3	0.3	0.3	0.3	0.2	0.2	0.2	0.4	0.5	0.2
대구		0.2	0.2	0.3	0.3	0.4	0.3	0.2	0.3	0.2	0.2	0.3	0.2	0.3
인천		0.2	0.2	0.1	0.2	0.2	0.2	0.2	0.1	0.1	0.1	0.1	0.3	0.3
광주		0.4	0.5	0.4	0.5	0.3	0.5	0.4	0.5	0.6	0.7	0.5	0.5	0.4
대전		0.8	0.4	0.4	0.3	0.5	0.5	0.6	0.7	0.6	0.6	0.8	0.9	0.8
울산		0.1	0.1	0.0	0.1	0.0	0.0	0.0	0.1	0.1	0.1	0.2	0.2	0.2
세종		-	-	-	-	-	-	-	-	-	1.1	1.2	1.7	1.0
경기		0.2	0.2	0.1	0.2	0.2	0.1	0.1	0.2	0.2	0.2	0.2	0.2	0.1
강원		0.9	0.9	0.7	1.2	0.7	0.4	0.6	0.7	0.8	0.7	0.8	0.7	0.3
충북		0.5	0.4	0.4	0.6	0.6	0.5	0.5	0.5	0.7	0.6	0.7	0.4	0.4
충남		0.7	0.4	0.6	0.8	1.0	0.7	0.7	0.8	0.9	0.9	0.8	1.0	0.4
전북		0.7	0.5	0.5	0.5	0.4	0.4	0.4	0.5	0.6	0.6	0.6	0.6	0.4
전남		0.2	0.1	0.2	0.2	0.2	0.2	0.3	0.2	0.2	0.2	0.4	0.3	0.1
경북		0.4	0.5	0.5	0.8	0.7	0.7	0.8	0.6	0.7	0.5	0.6	0.7	0.4
경남		0.3	0.3	0.3	0.3	0.3	0.3	0.3	0.3	0.4	0.3	0.2	0.3	0.2
제주		0.3	0.2	0.3	0.0	0.1	0.2	0.1	0.2	0.4	0.2	0.2	0.1	0.1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생산가능인구대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청소년 가구주: 19세 이하+가구주.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2) 인적자본 개발

(1)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 서울지역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346천명으로 2008년 438천명보다 92천명(21.0%)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9.1%로 2008년 12.3%보다 3.2%p 감소하였음.
- 전국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2,224천명으로 2008년 2,300천명보다 76천명(3.3%)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11.7%로 2008년 15.0%보다 3.3%p 감소하였음.
- 2020년 지역별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는 경기 581천명, 서울 346천명, 인천 144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강원 20.0%, 전북 16.2%, 전북 16.2% 순임.
- 2020년 지역별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2008년대비 20.8% 증가), 강원(2008년대비 18.6% 증가), 전남(2008년대비 16.7% 증가), 경기(2008년대비 13.3% 증가) 순임.

[표 3-21]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천명)	전국	2,300	2,506	2,541	2,726	2,491	2,529	2,633	2,194	2,206	2,369	2,259	2,398	2,224	
	서울	438	475	497	503	468	457	465	392	381	405	400	396	346	
	부산	180	204	189	208	180	183	192	157	152	163	154	156	139	
	대구	126	133	133	153	121	122	128	102	97	109	99	92	89	
	인천	138	151	145	167	151	141	154	122	134	143	143	151	144	
	광주	66	74	67	64	62	62	67	56	49	58	58	62	63	
	대전	73	83	84	86	82	73	75	61	64	66	61	63	55	
	울산	49	56	56	58	51	46	52	41	41	43	46	48	45	
	세종	0	0	0	0	0	0	0	0	0	9	11	12	12	
	경기	513	540	591	602	557	602	623	515	545	577	559	623	581	
	강원	86	95	91	103	90	95	96	81	83	94	94	104	102	
	충북	78	83	87	93	83	88	97	84	83	90	80	86	81	
	충남	99	107	108	122	108	115	122	106	112	102	97	103	101	
	전북	77	86	87	93	95	96	95	85	85	89	82	95	93	
	전남	72	87	80	100	89	91	101	90	83	88	85	93	84	
	경북	128	142	136	157	148	147	148	126	127	137	126	124	115	
	경남	139	152	152	177	169	173	175	142	134	154	127	150	137	
	제주	38	39	38	42	35	41	43	35	35	43	37	39	38	
	비율 (%)	전국	15.0	16.0	15.9	16.7	14.8	14.6	14.8	12.2	12.0	12.6	11.9	12.3	11.7
		서울	12.3	13.4	13.8	13.8	12.7	12.4	12.5	10.5	10.1	10.5	10.2	10.2	9.1
부산		16.5	18.7	17.2	18.5	15.6	15.7	16.6	13.2	12.6	13.3	12.3	12.7	12.0	
대구		17.0	17.2	17.0	19.4	15.3	15.0	15.3	12.1	11.5	12.8	12.1	11.2	11.5	
인천		15.6	16.2	15.4	17.4	14.7	13.4	14.4	11.2	11.8	12.3	12.2	12.7	12.3	
광주		14.4	15.2	13.6	13.1	12.5	12.4	12.9	10.8	9.6	10.9	10.6	11.1	11.4	
대전		14.6	16.1	15.9	16.4	15.3	13.3	13.5	10.7	11.0	11.4	10.4	10.7	9.8	
울산		12.3	13.7	13.7	14.2	12.2	10.4	11.6	9.1	9.2	9.4	10.2	10.8	10.5	
세종		-	-	-	-	-	-	-	-	-	8.6	9.7	8.9	8.0	
경기		13.8	14.2	15.1	15.0	13.4	13.6	13.8	11.1	11.4	11.7	11.1	11.8	11.1	
강원		22.0	22.9	22.5	25.5	21.7	21.6	21.0	17.5	17.2	18.9	18.5	20.0	20.0	
충북		18.3	18.7	18.6	19.6	17.2	17.6	18.6	15.7	15.0	15.7	13.6	14.4	13.6	
충남		18.2	18.8	18.6	20.0	16.4	16.4	17.1	14.1	14.4	13.9	12.9	13.1	13.2	
전북		17.4	18.9	18.7	19.0	18.7	18.1	17.4	15.4	15.4	15.9	14.6	16.0	16.2	
전남		17.9	20.2	18.6	22.2	19.0	18.5	20.0	17.3	16.0	16.5	16.0	16.9	15.8	
경북		18.3	20.0	19.0	21.0	19.2	18.2	17.8	15.0	15.0	15.9	14.8	14.5	14.0	
경남		15.2	16.2	15.9	17.3	16.2	16.0	15.5	12.4	11.8	13.4	11.1	12.6	12.1	
제주		22.2	22.4	21.9	24.5	19.6	21.5	21.4	16.9	15.8	18.7	15.8	15.8	16.2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각 시도 빈도수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 빈도수 합계(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주3: 저학력+저숙련=고졸이하+단순노무 직무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A형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MDIS.

(2) 교육훈련 미경험

- 서울지역 교육훈련 미경험규모는 2019년 369천명으로 2010년 252천명보다 117천명 (46.4%)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9.3%로 2010년 7.5%보다 1.8%p 증가하였음.
- 전국 교육훈련 미경험규모는 2019년 1,752천명으로 2010년 1,565천명보다 187천명 (11.9%)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8.7%로 2010년 9.9%보다 1.2%p 감소하였음.
- 2019년 지역별 교육훈련 미경험규모는 서울 369천명, 경북 230천명, 경기 187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경북 24.8%, 울산 21.2%, 세종 20.4% 순임.

[표 3-22] 임금노동자 중 교육훈련 경험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1,565	1,477	1,375	1,731	1,503	1,692	1,756	1,764	1,809	1,752
	서울	252	319	229	386	242	341	383	306	503	369
	부산	104	98	124	152	124	125	107	128	118	150
	대구	54	30	40	66	53	100	81	37	61	90
	인천	72	88	64	71	65	59	107	95	40	62
	광주	8	12	20	11	2	0	0	0	2	2
	대전	138	102	77	92	115	109	49	100	102	70
	울산	47	75	80	103	65	74	78	86	74	98
	세종	0	0	0	0	9	0	7	35	36	23
	경기	260	266	276	310	308	233	238	246	227	187
	강원	26	19	9	13	6	8	16	9	21	17
	충북	119	127	44	105	68	116	141	111	81	88
	충남	93	138	131	158	195	209	225	179	99	126
	전북	37	22	13	15	71	44	55	94	120	119
	전남	151	61	71	68	47	70	37	42	61	35
	경북	103	68	112	115	65	123	147	239	203	230
	경남	101	52	85	61	55	81	73	52	61	86
제주	0	0	0	5	13	0	12	5	0	0	
비율 (%)	전국	9.9	8.5	7.8	9.6	8.1	9.0	9.2	9.0	9.1	8.7
	서울	7.5	8.5	6.0	10.0	6.4	8.6	9.8	7.6	12.4	9.3
	부산	9.4	8.0	9.9	12.4	9.7	9.4	8.2	9.6	8.6	11.1
	대구	6.7	3.3	4.7	7.6	5.7	10.8	8.8	4.0	6.6	9.8
	인천	13.1	15.1	11.0	11.9	11.3	10.6	17.7	15.1	6.5	10.1
	광주	0.9	1.2	1.9	1.0	0.2	0.0	0.0	0.0	0.2	0.2
	대전	26.0	18.5	14.0	17.1	17.7	16.3	8.3	16.9	17.0	11.0
	울산	11.8	17.9	17.6	22.1	14.0	15.4	16.8	17.6	15.5	21.2
	세종	-	-	-	0.0	50.0	0.0	10.3	42.7	33.3	20.4
	경기	7.0	6.4	6.5	7.2	7.0	5.2	5.1	5.1	4.5	3.6
	강원	7.4	5.3	2.3	3.0	1.4	1.8	3.4	2.1	4.4	3.4
	충북	23.1	22.9	7.6	17.9	10.5	19.4	23.2	17.8	12.7	14.1
	충남	14.0	19.5	18.1	20.7	22.7	25.1	27.4	20.8	11.3	13.1
	전북	7.4	3.8	2.2	2.7	11.5	7.6	9.1	15.6	18.9	19.9
	전남	32.0	12.3	14.1	12.4	8.5	12.5	6.4	7.1	10.5	6.0
	경북	11.9	7.4	12.6	13.1	7.1	13.7	16.7	26.2	21.8	24.8
	경남	10.3	4.9	7.8	5.4	4.7	6.8	6.0	4.2	4.9	6.9
제주	0.0	0.0	0.0	3.2	6.8	0.0	6.5	2.0	0.0	0.0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3) 노동권의

(1) 노동조합 가입

- 서울지역 노동조합 가입자 규모는 2019년 324천명으로 2010년 192천명보다 132천명 (68.8%)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8.1%로 2010년 5.7%보다 2.4%p 증가하였음.
- 전국 노동조합 가입자 규모는 2019년 2,154천명으로 2010년 1,450천명보다 704천명 (48.6%) 증가하였고, 비율은 2019년 10.7%로 2010년 9.1%보다 1.6%p 증가하였음.
- 2019년 지역별 노동조합 가입자 규모는 경기 472천명, 서울 324천명, 경북 153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울산 22.9%, 대전 22.1%, 세종 21.2% 순임.

[표 3-23] 노동조합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1,450	1,634	1,674	1,786	1,906	1,896	1,983	1,979	1,953	2,154
	서울	192	251	270	269	313	318	314	358	292	324
	부산	91	106	142	125	138	144	105	117	129	120
	대구	61	86	68	86	131	93	71	77	71	50
	인천	81	58	45	58	69	52	79	67	61	75
	광주	70	87	67	96	87	90	83	87	79	88
	대전	94	70	104	100	84	112	108	107	115	141
	울산	65	83	95	104	81	105	82	101	97	106
	세종	0	0	0	0	13	15	25	20	23	24
	경기	262	320	316	318	334	330	405	365	334	472
	강원	32	23	27	32	12	49	31	97	31	91
	충북	64	70	63	65	66	72	71	71	82	96
	충남	65	61	70	83	102	87	86	94	99	115
	전북	104	116	125	111	116	113	107	92	123	90
	전남	76	67	81	87	91	81	90	98	103	84
	경북	96	121	91	125	148	116	161	146	143	153
	경남	97	115	94	89	121	119	87	133	101	125
	제주	0	0	16	38	0	0	12	15	4	0
	비율 (%)	전국	9.1	9.4	9.4	9.9	10.2	10.1	10.4	10.1	9.8
서울		5.7	6.7	7.1	6.9	8.2	8.0	8.0	8.8	7.2	8.1
부산		8.3	8.6	11.3	10.2	10.8	10.8	8.1	8.8	9.4	8.9
대구		7.6	9.6	8.0	9.9	14.2	10.1	7.7	8.3	7.6	5.4
인천		14.7	9.9	7.8	9.7	12.0	9.3	13.1	10.6	10.0	12.3
광주		7.7	8.5	6.4	8.9	8.0	8.8	7.7	7.6	6.9	7.5
대전		17.7	12.7	18.9	18.6	12.9	16.7	18.3	18.1	19.1	22.1
울산		16.3	19.9	20.9	22.3	17.4	21.9	17.7	20.7	20.4	22.9
세종		-	-	-	0.0	72.2	27.3	36.8	24.4	21.3	21.2
경기		7.0	7.7	7.4	7.4	7.6	7.3	8.6	7.6	6.6	9.1
강원		9.1	6.4	6.9	7.5	2.7	11.1	20.6	7.1	20.6	18.5
충북		12.4	12.6	10.9	11.1	10.2	12.0	11.7	11.4	12.8	15.4
충남		9.8	8.6	9.7	10.8	11.9	10.4	10.5	10.9	11.3	12.0
전북		20.7	20.1	21.6	19.7	18.7	19.6	17.6	15.3	19.4	15.1
전남		16.1	13.6	16.1	15.9	16.4	14.5	15.5	16.6	17.8	14.4
경북		11.0	13.2	10.3	14.2	16.2	12.9	18.3	16.0	15.3	16.5
경남		9.9	10.9	8.7	7.8	10.3	10.1	7.1	10.6	8.2	10.1
제주		0.0	0.0	10.1	24.5	0.0	0.0	6.5	6.0	1.7	0.0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노사협의회 운영

- 서울지역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20년 428천명으로 2008년 346천명보다 82천명(23.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10.7%로 2008년 8.9%보다 1.8%p 증가하였음.
- 전국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20년 2,505천명으로 2008년 1,898천명보다 607천명(32.0%)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12.5%로 2008년 10.5%보다 2.0%p 증가하였음.
- 2020년 지역별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경기 710천명, 서울 428천명, 충남 186천명 순이며, 비율별로는 전북 25.8%, 전남 21.6%, 세종 20.4% 순임.

[표 3-24] 임금노동자 중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1,898	2,120	2,243	2,218	2,344	2,426	2,505
	서울	346	385	442	402	501	399	428
	부산	135	102	122	94	80	87	91
	대구	71	110	94	104	96	134	75
	인천	59	60	92	78	67	80	82
	광주	84	95	114	98	95	75	119
	대전	29	52	52	74	79	103	108
	울산	92	85	69	73	51	102	55
	세종	0	13	15	17	17	26	23
	경기	366	475	590	524	566	530	710
	강원	38	34	17	88	46	62	34
	충북	44	53	78	61	94	83	103
	충남	118	139	112	124	118	160	186
	전북	112	119	131	121	129	167	154
	전남	104	108	92	94	120	119	126
	경북	146	207	163	179	182	183	150
	경남	119	83	60	86	87	99	61
제주	35	0	0	1	16	17	0	
비율 (%)	전국	10.5	11.4	11.9	11.7	12.0	12.2	12.5
	서울	8.9	10.1	11.1	10.3	12.4	9.9	10.7
	부산	11.0	8.0	9.2	7.2	6.0	6.3	6.7
	대구	8.2	11.9	10.2	11.3	10.4	14.4	8.2
	인천	9.9	10.4	16.5	12.9	10.6	13.1	13.4
	광주	7.7	8.7	11.1	9.0	8.3	6.6	10.1
	대전	5.4	8.0	7.8	12.5	13.3	17.1	16.9
	울산	19.7	18.3	14.4	15.8	10.5	21.4	11.9
	세종	0.0	72.2	27.3	25.0	20.7	24.1	20.4
	경기	8.5	10.8	13.1	11.2	11.8	10.5	13.7
	강원	8.9	7.7	3.8	18.7	10.6	13.1	6.9
	충북	7.5	8.2	13.0	10.0	15.1	13.0	16.6
	충남	15.4	16.2	13.4	15.1	13.7	18.2	19.4
	전북	19.9	19.2	22.7	19.9	21.5	26.3	25.8
	전남	19.0	19.4	16.5	16.2	20.3	20.5	21.6
	경북	16.6	22.7	18.2	20.4	20.0	19.6	16.2
	경남	10.5	7.0	5.1	7.0	7.0	8.0	4.9
제주	22.6	0.0	0.0	0.5	6.4	7.3	0.0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확인문항은 2013년부터 조사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3) 고용보험 미가입

- 서울지역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는 2019년 336천명으로 2010년 413천명보다 77천명 (18.6%)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31.7%로 2010년 39.2%보다 7.5%p 감소하였음.
- 전국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는 2019년 1,773천명으로 2010년 1,960천명보다 187천명 (9.5%)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30.9%로 2010년 38.6%보다 7.7%p 감소하였음.

[표 3-25]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 및 추이

		조사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천명)	전국	1,960	1,972	1,921	1,857	1,788	1,830	1,823	1,882	1,816	1,773
	서울	413	410	396	370	333	347	333	341	342	336
	부산	151	168	159	143	151	165	147	158	151	142
	대구	109	107	90	95	100	96	100	106	101	90
	인천	67	66	60	61	55	56	68	58	58	54
	광주	106	92	102	118	112	106	111	125	119	123
	대전	54	55	61	52	57	52	50	45	53	62
	울산	46	47	45	49	39	38	37	40	38	36
	세종						3	6	4	8	13
	경기	465	471	433	430	382	411	396	412	378	364
	강원	41	45	48	43	48	46	44	40	35	30
	충북	66	69	69	66	67	70	74	74	79	72
	충남	79	80	79	80	90	76	76	92	88	88
	전북	68	84	85	76	76	76	87	75	69	60
	전남	67	61	57	61	57	66	65	75	70	73
	경북	106	90	89	79	75	73	76	72	74	85
	경남	116	118	137	123	134	138	142	144	142	135
	제주	6	9	11	11	12	11	11	21	11	10
	비율 (%)	전국	38.6	38.4	37.0	35.8	35.3	34.3	33.3	33.3	31.7
서울		39.2	39.5	39.0	36.7	37.0	35.6	32.8	32.6	31.9	31.7
부산		39.3	42.0	38.1	36.0	36.2	37.5	34.1	36.0	34.4	33.2
대구		42.9	43.0	38.0	38.6	40.0	36.8	39.8	39.1	37.5	34.6
인천		39.2	38.8	36.6	38.4	36.7	37.3	41.2	35.6	35.2	31.8
광주		33.5	28.2	30.5	33.5	32.7	31.2	31.0	33.2	31.3	30.8
대전		41.5	47.4	48.4	41.9	46.0	38.0	38.8	35.4	39.6	43.4
울산		26.7	27.0	24.1	25.5	20.2	19.2	19.7	20.4	19.6	19.5
세종					0.0	0.0	25.0	35.3	17.4	25.0	37.1
경기		39.7	37.0	33.7	34.0	31.0	31.4	28.9	28.7	26.3	25.3
강원		40.2	44.6	44.9	38.7	42.1	38.0	37.6	36.4	30.7	25.6
충북		40.0	41.3	40.6	39.1	41.4	41.9	40.2	40.4	42.5	39.3
충남		40.7	40.4	40.5	37.4	41.3	34.5	35.0	40.7	37.3	35.9
전북		45.0	53.8	51.5	47.8	48.1	47.8	50.3	44.9	40.4	37.7
전남		42.7	42.4	39.6	42.4	41.6	42.3	38.5	42.4	38.9	39.9
경북		39.7	39.1	38.7	35.0	34.7	30.7	31.9	30.6	30.0	33.1
경남		31.9	32.2	35.4	31.4	32.6	33.0	34.0	33.0	32.8	31.4
제주		30.0	34.6	33.3	31.4	34.3	34.4	35.5	45.7	30.6	26.3

주1: 비율은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임.
 주2: 09표본 사용/09표본 횡단면 가중치(+ aweights적용) 사용/결측치제거.
 주3: 표본수 및 결측값 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수 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4장. 지자체 교육훈련 지원제도 현황 분석⁷⁾

1. 교육훈련 제도화 및 사업 현황

1) 교육훈련 제도화 현황 - 조례, 정책, 위원회

(1) 교육훈련 조례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 중 전국 교육훈련 유관 부서는 55개임. 교육훈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16.4%(9개), 미제정은 83.6%(46개) 부서였음. 그 외 교육훈련 조례 추진예정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2개, 부산광역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각 1개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조례가 제정된 비율은 전국 27.3%(15개)이며, 미제정 비율은 69.1%(38개)로 나타남. 직업훈련 조례 예정은 3.6%(2개)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추진예정임.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조례가 제정됨.

[표 4-1] 17개 광역시도 교육훈련 조례 현황(2021.6)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조례				직업훈련 조례			
		계	제정	미제정	추진예정	계	제정	미제정	추진예정
전국	계	55	9	46	0	55	15	38	2
	비율(%)	100.0	16.4	83.6	0.0	100.0	27.3	69.1	3.6
서울특별시	계	7	2	5	-	7	4	3	-
	비율(%)	100.0	28.6	71.4	-	100.0	57.1	42.9	-
부산광역시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인천광역시	계	2	1	1	-	2	2	0	-
	비율(%)	100.0	50.0	50.0	-	100.0	100.0	0.0	-
대구광역시	계	6	1	5	-	6	2	4	-
	비율(%)	100.0	16.7	83.3	-	100.0	33.3	66.7	-
광주광역시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대전광역시	계	2	1	1	-	2	1	1	-
	비율(%)	100.0	50.0	50.0	-	100.0	50.0	50.0	-
울산광역시	계	-	-	-	-	-	-	-	-

7) 4장의 1절은 17개 광역 지자체 교육훈련 현황 자료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한 것이며, 2절은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조례				직업훈련 조례			
		계	제정	미제정	추진예정	계	제정	미제정	추진예정
	비율(%)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4	0	4	-	4	0	4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경기도	계	7	0	7	-	7	0	7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강원도	계	-	-	-	-	-	-	-	-
	비율(%)	-	-	-	-	-	-	-	-
충청북도	계	1	0	1	-	1	0	1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충청남도	계	6	1	5	-	6	1	5	-
	비율(%)	100.0	16.7	83.3	-	100.0	16.7	83.3	-
전라북도	계	6	0	6	-	6	1	4	1
	비율(%)	100.0	0.0	100.0	-	100.0	16.7	66.7	16.7
전라남도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경상북도	계	1	0	1	-	1	0	0	1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0.0	100.0
경상남도	계	6	0	6	-	6	1	5	-
	비율(%)	100.0	0.0	100.0	-	100.0	16.7	83.3	-
제주특별자치도	계	4	0	4	-	4	0	4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자료: 정의당 의원주 의원실의 각 지자체 직업훈련 현황 요청 원자료 분석

(2) 교육훈련 정책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 중 직업훈련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전국 40.0%(22개), 수립되지 않은 곳은 60%(33개)임. 기본계획 수립 추진예정인 지자체는 없음.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제일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가 진행된 곳은 전국 30.9%(17개), 진행되지 않은 곳은 65.5%(36개)이며, 추진예정은 3.6%(2개)임.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충청남도, 인천시에서 직업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시행되었음. 세종시, 충청북도, 제주시는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진예정인 지자체는 서울시, 경상남도였음.

[표 4-2] 17개 광역시도 직업훈련 정책 현황(2021.6)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여부				직업훈련 실태조사 연구조사 여부			
		계	있음	없음	추진예정	계	있음	없음	추진예정
전국	계	55	22	33	0	55	17	36	2
	비율(%)	100.0	40.0	60.0	0.0	100.0	30.9	65.5	3.6
서울특별시	계	7	5	2	-	7	3	3	1
	비율(%)	100.0	71.4	28.6	-	100.0	42.9	42.9	14.3
부산광역시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인천광역시	계	2	1	1	-	2	2	0	-
	비율(%)	100.0	50.0	50.0	-	100.0	100.0	0.0	-
대구광역시	계	6	2	4	-	6	1	5	-
	비율(%)	100.0	33.3	66.7	-	100.0	16.7	83.3	-
광주광역시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대전광역시	계	2	1	1	-	2	1	1	-
	비율(%)	100.0	50.0	50.0	-	100.0	50.0	50.0	-
울산광역시	계	-	-	-	-	-	-	-	-
	비율(%)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4	0	4	-	4	0	4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경기도	계	7	6	1	-	7	2	5	-
	비율(%)	100.0	85.7	14.3	-	100.0	28.6	71.4	-
강원도	계	-	-	-	-	-	-	-	-
	비율(%)	-	-	-	-	-	-	-	-
충청북도	계	1	0	1	-	1	0	1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충청남도	계	6	3	3	-	6	3	3	-
	비율(%)	100.0	50.0	50.0	-	100.0	50.0	50.0	-
전라북도	계	6	1	5	-	6	1	5	-
	비율(%)	100.0	16.7	83.3	-	100.0	16.7	83.3	-
전라남도	계	1	1	0	-	1	1	0	-
	비율(%)	100.0	100.0	0.0	-	100.0	100.0	0.0	-
경상북도	계	1	0	1	-	1	0	1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경상남도	계	6	0	6	-	6	1	4	1
	비율(%)	100.0	0.0	100.0	-	100.0	16.7	66.7	16.7
제주특별자치도	계	4	0	4	-	4	0	4	-
	비율(%)	100.0	0.0	100.0	-	100.0	0.0	100.0	-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3) 교육훈련 위원회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의 위원회 인원 수는 총 190명임.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가 14.2%(2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13.2%(25명), 경기도 12.6%(24명), 광주 11.6%(22명), 서울시 9.5%(1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관련 심의자문 기구가 있는 곳은 전국 25.5%(14개), 없는 곳은 72.7%(40개)로 나타났으며, 설치예정인 곳은 경상남도 한 곳으로 나타남.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세종시, 경상북도에 직업훈련 관련 심의자문 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17개 광역시도 직업훈련 관련 위원회 현황(2021.6)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명)	직업훈련 관련 심의자문 기구			
			계	있음	없음	설치예정
전국	계	190	55	14	40	1
	비율(%)	100.0	100.0	25.5	72.7	1.8
서울특별시	계	18	7	1	6	-
	비율(%)	9.5	100.0	14.3	85.7	-
부산광역시	계	9	1	1	0	-
	비율(%)	4.7	100.0	100.0	0.0	-
인천광역시	계	5	2	1	1	-
	비율(%)	2.6	100.0	50.0	50.0	-
대구광역시	계	5	6	1	5	-
	비율(%)	2.6	100.0	16.7	83.3	-
광주광역시	계	22	1	1	0	-
	비율(%)	11.6	100.0	100.0	0.0	-
대전광역시	계	12	2	1	1	-
	비율(%)	6.3	100.0	50.0	50.0	-
울산광역시	계	-	-	-	-	-
	비율(%)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0	4	0	4	-
	비율(%)	0.0	100.0	0.0	100.0	-
경기도	계	24	7	1	6	-
	비율(%)	12.6	100.0	14.3	85.7	-
강원도	계	-	-	-	-	-
	비율(%)	-	-	-	-	-
충청북도	계	27	1	1	0	-
	비율(%)	14.2	100.0	100.0	0.0	-
충청남도	계	15	6	2	4	-
	비율(%)	7.9	100.0	33.3	66.7	-
전라북도	계	6	6	1	5	-
	비율(%)	3.2	100.0	16.7	83.3	-
전라남도	계	25	1	1	0	-
	비율(%)	13.2	100.0	100.0	0.0	-
경상북도	계	-	1	0	1	-
	비율(%)	-	100.0	0.0	100.0	-
경상남도	계	11	6	1	4	1
	비율(%)	5.8	100.0	16.7	66.7	-
제주특별자치도	계	11	4	1	3	-
	비율(%)	5.8	100.0	25.0	75.0	-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2) 지자체 교육훈련 정책, 프로그램 현황

(1) 조직 - 담당인원, 전문인력, 부서 현황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의 교육훈련 담당인원은 총 56명이며, 전문인력 채용인원은 1명으로 나타남.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담당인원은 서울시가 15명(26.8%), 경기도가 6명(10.7%), 경상남도가 4명(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인력 채용인원은 전라북도에서 1명인 것으로 나타남.
- 15개 광역시도별 부서 현황을 설치 현황 및 부서 영역으로 분석하였음. 설치 현황으로는 부서가 없는 경우 50.9%(28개), 전담팀으로 구성된 경우가 27.3%(15개), 독자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14.5%(8개), 전담인력이 배치된 경우가 7.3%(4개)로 나타남.
- 부서 영역은 총괄, 여성 전담 부서가 다수였고, 전국적으로 총괄부서 31.6%(18개), 여성 19.3%(11개), 고령 12.3%(7개), 평생교육 및 노동 각 10.5%(각 6개), 장애인 및 기타 부서 각 3.5%(각 2개)를 차지함. 광역시별 총괄, 여성 부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부서는 전반적으로 부서별 부재하거나 최대 1개 부서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4-4] 17개 광역시도별 담당인원, 전문인력 현황1(2021.6)

지방자치단체	담당인원 (명)	전문인력 채용인원 (명)	부서영역									
			계	총괄	여성	청년	고령	평생 교육	노동	장애인	기타	
전국	계	56	1	57	18	11	5	7	6	6	2	2
	비율(%)	100	100	100.0	31.6	19.3	8.8	12.3	10.5	10.5	3.5	3.5
서울특별시	계	15	0	7	2	1	0	0	0	0	2	2
	비율(%)	26.8	0.0	100.0	3.5	1.8	0.0	0.0	0.0	0.0	3.5	3.5
부산광역시	계	1	0	1	1	0	0	0	0	0	0	0
	비율(%)	1.8	0.0	100.0	1.8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계	5	0	2	1	1	0	0	0	0	0	0
	비율(%)	8.9	0.0	100.0	1.8	1.8	0.0	0.0	0.0	0.0	0.0	0.0
대구광역시	계	2	0	6	1	1	1	1	1	1	0	0
	비율(%)	3.6	0.0	100.0	1.8	1.8	1.8	1.8	1.8	1.8	0.0	0.0
광주광역시	계	5	0	1	1	0	0	0	0	0	0	0
	비율(%)	8.9	0.0	100.0	1.8	0.0	0.0	0.0	0.0	0.0	0.0	0.0
대전광역시	계	1	0	2	1	1	0	0	0	0	0	0
	비율(%)	1.8	0.0	100.0	1.8	1.8	0.0	0.0	0.0	0.0	0.0	0.0
울산광역시	계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1	0	6	1	1	1	1	1	1	0	0
	비율(%)	1.8	0.0	100.0	1.8	1.8	1.8	1.8	1.8	1.8	0.0	0.0
경기도	계	6	0	7	3	3	0	1	0	0	0	0

지방자치단체	비율(%)	담당인원 (명)	전문인력 채용인원 (명)	부서영역								
				계	총괄	여성	청년	고령	평생 교육	노동	장애인	기타
	비율(%)	10.7	0.0	100.0	5.3	5.3	0.0	1.8	0.0	0.0	0.0	0.0
강원도	계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충청북도	계	0	0	1	1	0	0	0	0	0	0	0
	비율(%)	0.0	0.0	100.0	1.8	0	0	0	0	0	0	0
충청남도	계	5	0	6	1	1	1	1	1	1	0	0
	비율(%)	8.9	0.0	100.0	1.8	1.8	1.8	1.8	1.8	1.8	0.0	0.0
전라북도	계	2	1	6	1	1	1	1	1	1	0	0
	비율(%)	3.6	100.0	100.0	1.8	1.8	1.8	1.8	1.8	1.8	0.0	0.0
전라남도	계	3	0	1	1	0	0	0	0	0	0	0
	비율(%)	5.4	0.0	100.0	1.8	0.0	0.0	0.0	0.0	0.0	0.0	0.0
경상북도	계	1	0	1	1	0	0	0	0	0	0	0
	비율(%)	1.8	0.0	100.0	1.8	0.0	0.0	0.0	0.0	0.0	0.0	0.0
경상남도	계	4	0	6	1	1	1	1	1	1	0	0
	비율(%)	7.1	0.0	100.0	1.8	1.8	1.8	1.8	1.8	1.8	0.0	0.0
제주특별자치도	계	5	0	4	1	0	0	1	1	1	0	0
	비율(%)	8.9	0.0	100.0	1.8	0.0	0.0	1.8	1.8	1.8	0.0	0.0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표 4-5] 17개 광역시도별 담당인원, 부서 현황2(2021.6)

지방자치단체	비율(%)	담당인원 (명)	전문인력 채용인원(명)	부서 설치 현황					
				계	없음	독자적	전담팀	전담인력	예정
전국	계	56	1	55	28	8	15	4	0
	비율(%)	100	100	100.0	50.9	14.5	27.3	7.3	0.0
서울특별시	계	15	0	7	3	-	2	2	-
	비율(%)	26.8	0.0	100.0	5.5	-	3.6	3.6	-
부산광역시	계	1	0	1	-	-	-	1	-
	비율(%)	1.8	0.0	100.0	-	-	-	1.8	-
인천광역시	계	5	0	2	-	-	2	-	-
	비율(%)	8.9	0.0	100.0	-	-	3.6	-	-
대구광역시	계	2	0	6	4	-	2	-	-
	비율(%)	3.6	0.0	100.0	7.3	-	3.6	-	-
광주광역시	계	5	0	1	1	-	-	-	-
	비율(%)	8.9	0.0	100.0	1.8	-	-	-	-
대전광역시	계	1	0	2	1	-	-	1	-
	비율(%)	1.8	0.0	100.0	1.8	-	-	1.8	-
울산광역시	계	-	-	-	-	-	-	-	-
	비율(%)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1	0	4	4	-	-	-	-
	비율(%)	1.8	0.0	100.0	7.3	-	-	-	-
경기도	계	6	0	7	1	4	2	-	-
	비율(%)	10.7	0.0	100.0	1.8	7.3	3.6	-	-
강원도	계	-	-	-	-	-	-	-	-
	비율(%)	-	-	-	-	-	-	-	-
충청북도	계	0	0	1	1	-	-	-	-
	비율(%)	0.0	0.0	100.0	1.8	-	-	-	-
충청남도	계	5	0	6	5	1	-	-	-
	비율(%)	8.9	0.0	100.0	9.1	1.8	-	-	-

지방자치단체		담당인원 (명)	전문인력 채용인원(명)	부서 설치 현황					
				계	없음	독자적	전담팀	전담인력	예정
전라북도	계	2	1	6	4	-	2	-	-
	비율(%)	3.6	100.0	100.0	7.3	-	3.6	-	-
전라남도	계	3	0	1	1	-	-	-	-
	비율(%)	5.4	0.0	100.0	1.8	-	-	-	-
경상북도	계	1	0	1	-	-	1	-	-
	비율(%)	1.8	0.0	100.0	-	-	1.8	-	-
경상남도	계	4	0	6	2	-	4	-	-
	비율(%)	7.1	0.0	100.0	3.6	-	7.3	-	-
제주특별자치도	계	5	0	4	1	3	-	-	-
	비율(%)	8.9	0.0	100.0	1.8	5.5	-	-	-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2) 교육훈련 사업 - 과업 수, 사업비, 기구/시설 수, 운영방식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의 교육훈련 과업 수, 평균 사업비, 기구 및 시설 수, 운영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광역 시도 전체 과업 수는 총 344개이며, 평균사업비는 11,423백만원으로 나타남. 기구 및 시설 또한 344개로 나타났음.
- 전국 교육훈련 기구 운영방식은 외부전담 및 조직보조금 형태가 30.2%(16개)를 차지하였으며, 민간 24.5%(13개), 산하 운영 20.8%(11개), 기타 13.2%(7개), 직영 9.4%(5개), 외부민간과의 MOU 체결이 1.9%(1개)로 나타남.
-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과업 수로는 부산광역시가 22.4%(77개)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시가 20.6%(71개), 경상남도가 16.3%(5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균 사업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168,000백만원, 86.5%).

[표 4-6] 17개 광역시도 과업 수, 사업비, 기구/시설 수(2021.6)

지방자치단체		과업 수	평균 사업비 (백만원)	기구/시설 수
전국	계	344	11423	344
	비율(%)	100	100	100
서울특별시	계	10	18652	10
	비율(%)	2.9	9.6	2.9
부산광역시	계	77	71	77
	비율(%)	22.4	0.0	22.4
인천광역시	계	40	356	40
	비율(%)	11.6	0.2	11.6
대구광역시	계	4	692	4
	비율(%)	1.2	0.4	1.2
광주광역시	계	1	4450	1
	비율(%)	0.3	2.3	0.3

지방자치단체		과업 수	평균 사업비 (백만원)	기구/시설 수
대전광역시	계	71	3	71
	비율(%)	20.6	0.0	20.6
울산광역시	계	-	-	-
	비율(%)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3	26	3
	비율(%)	0.9	0.0	0.9
경기도	계	12	1310	12
	비율(%)	3.5	0.7	3.5
강원도	계	-	-	-
	비율(%)	-	-	-
충청북도	계	0	0	0
	비율(%)	0.0	0.0	0.0
충청남도	계	30	28	30
	비율(%)	8.7	0.0	8.7
전라북도	계	18	71	18
	비율(%)	5.2	0.0	5.2
전라남도	계	21	255	21
	비율(%)	6.1	0.1	6.1
경상북도	계	1	168000	1
	비율(%)	0.3	86.5	0.3
경상남도	계	56	278	56
	비율(%)	16.3	0.1	16.3
제주특별자치도	계	0	0	0
	비율(%)	0.0	0.0	0.0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표 4-7] 17개 광역 시도 과업 수, 사업비, 기구/시설 수, 운영방식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					
		직영	산하	민간	외부전담, 조직보조급	외부민간MOU	기타
전국	계	5	11	13	16	1	7
	비율(%)	9.4	20.8	24.5	30.2	1.9	13.2
서울특별시	계	-	-	5	2	-	1
	비율(%)	-	-	38.5	12.5	-	-
부산광역시	계	-	-	-	1	-	-
	비율(%)	-	-	-	6.25	-	-
인천광역시	계	1	1	1	3	-	5
	비율(%)	20.0	9.1	7.7	18.8	-	71.4
대구광역시	계	1	-	-	2	-	-
	비율(%)	20.0	-	-	-	-	-
광주광역시	계	-	-	-	1	-	-
	비율(%)	-	-	-	6.25	-	-
대전광역시	계	-	-	1	-	-	-
	비율(%)	-	-	6.25	-	-	-
울산광역시	계	-	-	-	-	-	-
	비율(%)	-	-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	-	-	1	-	-
	비율(%)	-	-	-	6.25	-	-
경기도	계	-	5	-	1	-	-
	비율(%)	-	45.5	-	6.25	-	-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					
		직영	산하	민간	외부전담, 조직보조금	외부민간MOU	기타
강원도	계	-	-	-	-	-	-
	비율(%)	-	-	-	-	-	-
충청북도	계	-	-	-	-	-	-
	비율(%)	-	-	-	-	-	-
충청남도	계	1	1	3	-	-	-
	비율(%)	20	9.1	23.1	-	-	-
전라북도	계	1	1	-	3	-	-
	비율(%)	-	-	-	23.1	-	-
전라남도	계	1	1	1	1	1	-
	비율(%)	20	9.1	7.7	6.3	100.0	-
경상북도	계	-	-	-	-	-	1
	비율(%)	-	-	-	-	-	14.3
경상남도	계	-	2	1	1	-	-
	비율(%)	-	18.2	7.7	6.3	-	-
제주특별자치도	계	-	-	1	-	-	-
	비율(%)	-	-	7.7	-	-	-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3) 지자체 교육훈련 취약층 프로그램 현황

(1) 부문 대상 - 청년, 여성, 고령, 장애인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영프로그램은 전국 46.6%(87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대상은 25.0%(470개), 청년은 20.1%(378개), 고령은 8.3%(15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영프로그램은 서울시가 56.8%(500개), 경기도 22.1%(195개)를 차지하였음. 장애인 대상은 경기도 41.3%(194개), 서울시 29.8%(140개) 순으로 높았으며, 청년 대상은 경기도에서 55.0%(208개), 부산시에서 20.4%(77개)로 가장 높았음.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은 부산시 49.0%(77개), 경상남도 31.2%(49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 17개 광역시도별 취약층 프로그램 현황 - 청년, 여성, 고령, 장애인(2021.6)

지방자치단체		취약대상별 평균 운영프로그램 수(개)			
		청년	고령	여성	장애인
전국	계	378	157	877	470
	비율(%)	20.1	8.3	46.6	25.0
서울특별시	계	13	0	500	140
	비율(%)	3.4	0.0	56.8	29.8

지방자치단체		취약대상별 평균 운영프로그램 수(개)			
		청년	고령	여성	장애인
부산광역시	계	77	77	77	77
	비율(%)	20.4	49.0	8.7	16.4
인천광역시	계	2	2	39	2
	비율(%)	0.5	1.3	4.4	0.4
대구광역시	계	3	3	4	3
	비율(%)	0.8	1.9	0.5	0.6
광주광역시	계	0	0	0	0
	비율(%)	0.0	0.0	0.0	0.0
대전광역시	계	0	0	4	0
	비율(%)	0.0	0.0	0.5	0.0
울산광역시	계	-	-	-	-
	비율(%)	-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0	0	3	0
	비율(%)	0.0	0.0	0.3	0.0
경기도	계	208	18	195	194
	비율(%)	55.0	11.5	22.1	41.3
강원도	계	-	-	-	-
	비율(%)	-	-	-	-
충청북도	계	0	0	0	0
	비율(%)	0.0	0.0	0.0	0.0
충청남도	계	16	1	4	0
	비율(%)	4.2	0.6	0.5	0.0
전라북도	계	3	2	1	0
	비율(%)	0.8	1.3	0.1	0.0
전라남도	계	1	1	1	1
	비율(%)	0.3	0.6	0.1	0.2
경상북도	계	4	4	4	4
	비율(%)	1.1	2.5	0.5	0.9
경상남도	계	51	49	49	49
	비율(%)	13.5	31.2	5.6	10.4
제주특별자치도	계	0	0	0	0
	비율(%)	0.0	0.0	0.0	0.0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2) 고용 형태 - 비정규직, 특수고용, 미취업자

-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시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프로그램은 전국 75.1%(57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7.1%(132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7.8%(60개)를 차지하였음.
-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미취업 대상 프로그램은 경기도 36.8%(213개), 서울시 30.1%(174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대상 프로그램은 부산시 58.3%(77개), 경상남도 28.8%(38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대상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63.3%(38개), 충청남도 16.7%(10개), 제주도 6.7%(4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9] 17개 광역시도 고용형태별 프로그램 현황 - 비정규, 특수고용/프리랜서, 미취업자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별 평균 운영프로그램 수(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미취업자
전국	계	132	60	579
	비율(%)	17.1	7.8	75.1
서울특별시	계	0	0	174
	비율(%)	0.0	0.0	30.1
부산광역시	계	77	0	77
	비율(%)	58.3	0.0	13.3
인천광역시	계	3	3	39
	비율(%)	2.3	5.0	6.7
대구광역시	계	1	0	3
	비율(%)	0.8	0.0	0.5
광주광역시	계	0	0	0
	비율(%)	0.0	0.0	0.0
대전광역시	계	0	0	0
	비율(%)	0.0	0.0	0.0
울산광역시	계	-	-	-
	비율(%)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0	0	3
	비율(%)	0.0	0.0	0.5
경기도	계	0	0	213
	비율(%)	0.0	0.0	36.8
강원도	계	-	-	-
	비율(%)	-	-	-
충청북도	계	0	0	0
	비율(%)	0.0	0.0	0.0
충청남도	계	4	10	4
	비율(%)	3.0	16.7	0.7
전라북도	계	0	0	8
	비율(%)	0.0	0.0	1.4
전라남도	계	1	1	1
	비율(%)	0.8	1.7	0.2
경상북도	계	4	4	4
	비율(%)	3.0	6.7	0.7
경상남도	계	38	38	49
	비율(%)	28.8	63.3	8.5
제주특별자치도	계	4	4	4
	비율(%)	3.0	6.7	0.7

자료: 지자체별 직업훈련 현황 원자료 분석

2. 고용노동부 교육훈련 현황 - 전국민취업지원, 내일배움카드

1) 고용노동부 취업 및 교육훈련

- 노동시장의 이행기 고용과 소득 및 교육훈련이라는 적극적 정책은 고용안정성 만이 아니라, 취업역량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의 강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실제로 이행기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model)은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함.

국민내일배움카드

HRD-Net | 훈련과정 | 지원제도 | 일자리·직업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기업 훈련과정 | 유

K-디지털 트레이닝 | 일학습병행과정

K-디지털 크레딧 | 정부부처별 훈련과정

[BIM]건축설계 및 실내건축... | AutoCAD 활용 | [디지털디자인]영상물 활용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 연천 마우송구 | 서울 서초구

100% | ★★★★★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이용약관

사업소개 | 자기진단 | 운영기관 | 일임마당 | 마이페이지

취업유형: 취업유형1 | 취업유형2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통합지원형 | 직업훈련형 | 일경험지원형 | 취업알선형 | 해외취업형 | 창업/창업형

자료 :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100L.do>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EmpSptByTpView.do>

[표 4-1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내용

영역	내용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과정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전국민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지원내용	가. 훈련비 지원: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00만원 추가지급: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60% 이상 * 200만원 추가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나.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 수당 시 월 최대 11만 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실업급여 수급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비지급

자료: 노동부 정책자료 「직업능력개발」 항목(<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 대표적으로 현재 실업자 및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 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는 활용성이나 조건 및 프로그램 문제점은 물론 취약층 적용 대상의 포괄성이 낮은 점도 지적되고 있음. 전국민취업지원제도 형태로 운영되는 ‘취성패’ 또한 운영 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위탁의 교육훈련시설(**센터)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한계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지원 현황

-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성격의 정책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271,330명(여성 150,970명)이 참여했음.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중 2유형의 저소득층은 6.3%(17,266명), 중장년은 2.1%(5,760명) 수준에 불과했음([표 4-11]).

[표 4-11]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적용 상황(2020년, 단위: 명)

		계	1유형	2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계		271,330	221,734	17,266	2,675	23,895	5,760
성별	남성	120,360	100,641	7,077	853	10,374	1,415
	여성	150,970	121,093	10,189	1,822	13,521	4,345
연령별	10대	3,751	2,779	428	71	473	-
	20대	129,948	102,539	6,375	360	20,670	4
	30대	50,428	43,092	2,877	453	2,749	1,257
	40대	35,854	30,695	2,879	579	3	1,698
	50대	32,142	27,109	2,714	642	-	1,677
	60대 이상	19,207	15,520	1,993	570	-	1,124

주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한 형태임. 1유형은 선발형(중위소득 50%~120% 이하 & 재산 4억이하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과 심사요건형(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4억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구분되고 2유형은 저소득층(중위소득 50%~60%), 청년(18세~34세 상관없이 참여 가능),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60~100%)으로 구분됨.

자료 :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실 자료 필자 재구성(2021.10,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이하 <표> 출처 동일).

- 서울지역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50,722명(여성 27,726명)이 참여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중 2유형의 저소득층은 7.8%(3,999명), 중장년은 1.5%(797명)였음([표 4-12]).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참여 대상이 많은 상황이나 50대 이상은 18.9%(51,349명) 정도이고, 40대는 13.2%(35,854

명)에 불과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5개 취약 계층별 지원 참여자 규모(2,675명)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이나 특수고용노동자(498명), 건설일용직(72명) 등 취약노동자 규모도 적고 청년 일자리 증가 영역인 프리랜서나 청년창업가 대상 포괄성도 낮음.⁸⁾

- 서울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은 50대 이상은 18.9%(6,162명)이고 40대는 12.1%(4,978명)였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5개 취약 계층별 지원 참여자 규모(476명)이었고, 특수고용노동자(115명), 건설일용직(11명) 수준이었음.

[표 4-12]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서울지역** 적용 상황(2020년, 단위: 명)

		계	1유형	2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서울	계	50,722	41,074	3,999	476	4,376	797
	남성	22,996	18,860	1,763	173	1,951	249
	여성	27,726	22,214	2,236	303	2,425	548
서울	10대	515	369	75	6	65	-
	20대	26,091	20,597	1,648	79	3,764	3
	30대	10,427	8,968	674	91	547	147
	40대	5,886	4,978	607	83	-	218
	50대	5,043	4,079	610	106	-	248
	60대 이상	2,760	2,083	385	111	-	181

[표 4-13]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상황 - 15개 취약 계층별(2020년, 단위: 명)

		계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종사자
계		2,675	5	2	277	275	-	80	108	64	284	498	72	1	63	213	720	13
성별	남성	853	1	-	129	2	-	33	50	-	114	129	63	1	8	110	209	4
	여성	1,822	4	2	148	273	-	47	58	64	170	369	9	-	55	103	511	9
연령	10대	71	-	-	-	-	-	68	2	-	-	-	-	-	1	-	-	-
	20대	360	-	-	26	36	-	12	91	1	39	65	16	-	13	-	54	7
	30대	453	2	1	62	114	-	-	15	9	24	87	4	-	16	1	117	1
	40대	579	1	-	71	83	-	-	-	33	62	125	15	-	25	1	161	2
	50대	642	1	1	74	37	-	-	-	17	77	153	30	1	7	1	240	3
	60대이상	570	1	-	44	5	-	-	-	4	82	68	7	-	1	210	148	-

8) 프리랜서 다수는 정규 교과과정 이수 필요(55.1%)나 민간 사설 교육과정 이수(41.8%) 필요성을 제기 했고,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31.3%는 국가·민간 자격증이 필요(국가공인 자격증 17.7%, 민간자격증 13.6%)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바 있음(김종진,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 4-1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지역 적용 상황 - 15개 취약 계층별(2020년, 단위: 명)

	계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 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종사자
서울 전체	476	3	1	54	54	-	9	17	6	56	115	11	-	10	47	91	2
성별	남성	173	-	-	32	-	3	10	-	20	45	11	-	1	18	32	1
	여성	303	3	1	22	54	6	7	6	36	70	-	-	9	29	59	1
연령	10대	6	-	-	-	-	5	-	-	-	-	-	-	1	-	-	-
	20대	79	-	-	5	8	4	15	-	7	22	6	-	2	-	9	1
	30대	91	1	-	14	23	-	2	1	6	22	-	-	3	1	18	-
	40대	83	1	-	7	16	-	-	3	10	25	2	-	3	-	15	1
	50대	106	1	1	15	7	-	-	2	20	26	3	-	1	-	30	-
	60대이상	111	-	-	13	-	-	-	-	13	20	-	-	-	46	19	-

○ 둘째,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자는 2020년 기준 718,113명(21년 상반기 500,188명)이었고, 여성이 63.5%(456,083명)를 차지했고, 10대와 20대 청년층이 37.9%(272,272명)를 차지했음. 반면에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23.5%(169,159명)였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은 7%(50,937명)에 불과했음. 서울지역은 172,134명(21년 상반기 117,505명)이었고, 여성이 65.8%(113,416명)였고, 10대와 20대 청년층이 37.4%(64,539명), 50대 이상 중고령층(20.2%, 34,898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6.3%(10,859명)였음.

○ 일반 직종별 지원(154,228명) 제외한 유형별 현황은 일반고 특화 훈련 7,110명, 기업맞춤형 931명에 불과했음. 특히 정부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1,345명)이나 디지털 신기술 K-Digital(1,464명)은 0.03%(2,809명) 수준에 불과했고, 기존 국가기간산업직종(고용정책기본법)이 8.9%(64,085명)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지역의 일반고 특화 훈련은 528명, 기업맞춤형 170명,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403명, 디지털 신기술 K-Digital 489명이었고, 기존 국가기간산업 직종은 14,650명이었음.

[표 4-15]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상황- 유형별(2020년, 단위: 명)

	국민내일배움카드(계-⑤제외)	① 일반 직종	② 국가 기간 산업 직종	③ 과정 평가형 훈련	④ 기업맞춤형 훈련	⑤ 스마트혼합 훈련	⑥ 일반고특화 훈련	⑦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훈련	⑧ 디지털 신기술(K-Digital) 훈련	⑨ 플랫폼 종사자 훈련	⑩ 찾아 가는 직업 훈련	
전체	718,113	634,347	64,085	8,831	931	111,734	7,110	1,345	1,464	-	-	
성별	남성	262,030	208,303	42,312	4,794	721	37,260	3,990	940	970	-	-
	여성	456,083	426,044	21,773	4,037	210	74,474	3,120	405	494	-	-
연령별	19세	16,411	7,221	1,703	352	16	1,525	7,104	7	8	-	-

	국민내일 배움카드 (계-⑤제외)	① 일반 직종	② 국가 기간 산업 직종	③ 과정 평가형 훈련	④ 기업맞 춤형 훈련	⑤ 스마트혼 합 훈련	⑥ 일반고특 화 훈련	⑦ 4차 산업 혁명 인력 양성 훈련	⑧ 디지털 신기술(K -Digital) 훈련	⑨ 플랫폼 종사자 훈련	⑩ 찾아 가는 직업 훈련
이하 20 ~29세	255,861	204,888	42,981	4,982	711	35,465	6	1,057	1,236	-	-
30 ~39세	142,694	131,217	9,358	1,561	132	23,165	-	236	190	-	-
40 ~49세	133,988	129,177	3,721	986	48	22,232	-	35	21	-	-
50 ~59세	118,222	114,029	3,545	615	14	20,360	-	10	9	-	-
60세 이상	50,937	47,815	2,777	335	10	8,987	-	-	-	-	-

주: 내일배움카드 플랫폼종사자 등은 21년 추가 계정 항목.

[표 4-16]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울지역** 적용 상황- 유형별(2020년, 단위: 명)

	국민내일 배움카드 (계-⑤제 외)	① 일반 직종	② 국가 기간 산업 직종	③ 과정 평가형 훈련	④ 기업맞춤 형 훈련	⑤ 스마트혼 합 훈련	⑥ 일반고특 화 훈련	⑦ 4차 산업 혁명 인력 양성 훈련	⑧ 디지털 신기술(K -Digital) 훈련	⑨ 플랫폼 종사자 훈련	⑩ 찾아 가는 직업 훈련	
서울지역	172,134	154,228	14,650	1,666	170	26,978	528	403	489	-	-	
성별	남성	58,718	47,909	8,914	878	117	7,770	336	261	303	-	-
	여성	113,416	106,319	5,736	788	53	19,208	192	142	186	-	-
연령별	19세 이하	2,039	1,194	272	39	3	225	528	1	2	-	-
	20 ~29세	64,539	51,747	10,901	1,006	141	8,851	-	322	422	-	-
	30 ~39세	41,471	38,695	2,307	321	21	6,872	-	68	59	-	-
	40 ~49세	29,187	28,498	514	157	5	4,930	-	9	4	-	-
	50 ~59세	24,039	23,558	375	101	-	4,164	-	3	2	-	-
	60세 이상	10,859	10,536	281	42	-	1,936	-	-	-	-	-

자료 :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실 자료 필자 재구성(2021.10, 원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5장.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와 인식 및 수요도 조사

1.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이하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는 서울시민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실태와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방향 모색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행됨.
 - 조사는 만19세-만60세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 간 진행되었음. 자료 수집 방식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표본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층화 할당했음.
- 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경제활동 상태, △일터(직장) 및 업무 특성, △직업 능력향상 교육 및 훈련 경험, △직업 및 교육훈련 관련 전망과 의견 △교육훈련 수요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평균 연령은 39.9세이고 여성 343명(49%, 평균 연령 39.9세), 남성 357명(51%, 평균 연령 40세)임. 연령대는 만45세-만54세(25.3%) > 만34세-만44세(23.9%) > 만26세-만34세(23.3%) 등 순임. 만19세-만34세는 청년은 36.6%이고, 만55세 이상은 14.3%로 나타났음.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연령대, 평균 연령

	빈도 (명)	연령대					평균 연령
		만19세- 만25세	만26세- 만34세	만35세- 만44세	만45세- 만54세	만55세 이상	
여성	343	13.4%	23.0%	24.2%	25.4%	14.0%	39.9
남성	357	13.2%	23.5%	23.5%	25.2%	14.6%	40.0
소계	700	13.3%	23.3%	23.9%	25.3%	14.3%	39.9

- 학력은 대학 졸(58.3%)이 절반 이상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15.6%) > 전문대 졸업(14.6%) > 대학원 졸업(11.6%) 순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 졸업(72.9%)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비율이 낮고 대졸 및 대학원 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학력

	빈도 (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여성	343	16.9%	18.7%	55.1%	9.3%
남성	357	14.3%	10.6%	61.3%	13.7%
전체	700	15.6%	14.6%	58.3%	11.6%

- 응답자 중 약 절반(51.3%)이 기혼이고, 미혼·비혼은 48.7%임. 자녀 있음은 43.7%, 자녀 없음은 56.3%로 응답자 10명 중 5~6명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거주지 현황은 [표 5-4]와 같음.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혼인여부, 자녀유무

	혼인여부		자녀 유무	
	미혼·비혼	기혼	있음	없음
여성	47.8%	52.2%	43.4%	56.6%
남성	49.6%	50.4%	44.0%	56.0%
전체	48.7%	51.3%	43.7%	56.3%

[표 5-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거주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강북구	15	2.1%	중구	8	1.1%
광진구	28	4.0%	강남구	26	3.7%
노원구	47	6.7%	강동구	39	5.6%
도봉구	20	2.9%	서초구	31	4.4%
동대문구	20	2.9%	송파구	43	6.1%
성동구	18	2.6%	강서구	33	4.7%
성북구	30	4.3%	관악구	42	6.0%
종량구	22	3.1%	구로구	26	3.7%
마포구	32	4.6%	금천구	23	3.3%
서대문구	23	3.3%	동작구	37	5.3%
은평구	36	5.1%	양천구	39	5.6%
용산구	15	2.1%	영등포구	34	4.9%
종로구	13	1.9%	전체	700	100.0%

- 응답자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이 558명(79.7%), 비경제활동은 142명(20.3%)임. 경제 활동 중에서는 정규직(359명, 51.3%)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기간제·시간제·파견 용역, 하청·일용직 등 비정규직(79명, 11.3%) > 특고·프리랜서(58명, 8.2%) > 무기 계약직(34명, 4.9%) > 고용원 있는 자영인(14명, 2%) > 실업자(13명, 1.9%) 순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이 56.2%로, 고용이 안정된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노동/주부(63명, 9%) > 학생(49명, 7%) > 취업준비(22명, 3.1%) 등 순으로 나타났음.

[표 5-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명)	비중 (%)			
정규직		359	51.3%	학생	49	7.0%
무기계약직		34	4.9%	가사노동/주부	63	9.0%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41	5.9%	취업준비	22	3.1%
	시간제	31	4.4%	정규 교육기관 등 교육과정생	5	.7%
	파견용역, 하청	2	0.3%	기타	3	.4%
	일용직	5	0.7%	전체	142	20.3%
특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8	1.1%			
	1인 자영업자	22	3.1%			
	프리랜서	28	4.0%			
고용원 있는 자영인		14	2.0%			
무급가족종사자		1	0.1%			
실업자		13	1.9%			
전체		558	79.7%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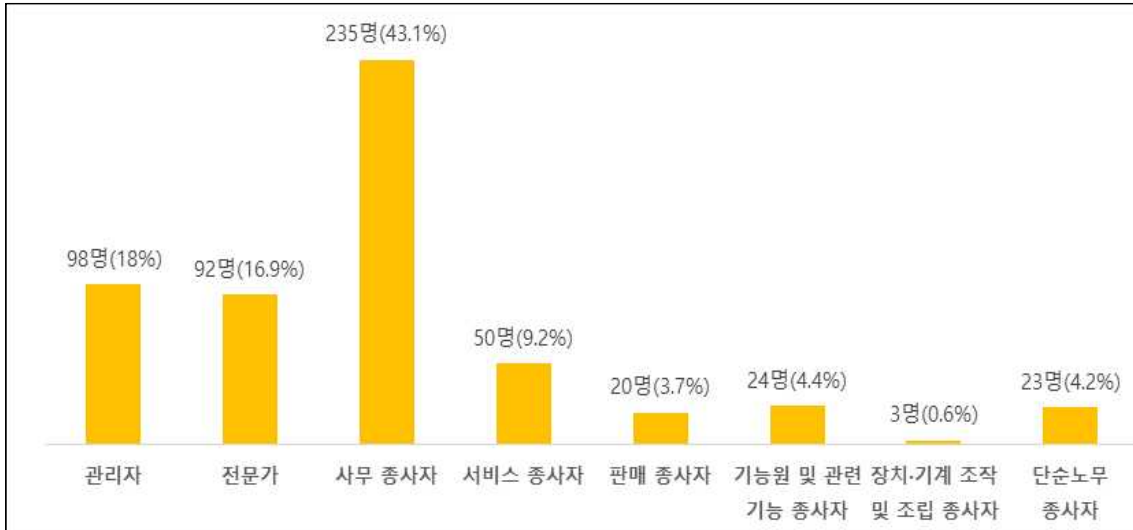
1) 직장 및 일터 특성

- 종사 산업은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업(26.4%) > 도소매·운수·정보통신업 등 유통서비스업(20.6%) > 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등 생산자서비스업(18.2%) > 제조업(13.6%) > 숙박음식점업·예술스포츠여가 등 개인서비스업(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설문조사 종사 산업

	빈도 (명)	비율 (%)
제조업	74	1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	1.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0.4
건설업	39	7.2
유통서비스업	112	20.6
도매 및 소매업	58	10.6
운수 및 창고업	9	1.7
정보통신업	45	8.3
개인서비스업	69	12.7
숙박 및 음식점업	18	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	2.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	0.6
생산자서비스업	99	18.2
금융 및 보험업	31	5.7
부동산업	10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	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	2.6
사회서비스업	144	26.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	5.1
교육 서비스업	69	1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	8.1
국제 및 외국기관	3	0.6
합계	545	100

[그림 5-1] 주된 일자리 직업



○ 주된 일자리 직업은 사무종사자(235명, 43.1%) > 관리자(98명, 18%) > 전문가(92명, 16.9%) > 서비스종사자(50명, 9.2%)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24명, 4.4%) > 단순노무종사자(23명, 4.2%) > 판매종사자(20명, 3.7%) 등, 사무종사자 및 전문가·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임.

○ 현재 일자리 평균 근속은 7.7년차이고, 2년차-4년차(27.3%) > 5년차-7년차(17.6%) 등 순임. 남성(8.4년차)이 여성(6.9년차)에 비해 근속기간이 길고, 비정규직(3년차)보다 정규직(8.2년차) 근속기간이 길며, 정규직보다 특고·프리랜서 근속기간(9.7년차)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현재 일자리 근속

	빈도 (명)	근속						평균 근속 (년차)	
		1년차	2년차-4년차	5년차-7년차	8년차-10년차	11년차-15년차	16년차 이상		
성별	여성	241	17.4%	32.8%	17.4%	11.2%	10.0%	11.2%	6.9
	남성	304	17.8%	23.0%	18.1%	11.5%	12.8%	16.8%	8.4
고용 형태	정규직	393	12.5%	27.2%	19.8%	12.2%	13.5%	14.8%	8.2
	비정규직	79	46.8%	31.6%	15.2%	3.8%	0.0%	2.5%	3.0
	특고·프리랜서	58	17.2%	24.1%	8.6%	15.5%	10.3%	24.1%	9.7
산업	제조업	82	11.0%	23.2%	18.3%	19.5%	12.2%	15.9%	8.6
	건설업	39	10.3%	28.2%	23.1%	7.7%	15.4%	15.4%	8.6
	생산자서비스업	99	22.2%	28.3%	17.2%	11.1%	11.1%	10.1%	6.6
	유통서비스업	112	19.6%	25.0%	17.0%	14.3%	11.6%	12.5%	7.6
	개인서비스업	69	23.2%	23.2%	21.7%	7.2%	10.1%	14.5%	7.5
	사회서비스업	144	16.0%	32.6%	15.3%	7.6%	11.1%	17.4%	8.0
전체	545	17.6%	27.3%	17.8%	11.4%	11.6%	14.3%	7.7	

- 평균 경력은 11.6년차로, 평균 근속(7.7년차) 보다 약 3.9년 긴 것으로 나타났음. 경력 역시 여성(9.9년차)에 비해 남성(13년)이 길며, 정규직(12.3년)과 특고·프리랜서(12.4년)에 비해 비정규직(7년) 경력이 약 5년 짧음. 건설업(14.2년)과 제조업(13.4년)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

[표 5-8] 총 일자리 경력

	빈도 (명)	경력						평균 경력 (년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	11년차- 15년차	16년차 이상		
성별	여성	241	10.4%	16.6%	20.3%	17.8%	14.9%	19.9%	9.9
	남성	304	7.9%	16.1%	16.4%	9.9%	15.8%	33.9%	13.0
고용 형태	정규직	393	5.3%	14.5%	19.8%	14.0%	16.5%	29.8%	12.3
	비정규직	79	27.8%	25.3%	17.7%	8.9%	8.9%	11.4%	7.0
	특고·프리랜서	58	10.3%	19.0%	8.6%	13.8%	15.5%	32.8%	12.4
산업	제조업	82	3.7%	12.2%	18.3%	18.3%	12.2%	35.4%	13.4
	건설업	39	2.6%	12.8%	17.9%	7.7%	20.5%	38.5%	14.2
	생산자서비스업	99	9.1%	19.2%	15.2%	13.1%	20.2%	23.2%	11.4
	유통서비스업	112	14.3%	12.5%	18.8%	17.9%	10.7%	25.9%	11.0
	개인서비스업	69	8.7%	23.2%	18.8%	7.2%	17.4%	24.6%	10.7
	사회서비스업	144	9.7%	17.4%	19.4%	11.8%	15.3%	26.4%	11.0
	전체	545	9.0%	16.3%	18.2%	13.4%	15.4%	27.7%	11.6

- 지난 3개월 주된 일 통한 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9.1%) > 500만원 이상(16.9%) >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17.6%) 등 순임. 300만원 이상(47%)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됨.
- 임금 구간을 살펴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고, 비정규직은 100만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25.3%) 비율이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업은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큼.

[표 5-9] 지난 3개월 주된 일 통한 평균 임금

	빈도 (명)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성별	여성	241	8.3%	9.1%	18.3%	22.0%	15.8%	14.1%
	남성	304	2.6%	2.3%	5.6%	14.1%	12.2%	23.0%	15.5%	24.7%
고용 형태	정규직	393	0.5%	1.8%	8.4%	19.3%	14.2%	22.1%	13.2%	20.4%
	비정규직	79	25.3%	15.2%	21.5%	11.4%	12.7%	8.9%	1.3%	3.8%
	특고·프리랜서	58	8.6%	15.5%	19.0%	19.0%	13.8%	10.3%	8.6%	5.2%
산업	제조업	82	1.2%	2.4%	3.7%	13.4%	18.3%	25.6%	14.6%	20.7%
	건설업	39	2.6%	0.0%	2.6%	12.8%	12.8%	35.9%	7.7%	25.6%
	생산자서비스업	99	0.0%	6.1%	14.1%	9.1%	14.1%	18.2%	14.1%	24.2%
	유통서비스업	112	5.4%	1.8%	10.7%	19.6%	15.2%	20.5%	12.5%	14.3%
	개인서비스업	69	13.0%	11.6%	14.5%	24.6%	7.2%	13.0%	2.9%	13.0%
	사회서비스업	144	7.6%	7.6%	14.6%	22.2%	13.2%	13.2%	10.4%	11.1%
	전체	545	5.1%	5.3%	11.2%	17.6%	13.8%	19.1%	11.0%	16.9%

- 사업장(일터)은 공공부문 11.4%, 민간부문 88.6%이고 민간부문 30-300인 미만 사업장 (26.4%) >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22.8%) > 민간부문 5-30인 미만 사업장 (22.4%) > 민간부문 5인 미만 사업장(17.1%) 순임.
- 전국사업체조사(2019)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26.6%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14.5%임(통계청, 2020). 따라서 이 조사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고, 5인 미만 종사자 수는 적음.

[표 5-10] 사업장(일터) 속성

		빈도 (명)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부문 30~300인 미만 사업장	민간부문 5~30인 미만 사업장	민간부문 5인 미만 사업장
성별	여성	241	12.4%	19.5%	27.8%	23.2%	17.0%
	남성	304	10.5%	25.3%	25.3%	21.7%	17.1%
고용 형태	정규직	393	12.2%	26.7%	30.3%	20.9%	9.9%
	비정규직	79	16.5%	16.5%	22.8%	31.6%	12.7%
	특고·프리랜서	58	1.7%	8.6%	12.1%	19.0%	58.6%
산업	제조업	82	2.4%	31.7%	30.5%	23.2%	12.2%
	건설업	39	5.1%	30.8%	23.1%	33.3%	7.7%
	생산자서비스업	99	2.0%	30.3%	30.3%	21.2%	16.2%
	유통서비스업	112	1.8%	22.3%	35.7%	16.1%	24.1%
	개인서비스업	69	7.2%	14.5%	15.9%	34.8%	27.5%
	사회서비스업	144	34.0%	14.6%	20.1%	18.8%	12.5%
전체		545	11.4%	22.8%	26.4%	22.4%	17.1%

- 노동조합 가입율은 11%이고, 노동조합이 없거나(73.2%)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7.9%)가 다수임. 남성(12.5%)이 여성(9.1%)에 비해 노조 가입률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업(17.9%)과 사회서비스업(15.3%) 노조 가입률이 높은 편임. 개인서비스업(7.2%)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5-11] 노동조합 가입 여부

		빈도 (명)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했음
성별	여성	241	74.7%	8.7%	7.5%	9.1%
	남성	304	72.0%	7.2%	8.2%	12.5%
고용 형태	정규직	393	66.7%	8.9%	9.7%	14.8%
	비정규직	79	82.3%	10.1%	6.3%	1.3%
	특고·프리랜서	58	98.3%	0.0%	0.0%	1.7%
산업	제조업	82	72.0%	14.6%	7.3%	6.1%
	건설업	39	64.1%	10.3%	7.7%	17.9%
	생산자서비스업	99	75.8%	6.1%	8.1%	10.1%
	유통서비스업	112	78.6%	7.1%	4.5%	9.8%
	개인서비스업	69	91.3%	0.0%	1.4%	7.2%
	사회서비스업	144	61.8%	9.0%	13.9%	15.3%
전체		545	73.2%	7.9%	7.9%	11.0%

- 현재 일자리 습득 지식·기술이 같은 직종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 유용성을 물어봤을 때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이 유용(84.4%)하다고 응답했음. 단, 비정규직(29.1%), 사회서비스업(21.6%), 서비스·판매종사자(2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27.6%)은 일자리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음.

[표 5-12] 현재 일자리 습득 지식·기술 유용성 인식

		빈도 (명)	현 직장에서 와 거의 똑같이 유용	부분적으 로만 유용	거의 쓸모가 없음	특별한 기술, 지식 습득 가능 일자리 아님	유용함*	유용하지 않음**
성별	여성	241	44.8%	38.2%	9.5%	7.5%	83.0%	17.0%
	남성	304	46.1%	39.5%	11.5%	3.0%	85.6%	14.5%
고용 형태	정규직	393	46.3%	40.5%	10.4%	2.8%	86.8%	13.2%
	비정규직	79	41.8%	29.1%	13.9%	15.2%	70.9%	29.1%
	특고·프리랜서	58	41.4%	43.1%	8.6%	6.9%	84.5%	15.5%
산업	제조업	82	50.0%	37.8%	7.3%	4.9%	87.8%	12.2%
	건설업	39	48.7%	43.6%	5.1%	2.6%	92.3%	7.7%
	생산자서비스업	99	47.5%	41.4%	9.1%	2.0%	88.9%	11.1%
	유통서비스업	112	38.4%	44.6%	8.9%	8.0%	83.0%	16.9%
	개인서비스업	69	49.3%	34.8%	10.1%	5.8%	84.1%	15.9%
	사회서비스업	144	44.4%	34.0%	16.7%	4.9%	78.4%	21.6%
직업	관리자·전문가	190	57.9%	32.6%	7.9%	1.6%	90.5%	9.5%
	사무종사자	235	37.9%	46.4%	11.9%	3.8%	84.3%	15.7%
	서비스·판매종사자	70	38.6%	38.6%	12.9%	10.0%	77.2%	2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44.7%	27.7%	10.6%	17.0%	72.4%	27.6%
전체		545	45.5%	38.9%	10.6%	5.0%	84.4%	15.6%

* 유용함: 현 직장에서와 거의 똑같이 유용+부분적으로만 유용

** 유용하지 않음: 거의 쓸모가 없음 + 특별한 기술, 지식 습득 가능 일자리 아님

2)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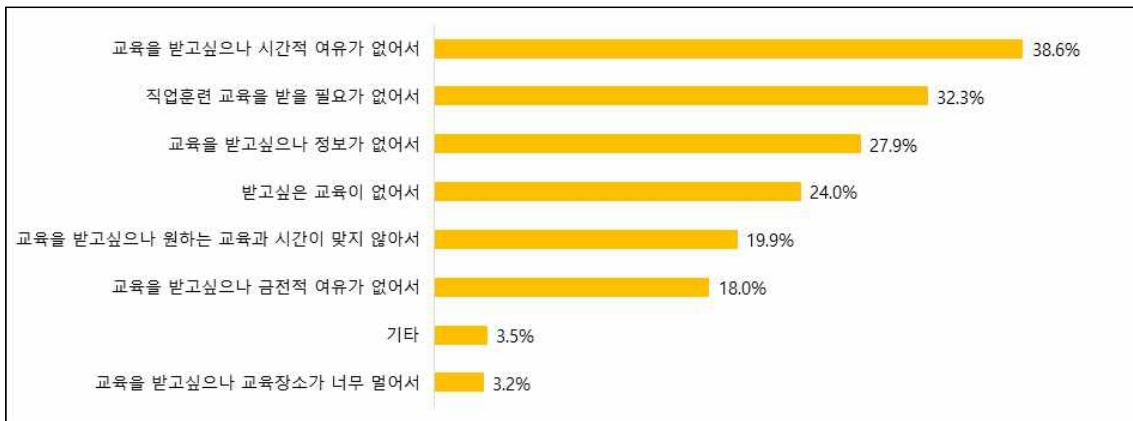
- 지난 3년 취·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경험은 “받은 적 있거나 받고 있음”이 38.1%이고 “받은 적 없음”이 61.9%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만 19세-25세(미경험률 64.5%)의 경우 교육훈련 경험률이 낮은 것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훈련 경험률이 낮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교육훈련 경험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가사노동/주부는 교육훈련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음. 개인서비스업(71%)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교육훈련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 5-13] 지난 3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빈도 (명)	받아본 경험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받아본 적이 없다
성별	여성	343	29.4%	7.6%	63.0%
	남성	357	32.5%	6.7%	60.8%
연령대	만19세-만25세	93	28.0%	7.5%	64.5%
	만26세-만34세	163	38.0%	11.0%	50.9%
	만35세-만44세	167	31.1%	10.8%	58.1%
	만45세-만54세	177	26.0%	2.3%	71.8%
	만55세 이상	100	31.0%	3.0%	66.0%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393	37.2%	6.4%	56.5%
	비정규직	79	27.8%	6.3%	65.8%
	특고·프리랜서	58	32.8%	8.6%	58.6%
	실업자, 취준·학생	89	16.9%	15.7%	67.4%
	가사노동/주부	63	17.5%	1.6%	81.0%
산업	제조업	74	32.4%	2.7%	64.9%
	건설업	39	41.0%	2.6%	56.4%
	생산자서비스업	99	30.3%	9.1%	60.6%
	유통서비스업	112	42.9%	3.6%	53.6%
	개인서비스업	69	23.2%	5.8%	71.0%
	사회서비스업	144	38.2%	9.7%	52.1%
전체		700	31.0%	7.1%	61.9%

- 교육훈련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봤을 때, “받고 싶으나 시간 여유가 없어서(38.6%)” >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32.3%)” > “교육 받고싶으나 정보 없어서(27.9%)” > “받고싶은 교육 없어서(24%)” 등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2] 교육받지 못한 주된 이유 (1순위+2순위)



- 성별·연령대·경제활동상태 등 집단별로 교육받지 못한 이유(1순위)를 확인해보면, 교육 훈련을 받고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55%)가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령대가 높을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과 특고·프리랜서s,s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서” 비율이 높음.
 - 정규직은 “교육을 받고 싶으나 시간 여유가 없어서(31.1%)” 비율이 비교적 높음. 교육경험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집단인 가사노동/주부의 경우 “교육 받고싶으나 정보가 없어서 (29.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14] 교육받지 못한 주된 이유 (1순위)

		빈도 (명)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받고 싶은 교육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정보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원하는 교육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교육장 소 너무 멀어서	기타
성별	여성	216	23.1%	13.0%	27.3%	9.3%	16.7%	7.4%	0.5%	2.8%
	남성	217	29.5%	18.9%	20.3%	6.9%	16.1%	4.6%	0.9%	2.8%
연령 대	만19세-만25세	60	25.0%	20.0%	11.7%	5.0%	28.3%	3.3%	1.7%	5.0%
	만26세-만34세	83	19.3%	21.7%	30.1%	12.0%	15.7%	0.0%	0.0%	1.2%
	만35세-만44세	97	20.6%	13.4%	25.8%	8.2%	17.5%	12.4%	1.0%	1.0%
	만45세-만54세	127	32.3%	15.7%	22.8%	9.4%	10.2%	6.3%	0.8%	2.4%
	만55세 이상	66	33.3%	9.1%	25.8%	3.0%	16.7%	6.1%	0.0%	6.1%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222	27.9%	13.5%	31.1%	6.8%	11.7%	6.8%	0.5%	1.8%
	비정규직	52	32.7%	23.1%	15.4%	3.8%	17.3%	7.7%	0.0%	0.0%
	특고·프리랜서	34	35.3%	23.5%	17.6%	8.8%	11.8%	0.0%	0.0%	2.9%
	실업자, 취준·학생	60	20.0%	20.0%	11.7%	15.0%	25.0%	1.7%	1.7%	5.0%
	가사노동/주부	51	13.7%	11.8%	19.6%	11.8%	29.4%	5.9%	2.0%	5.9%
산업	제조업	48	33.3%	12.5%	37.5%	4.2%	4.2%	2.1%	0.0%	6.3%
	건설업	22	22.7%	13.6%	31.8%	4.5%	27.3%	0.0%	0.0%	0.0%
	생산자서비스업	60	30.0%	18.3%	20.0%	5.0%	15.0%	11.7%	0.0%	0.0%
	유통서비스업	60	15.0%	18.3%	28.3%	11.7%	18.3%	6.7%	1.7%	0.0%
	개인서비스업	49	34.7%	18.4%	26.5%	10.2%	8.2%	0.0%	0.0%	2.0%
	사회서비스업	75	37.3%	14.7%	24.0%	1.3%	10.7%	10.7%	0.0%	1.3%
전체		433	26.3%	15.9%	23.8%	8.1%	16.4%	6.0%	0.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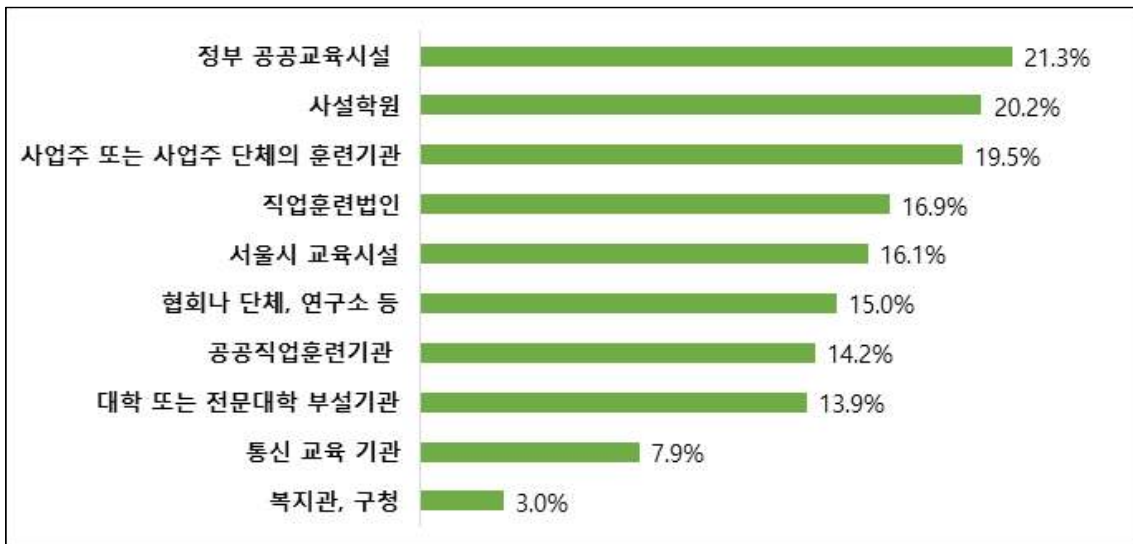
- 지난 3년 교육훈련 경험자 대상으로 교육훈련 횟수를 살펴봤을 때, 평균 교육 훈련 수는 2.6으로 나타났음. 교육훈련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교육훈련 횟수는 1개(47.6%) > 3-5개(23.6%) > 2개(21.7%) > 6개 이상(7.1%) 순임.
 - 만35세-44세(약 3.2개), 정규직(4개), 그리고 사회서비스업(4개)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5] 지난 3년 경험한 교육훈련 횟수

		빈도 (명)	교육 훈련 횟수				평균 교육 훈련 수 (개)
			1개	2개	3-5개	6개 이상	
성별	여성	127	49.6%	22.0%	21.3%	7.1%	2.5
	남성	140	45.7%	21.4%	25.7%	7.1%	2.6
연령 대	만19세-만25세	33	54.5%	30.3%	12.1%	3.0%	2.2
	만26세-만34세	80	46.3%	22.5%	25.0%	6.3%	2.6
	만35세-만44세	70	37.1%	22.9%	27.1%	12.9%	3.2
	만45세-만54세	50	54.0%	18.0%	24.0%	4.0%	2.0
	만55세 이상	34	55.9%	14.7%	23.5%	5.9%	2.3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171	40.9%	21.1%	28.1%	9.9%	3.0
	비정규직	27	55.6%	18.5%	22.2%	3.7%	2.0
	특고·프리랜서	24	50.0%	25.0%	20.8%	4.2%	2.3
	실업자, 취준 학생	29	65.5%	31.0%	3.4%	0.0%	1.4
	가사노동/주부	12	75.0%	8.3%	16.7%	0.0%	1.6
산업	제조업	26	38.5%	26.9%	30.8%	3.8%	2.2
	건설업	17	35.3%	11.8%	41.2%	11.8%	3.0
	생산자서비스업	39	38.5%	35.9%	23.1%	2.6%	2.3
	유통서비스업	52	46.2%	32.7%	19.2%	1.9%	1.9
	개인서비스업	20	75.0%	10.0%	10.0%	5.0%	1.9
	사회서비스업	69	39.1%	8.7%	34.8%	17.4%	4.0
전체		267	47.6%	21.7%	23.6%	7.1%	2.6

- 교육훈련 받은 기관(복수응답)은 정부 공공교육시설(21.3%) > 사설학원(20.2%)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19.5%) > 직업훈련법인(16.9%) > 서울시 교육시설(16.1%) 등 순임.

[그림 5-3] 교육훈련 받은 기관 (1순위+2순위)



- 정규직은 정부 공공교육시설(20.5%)와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24%), 그리고 협회나 단체·연구소(18.7%) 비율이 높은 한편 비정규직은 서울시 교육시설(25.9%), 정부 공공교육시설(25.9%), 직업훈련법인(25.9%),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22.2%) 비율이 고루 높은 것으로 파악됨. 실업자·취준·학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41.4%)와 사설학원(27.6%) 비율이 높은 편임.

[표 5-16] 교육훈련 받은 기관 (1순위+2순위)

		빈도 (명)	사설학 원	직업훈 련법인	서울시 교육시 설	정부 공공교 육시설	공공직 업훈련 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 관	대학 또는 전문대 학 부설기 관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복지관, 구청	통신 교육 기관
성별	여성	127	22.0%	15.0%	14.2%	23.6%	11.0%	15.0%	12.6%	15.0%	4.7%	7.1%
	남성	140	18.6%	18.6%	17.9%	19.3%	17.1%	23.6%	15.0%	15.0%	1.4%	8.6%
연령 대	만19세-만25세	33	18.2%	18.2%	18.2%	9.1%	9.1%	12.1%	48.5%	0.0%	9.1%	9.1%
	만26세-만34세	80	30.0%	20.0%	15.0%	21.3%	15.0%	13.8%	13.8%	18.8%	0.0%	3.8%
	만35세-만44세	70	11.4%	20.0%	15.7%	22.9%	20.0%	28.6%	8.6%	7.1%	1.4%	10.0%
	만45세-만54세	50	26.0%	12.0%	12.0%	30.0%	8.0%	16.0%	4.0%	26.0%	4.0%	8.0%
	만55세 이상	34	8.8%	8.8%	23.5%	17.6%	14.7%	26.5%	5.9%	20.6%	5.9%	11.8%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171	17.5%	16.4%	17.0%	20.5%	14.0%	24.0%	11.1%	18.7%	1.2%	6.4%
	비정규직	27	18.5%	25.9%	25.9%	25.9%	22.2%	7.4%	18.5%	3.7%	3.7%	11.1%
	특고·프리랜서	24	29.2%	8.3%	12.5%	29.2%	12.5%	12.5%	4.2%	25.0%	4.2%	16.7%
	실업자, 취준·학생	29	27.6%	17.2%	6.9%	13.8%	10.3%	6.9%	41.4%	0.0%	6.9%	6.9%
	가사노동/주부	12	25.0%	16.7%	8.3%	16.7%	8.3%	25.0%	0.0%	8.3%	16.7%	8.3%
산업	제조업	26	23.1%	23.1%	15.4%	0.0%	11.5%	26.9%	0.0%	26.9%	0.0%	11.5%
	건설업	17	11.8%	29.4%	23.5%	35.3%	41.2%	11.8%	0.0%	11.8%	5.9%	0.0%
	생산자서비스업	39	15.4%	23.1%	15.4%	17.9%	15.4%	28.2%	5.1%	20.5%	0.0%	10.3%
	유통서비스업	52	25.0%	9.6%	5.8%	19.2%	13.5%	28.8%	15.4%	19.2%	1.9%	7.7%
	개인서비스업	20	10.0%	20.0%	25.0%	45.0%	10.0%	30.0%	10.0%	0.0%	0.0%	5.0%
	사회서비스업	69	20.3%	10.1%	24.6%	27.5%	11.6%	8.7%	18.8%	15.9%	2.9%	8.7%
전체		267	20.2%	16.9%	16.1%	21.3%	14.2%	19.5%	13.9%	15.0%	3.0%	7.9%

- 교육훈련 받은 시기는 현재 받고 있는 경우(15.4%)보다 이전에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년-3년 이내(34.8%) 비율이 가장 높음. 평균 교육 기간은 5.7 주로, 한 달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7]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빈도 (명)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주)
			현재 교육훈 련 받고 있음	최근 6개월 이내 받음	6개월-1년 이내 받음	1년-2년 이내 받음	2년-3년 이내 받음	
성 별	여성	127	16.5%	27.6%	22.8%	18.1%	37.8%	5.9
	남성	140	14.3%	27.1%	27.9%	24.3%	32.1%	5.5

		빈도 (명)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주)
			현재 교육훈련 받고 있음	최근 6개월 이내 받음	6개월-1년 이내 받음	1년-2년 이내 받음	2년-3년 이내 받음	
연령대	만19세-만25세	33	27.3%	33.3%	33.3%	12.1%	27.3%	6.2
	만26세-만34세	80	17.5%	32.5%	22.5%	17.5%	31.3%	5.7
	만35세-만44세	70	17.1%	32.9%	21.4%	18.6%	34.3%	4.3
	만45세-만54세	50	6.0%	20.0%	30.0%	30.0%	38.0%	5.8
	만55세 이상	34	8.8%	8.8%	26.5%	32.4%	47.1%	7.8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171	11.1%	28.1%	24.6%	23.4%	36.3%	5.3
	비정규직	27	14.8%	18.5%	44.4%	14.8%	37.0%	6.1
	특고·프리랜서	24	16.7%	20.8%	20.8%	25.0%	37.5%	5.0
	실업자, 취준·학생	29	44.8%	34.5%	17.2%	10.3%	20.7%	8.2
	가사노동/주부	12	8.3%	25.0%	33.3%	33.3%	33.3%	7.0
산업	제조업	26	7.7%	19.2%	19.2%	19.2%	50.0%	3.8
	건설업	17	5.9%	11.8%	35.3%	41.2%	35.3%	6.8
	생산자서비스업	39	15.4%	25.6%	28.2%	28.2%	30.8%	5.3
	유통서비스업	52	9.6%	23.1%	25.0%	21.2%	34.6%	5.2
	개인서비스업	20	15.0%	20.0%	30.0%	20.0%	50.0%	3.7
	사회서비스업	69	14.5%	39.1%	21.7%	17.4%	33.3%	5.4
	전체	267	15.4%	27.3%	25.5%	21.3%	34.8%	5.7

○ 집단별로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를 살펴봄([표 5-17] 참조). 전체적으로 업무관리 분야(24.7%)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4.3%)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여성은 업무관리(28.3%)와 서비스 분야(20.5%) 비율이 높고 남성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9.3%)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은 컴퓨터·정보·통신분야 비율이 높고, 만35세-만44세는 업무관리분야(32.9%) 비율이 높음. 만55세 이상 고령층은 업무관리분야(20.6%)와 서비스 분야(17.6%)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18]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성별	연령대	빈도 (명)	교육훈련 분야
			여성
남성	140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9.3%) > 업무관리 분야(21.4%) > 전기·전자 분야(11.4%) > 건설 분야(10.7%) > 서비스 분야(7.9%)	
연령대	만19세-만25세	33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4.2%) > 서비스 분야(24.2%) > 기계·장비 분야(15.2%) > 의료분야(12.1%) > 어학분야(8.8%)
	만26세-만34세	80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8.8%) > 업무관리 분야(26.3%) > 서비스 분야(11.3%) > 의료분야(8.8%) > 어학분야(8.8%)
	만35세-만44세	70	업무관리 분야(32.9%) > 컴퓨터·정보·통신 분야(18.6%) > 서비스 분야(12.9%) >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11.4%) > 의료분야(10%)
	만45세-만54세	50	컴퓨터·정보·통신 분야(32%) > 업무관리 분야(24%) > 건설분야(14%) > 서비스 분야(10%) > 의료분야(10%)

		빈도 (명)	교육훈련 분야
	만55세 이상	34	업무관리 분야(20.6%) > 서비스 분야(17.6%) > 전기·전자 분야(17.6%) > 컴퓨터·정보·통신 분야(14.7%) > 어학 분야(11.8%)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171	업무관리 분야(30.4%) >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8.1%) > 서비스 분야(9.9%) > 전기·전자 분야(7%) > 어학분야(7%)
	비정규직	27	업무관리 분야(25.9%) > 컴퓨터·정보·통신 분야(18.5%) > 서비스 분야(18.5%) > 의료분야(11.1%) > 어학분야(11.1%)
	특고·프리랜서	24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0.8%) > 서비스 분야(20.8%) > 의료분야(16.7%) > 업무관리분야(12.5%) > 건설분야(12.5%)
	실업자, 취준·학생	29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0.7%) > 서비스 분야(17.2%) > 의료분야(13.8%) > 어학분야(13.8%) > 전기·전자 분야(10.3%)
	가사노동/주부	12	서비스 분야(33.3%) > 복지분야(25%)
전체		267	업무관리 분야(24.7%) >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4.3%) > 서비스 분야(13.9%) > 의료분야(9%) > 어학분야(7.1%)

- 교육훈련 성격은 정부지원훈련(38.2%) >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35.2%) > 개인선택 교육훈련(33%) > 서울시 지원훈련(14.6%) 등임.
- 남성은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43.6%) > 정부지원훈련(35.7%) > 개인선택 교육훈련(27.1%) 순이고, 여성은 정부지원훈련(40.9%) > 개인선택 교육훈련(27.1%) >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26%) 순임.
- 만55세 이상 중고령층의 경우 서울시 지원훈련(26.5%)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사노동/주부는 서울시지원훈련(50%)과 정부지원훈련(50%)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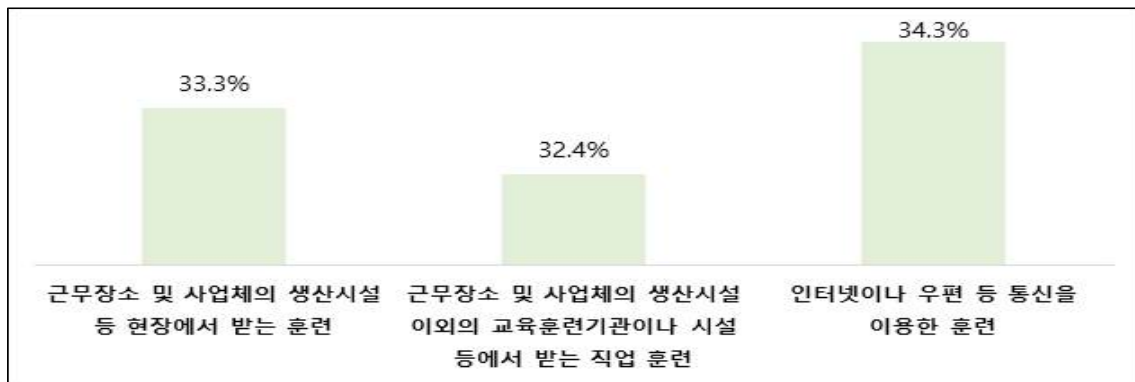
[표 5-19] 교육훈련 성격 (1순위+2순위)

		빈도 (명)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정부지원훈련	서울시 지원훈련	개인선택 교육훈련	기타
성별	여성	127	26.0%	40.9%	15.7%	39.4%	4.7%
	남성	140	43.6%	35.7%	13.6%	27.1%	0.7%
연령대	만19세-만25세	33	18.2%	33.3%	12.1%	51.5%	3.0%
	만26세-만34세	80	30.0%	41.3%	12.5%	37.5%	2.5%
	만35세-만44세	70	41.4%	42.9%	11.4%	27.1%	1.4%
	만45세-만54세	50	46.0%	34.0%	16.0%	26.0%	4.0%
	만55세 이상	34	35.3%	32.4%	26.5%	26.5%	2.9%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171	48.5%	33.3%	12.3%	28.7%	1.8%
	비정규직	27	14.8%	55.6%	22.2%	22.2%	3.7%
	특고·프리랜서	24	12.5%	33.3%	12.5%	54.2%	8.3%
	실업자, 취준·학생	29	10.3%	48.3%	6.9%	48.3%	3.4%
	가사노동/주부	12	0.0%	50.0%	50.0%	33.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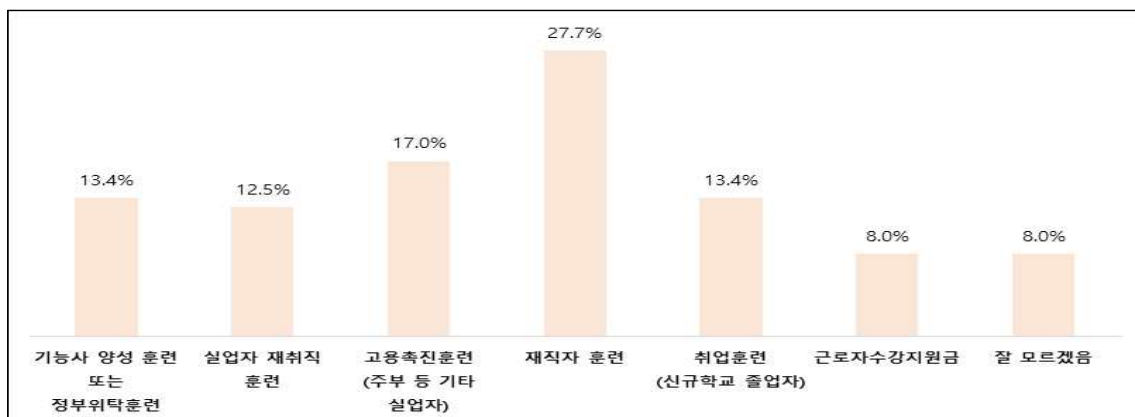
		빈도 (명)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정부지원훈련	서울시 지원훈련	개인선택 교육훈련	기타
산 업	제조업	26	53.8%	26.9%	15.4%	15.4%	3.8%
	건설업	17	35.3%	47.1%	23.5%	23.5%	0.0%
	생산자서비스업	39	41.0%	30.8%	10.3%	41.0%	5.1%
	유통서비스업	52	48.1%	36.5%	5.8%	34.6%	0.0%
	개인서비스업	20	35.0%	35.0%	15.0%	40.0%	5.0%
	사회서비스업	69	29.0%	42.0%	18.8%	29.0%	2.9%
	전체	267	35.2%	38.2%	14.6%	33.0%	2.6%

-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은 인터넷 등 통신 이용 훈련(34.3%) > 현장 훈련(33.3%) > 근무장소 외 훈련기관이나 시설에서 받는 훈련(32.4%)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정부지원훈련은 재직자 훈련(27.7%) > 고용촉진훈련(17%) > 신규학교 졸업자 대상 취업훈련(13.4%) ≥ 기능사 양성 훈련 또는 정부위탁훈련(13.4%) > 실업자 재취직 훈련(12.5%) 순임.

[그림 5-4] 교육훈련 성격: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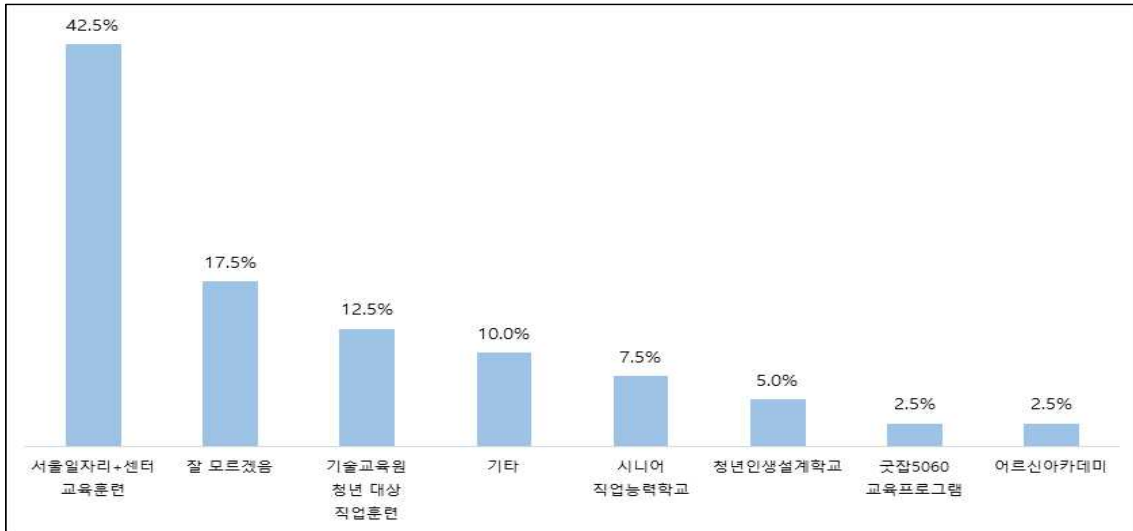


[그림 5-5] 교육훈련 성격: 정부지원 훈련



- 서울시 지원 훈련은 서울시일자리+센터(42.5%)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직업훈련(12.5%) > 기타(10%) > 시니어 직업능력학교(7.5%) > 청년인생설계학교(5%) 순임. “잘 모르겠음”과 “기타”는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등 지역기반시설 교육훈련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5-6] 교육훈련 성격: 서울시 지원 훈련



- 교육훈련 주된 목적(복수응답)은 업무능력 향상(66.3%) > (재)취업(24%) > 자격증 취득(16.9%) 등 순으로, 현재 일자리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취업(40%)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 5-20] 교육훈련 주된 목적 (1순위+2순위)

		빈도 (명)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타
성 별	여성	127	5.5%	26.8%	62.2%	18.9%	1.6%
	남성	140	7.9%	21.4%	70.0%	15.0%	0.7%
연 령 대	만19세-만25세	33	3.0%	36.4%	45.5%	36.4%	3.0%
	만26세-만34세	80	6.3%	33.8%	66.3%	7.5%	1.3%
	만35세-만44세	70	7.1%	17.1%	74.3%	11.4%	1.4%
	만45세-만54세	50	10.0%	12.0%	70.0%	22.0%	0.0%
	만55세 이상	34	5.9%	20.6%	64.7%	23.5%	0.0%
경 제 활 동 상 태	정규직	171	4.7%	18.1%	78.9%	8.8%	1.8%
	비정규직	27	0.0%	37.0%	51.9%	29.6%	0.0%
	특고·프리랜서	24	16.7%	20.8%	54.2%	20.8%	0.0%
	실업자, 취준·학생	29	10.3%	51.7%	27.6%	34.5%	0.0%
	가사노동/주부	12	8.3%	25.0%	41.7%	50.0%	0.0%

		빈도 (명)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타
산 업	제조업	26	0.0%	7.7%	88.5%	11.5%	0.0%
	건설업	17	5.9%	23.5%	70.6%	23.5%	0.0%
	생산자서비스업	39	5.1%	20.5%	64.1%	17.9%	2.6%
	유통서비스업	52	11.5%	25.0%	73.1%	5.8%	1.9%
	개인서비스업	20	10.0%	40.0%	40.0%	15.0%	0.0%
	사회서비스업	69	4.3%	15.9%	79.7%	13.0%	1.4%
전체		267	6.7%	24.0%	66.3%	16.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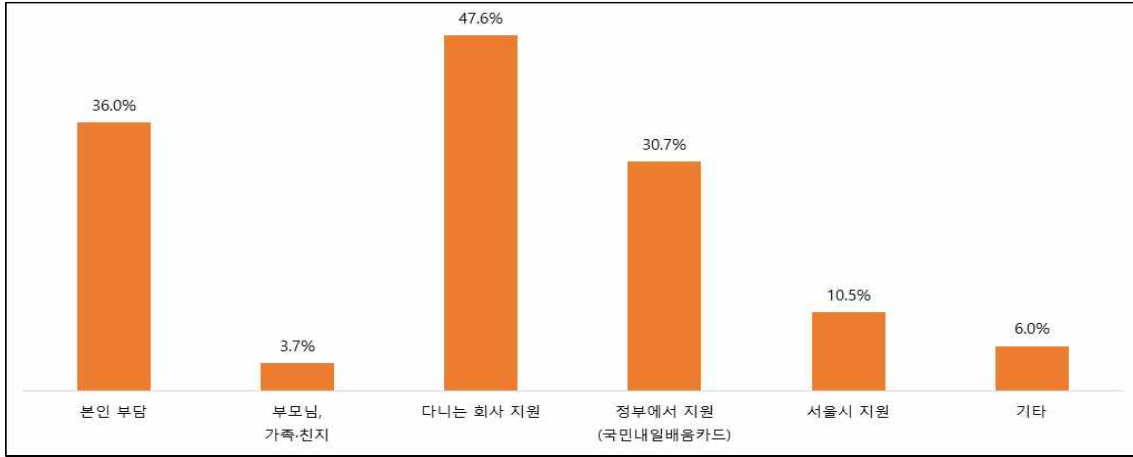
○ 교육훈련 받은 이유는 원하는 프로그램 있어서(56.9%)와 접근성 좋아서(26.2%) 등 프로그램의 내용과 접근성으로 인한 것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5-21] 교육훈련 받은 이유 (1순위+2순위)

		빈도 (명)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서	상사 등의 권유로
성 별	여성	127	11.8%	22.0%	52.8%	16.5%	15.7%
	남성	140	7.1%	30.0%	60.7%	11.4%	20.0%
연 령 대	만19세-만25세	33	21.2%	33.3%	45.5%	18.2%	18.2%
	만26세-만34세	80	12.5%	18.8%	57.5%	15.0%	25.0%
	만35세-만44세	70	7.1%	25.7%	51.4%	14.3%	20.0%
	만45세-만54세	50	6.0%	34.0%	64.0%	10.0%	10.0%
	만55세 이상	34	0.0%	26.5%	67.6%	11.8%	8.8%
경 제 활 동 상 태	정규직	171	7.0%	24.0%	57.3%	13.5%	22.2%
	비정규직	27	3.7%	40.7%	63.0%	7.4%	7.4%
	특고·프리랜서	24	12.5%	8.3%	66.7%	20.8%	16.7%
	실업자, 취준·학생	29	24.1%	34.5%	44.8%	13.8%	10.3%
	가사노동/주부	12	8.3%	33.3%	58.3%	8.3%	8.3%
산 업	제조업	26	3.8%	30.8%	69.2%	3.8%	19.2%
	건설업	17	5.9%	41.2%	58.8%	5.9%	23.5%
	생산자서비스업	39	5.1%	25.6%	43.6%	20.5%	20.5%
	유통서비스업	52	9.6%	17.3%	61.5%	11.5%	25.0%
	개인서비스업	20	10.0%	15.0%	70.0%	5.0%	30.0%
	사회서비스업	69	8.7%	26.1%	58.0%	20.3%	10.1%
전체		267	9.4%	26.2%	56.9%	13.9%	18.0%

○ 교육훈련 비용 부담(복수응답)은 다니는 회사 지원(47.6%) > 본인 부담(36%) > 내일 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30.7%) 서울시 지원(10.5%) 등 순임. 교육훈련 개인 지출 비용은 평균 17.4만원이고, 만19세-25세 청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이 교육훈련 위해 지출하는 비용(26.3만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실업자·취준·학생(26.7만원) 지출 비용이 높은 것과 연결됨([표 5-21] 참조).

[그림 5-7] 교육훈련 비용 부담 (1순위+2순위)



[표 5-22] 교육훈련 비용 부담(1순위+2순위) 및 평균 개인지출 비용

성별	연령대	경제활동상태	산업	빈도 (명)	교육훈련 비용 부담						1개의 교육훈련 평균지출 비용 (만원)
					본인 부담	부모님이 나 가족·친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	정부에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서울시에서 지원	기타	
여성				127	43.3%	3.9%	37.8%	34.6%	9.4%	5.5%	16.5
남성				140	29.3%	3.6%	56.4%	27.1%	11.4%	6.4%	18.2
	만19세-만25세			33	33.3%	15.2%	24.2%	24.2%	15.2%	21.2%	26.8
	만26세-만34세			80	35.0%	5.0%	51.3%	31.3%	7.5%	2.5%	13.6
	만35세-만44세			70	38.6%	1.4%	51.4%	37.1%	5.7%	4.3%	20.2
	만45세-만54세			50	32.0%	0.0%	50.0%	26.0%	14.0%	4.0%	16.2
	만55세 이상			34	41.2%	0.0%	50.0%	29.4%	17.6%	5.9%	13.3
	정규직			171	31.0%	1.2%	61.4%	28.1%	9.9%	2.3%	14.9
	비정규직			27	44.4%	7.4%	40.7%	33.3%	11.1%	3.7%	13.0
	특고·프리랜서			24	41.7%	4.2%	20.8%	25.0%	8.3%	25.0%	20.2
	실업자, 취준·학생			29	31.0%	17.2%	6.9%	41.4%	6.9%	17.2%	26.7
	가사노동/주부			12	75.0%	0.0%	16.7%	50.0%	25.0%	0.0%	14.8
	제조업			26	30.8%	0.0%	76.9%	11.5%	11.5%	0.0%	21.5
	건설업			17	11.8%	0.0%	64.7%	47.1%	17.6%	0.0%	15.2
	생산자서비스업			39	35.9%	0.0%	48.7%	38.5%	2.6%	2.6%	19.4
	유통서비스업			52	26.9%	5.8%	55.8%	32.7%	5.8%	7.7%	9.1
	개인서비스업			20	45.0%	5.0%	40.0%	30.0%	10.0%	5.0%	19.8
	사회서비스업			69	44.9%	1.4%	49.3%	20.3%	13.0%	7.2%	17.9
	전체			267	36.0%	3.7%	47.6%	30.7%	10.5%	6.0%	17.4

- 지난 3년 자격증 취득한 응답자는 10명 중 2~3명(24.9%)이고, 자격증 취득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평균 27.6만원임. 만19세-25세(41.9%)와 만26세-34세(36.2%) 등 청년층이 가장 활발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사노동·주부의 경우 평균 자격증 취득 비용이 가장 높은데(66.3만원), 표본 수가 적은(8명)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표 5-23] 지난 3년 자격증 취득 여부, 평균 자격증 취득 개인지출 비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자격증 취득 지출 비용 (만원)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별	여성	262	81	76.4%	23.6%	27.5
	남성	264	93	73.9%	26.1%	27.7
연령대	만19세-만25세	54	39	58.1%	41.9%	17.8
	만26세-만34세	104	59	63.8%	36.2%	27.9
	만35세-만44세	138	29	82.6%	17.4%	21.4
	만45세-만54세	145	32	81.9%	18.1%	40.8
	만55세 이상	85	15	85.0%	15.0%	37.2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304	89	77.4%	22.6%	27.0
	비정규직	51	28	64.6%	35.4%	24.6
	특고·프리랜서	46	12	79.3%	20.7%	33.3
	실업자, 취준·학생	55	34	61.8%	38.2%	16.7
	가사노동/주부	55	8	87.3%	12.7%	66.3
산업	제조업	58	16	78.4%	21.6%	38.6
	건설업	29	10	74.4%	25.6%	24.0
	생산자서비스업	69	30	69.7%	30.3%	32.2
	유통서비스업	92	20	82.1%	17.9%	12.1
	개인서비스업	55	14	79.7%	20.3%	21.9
	사회서비스업	105	39	72.9%	27.1%	30.7
전체		526	174	75.1%	24.9%	27.6

- 국가 자격증의 경우 기능사(17.8%) > 기사(16.7%) > 간호사·의사·교사·변호사·회계사 등 기타(12.1%) 순임. 민간 및 국제 자격증은 토익·토플 등 국제자격증(22.4%) > 텝스·증권분석사·번역사 등 민간 자격증(20.1%) > 잘 모름/그외(13.8%) 순임.

[표 5-24] 지난 3년 취득 자격증: 국가자격증

		빈도 (명)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국가기술 자격 1급)	(국가기술 자격 2급)	
성별	여성	81	8.6%	12.3%	1.2%	2.5%	14.8%	16.0%
	남성	93	8.6%	20.4%	6.5%	10.8%	20.4%	8.6%

		빈도 (명)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국가기술 자격 1급)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 2급)	기타*
연령 대	만19세-만25세	39	12.8%	7.7%	7.7%	5.1%	17.9%	7.7%
	만26세-만34세	59	8.5%	22.0%	0.0%	8.5%	13.6%	11.9%
	만35세-만44세	29	6.9%	24.1%	0.0%	6.9%	17.2%	6.9%
	만45세-만54세	32	3.1%	12.5%	6.3%	9.4%	21.9%	25.0%
	만55세 이상	15	13.3%	13.3%	13.3%	0.0%	26.7%	6.7%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89	10.1%	21.3%	5.6%	7.9%	15.7%	10.1%
	비정규직	28	7.1%	10.7%	3.6%	7.1%	17.9%	17.9%
	특고·프리랜서	12	0.0%	8.3%	0.0%	8.3%	16.7%	25.0%
	실업자, 취준·학생	34	8.8%	8.8%	2.9%	5.9%	20.6%	8.8%
	가사노동/주부	8	0.0%	25.0%	0.0%	0.0%	25.0%	12.5%
산업	제조업	16	12.5%	18.8%	18.8%	12.5%	12.5%	0.0%
	건설업	10	10.0%	50.0%	20.0%	0.0%	30.0%	0.0%
	생산자서비스업	30	10.0%	13.3%	0.0%	13.3%	20.0%	13.3%
	유통서비스업	20	0.0%	25.0%	0.0%	5.0%	25.0%	10.0%
	개인서비스업	14	0.0%	21.4%	7.1%	7.1%	7.1%	14.3%
	사회서비스업	39	15.4%	7.7%	0.0%	5.1%	12.8%	20.5%
전체		174	8.6%	16.7%	4.0%	6.9%	17.8%	12.1%

* 기타 국가 자격증: 의사, 교사, 변호사, 회계사 등

[표 5-25] 지난 3년 취득 자격증: 민간·국제 자격증

		빈도 (명)	민간 자격증 (TEPS, 번역사, 정보검색사, 증권분석사 등)	국제(외국) 자격증 (TOEIC, TOEFL, 국제재무분석사 등)	잘 모름
성별	여성	81	25.9%	16.0%	19.8%
	남성	93	15.1%	28.0%	8.6%
연령 대	만19세-만25세	39	17.9%	41.0%	17.9%
	만26세-만34세	59	16.9%	23.7%	13.6%
	만35세-만44세	29	24.1%	20.7%	6.9%
	만45세-만54세	32	21.9%	6.3%	12.5%
	만55세 이상	15	26.7%	6.7%	20.0%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89	21.3%	18.0%	10.1%
	비정규직	28	32.1%	21.4%	10.7%
	특고·프리랜서	12	25.0%	25.0%	16.7%
	실업자, 취준·학생	34	8.8%	41.2%	17.6%
	가사노동/주부	8	12.5%	0.0%	37.5%
산업	제조업	16	25.0%	25.0%	6.3%
	건설업	10	0.0%	30.0%	0.0%
	생산자서비스업	30	33.3%	16.7%	10.0%
	유통서비스업	20	25.0%	25.0%	10.0%
	개인서비스업	14	21.4%	14.3%	35.7%
	사회서비스업	39	23.1%	15.4%	7.7%
전체		174	20.1%	22.4%	13.8%

- 자격증 취득 주된 목적은 취업위해(30.7%) > 자격증 취득 위해(30.2%) > 업무 능력 향상 위해(29.6%) 등 순으로 나타났음. 미래준비·취미·자기만족·장학금 등 기타 응답 비율(5.3%) 역시 높은 편임.

[표 5-26] 자격증 취득 주된 목적: 자격증 종류별

		빈도 (명)						비율 (%)				
		창업 위해	(재) 취업 위해	업무 능력 향상 위해	자격증 취득 위해	기타	합계	창업 위해	(재) 취업 위해	업무 능력 향상 위해	자격증 취득 위해	기타
국가자격증	기술사		1	8	5	1	15	0.0%	6.7%	53.3%	33.3%	6.7%
	기사		11	10	7	1	29	0.0%	37.9%	34.5%	24.1%	3.4%
	기능장	1	2	4			7	14.3%	28.6%	57.1%	0.0%	0.0%
	산업기사	1	3	3	5		12	8.3%	25.0%	25.0%	41.7%	0.0%
	기능사	2	5	8	14	2	31	6.5%	16.1%	25.8%	45.2%	6.5%
	기타	2	6	5	7	1	21	9.5%	28.6%	23.8%	33.3%	4.8%
민간 자격증		1	10	12	10	2	35	2.9%	28.6%	34.3%	28.6%	5.7%
국제(외국) 자격증		1	20	6	9	3	39	2.6%	51.3%	15.4%	23.1%	7.7%
전체		8	58	56	57	10	189	4.2%	30.7%	29.6%	30.2%	5.3%

* 기타: 미래준비, 취미, 자기만족, 장학금, 해외봉사활동 위해 등.

3) 교육훈련 전망과 의견

- 종사하고 있거나 지망하는 업무가 AI 등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가 “그렇다(약간 그렇다 39.1% + 매우 그렇다 15.9%)”고 응답했음.

[표 5-27] 종사·지망 업무 일자리 전망: 새로운 기술 도입 인한 일자리 대체·감소

		빈도 (명)	일자리 전망					평균 점수 (100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여성	343	6.1%	23.0%	14.3%	38.5%	18.1%	59.8
	남성	357	5.6%	18.2%	22.7%	39.8%	13.7%	59.5
연령대	만19세-만25세	93	6.5%	12.9%	17.2%	51.6%	11.8%	62.4
	만26세-만34세	163	8.0%	22.7%	23.3%	30.1%	16.0%	55.8
	만35세-만44세	167	5.4%	20.4%	20.4%	37.7%	16.2%	59.7
	만45세-만54세	177	4.5%	22.0%	15.3%	39.5%	18.6%	61.4
	만55세 이상	100	5.0%	22.0%	15.0%	44.0%	14.0%	60.0

		빈도 (명)	일자리 전망					평균 점수 (100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393	5.1%	22.9%	18.1%	36.9%	17.0%	59.5
	비정규직	79	11.4%	25.3%	16.5%	32.9%	13.9%	53.2
	특고·프리랜서	58	5.2%	22.4%	24.1%	34.5%	13.8%	57.3
	실업자, 취준·학생	89	5.6%	10.1%	21.3%	52.8%	10.1%	62.9
	가사노동/주부	63	4.8%	12.7%	15.9%	44.4%	22.2%	66.7
산업	제조업	74	2.7%	16.2%	21.6%	40.5%	18.9%	64.2
	건설업	39	2.6%	30.8%	15.4%	35.9%	15.4%	57.7
	생산자서비스업	99	4.0%	24.2%	25.3%	32.3%	14.1%	57.1
	유통서비스업	112	8.9%	21.4%	13.4%	35.7%	20.5%	59.4
	개인서비스업	69	4.3%	23.2%	15.9%	37.7%	18.8%	60.9
	사회서비스업	144	8.3%	26.4%	18.8%	36.1%	10.4%	53.5
전체		700	5.9%	20.6%	18.6%	39.1%	15.9%	59.6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값임

- 희망 은퇴 연령대는 현 정년 연령인 60세(27.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1세-65세(24.4%) > 66세-69세(13.6%) 등 순임. 현 정년 연령 이후까지 일하기 희망하는 경우가 54.1%로 절반 수준임. 특히 비정규직(16.5%)과 특고·프리랜서(17.2%), 가사노동/주부(17.5%)의 경우 희망 은퇴 연령대 70대 비율이 높은 편임.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오래 일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임.
- 한편, 희망 연령대까지 한 곳의 일자리나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59.7%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 비율이 높으며, 남성(54.6%) 보다 여성(65%)이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8] 희망 은퇴 연령대, 은퇴까지 일자리 고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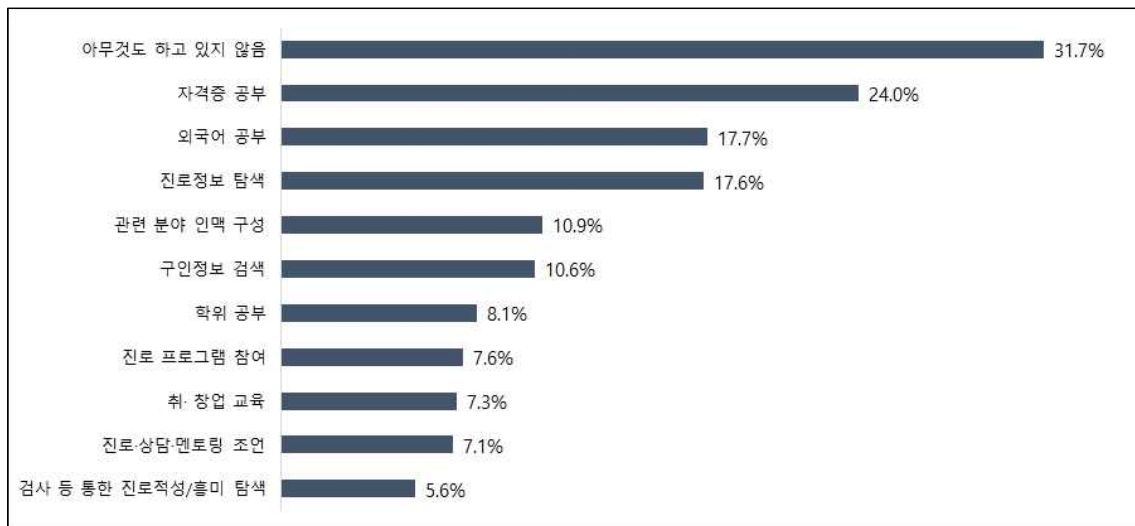
		빈도 (명)	희망 은퇴 연령대					희망 연령대까지 일자리 한 곳 전망 “아니오”
			40대- 50대	60세 (정년 연령)	61세- 65세	66세- 69세	70대	
성 별	여성	343	16.0%	26.5%	22.2%	17.5%	12.8%	65.0%
	남성	357	11.5%	27.7%	26.6%	19.6%	9.5%	54.6%
연 령 대	만19세-만25세	93	15.1%	31.2%	31.2%	11.8%	8.6%	75.3%
	만26세-만34세	163	19.0%	35.0%	13.5%	15.3%	10.4%	64.4%
	만35세-만44세	167	15.6%	26.9%	24.6%	16.2%	10.2%	56.3%
	만45세-만54세	177	10.2%	25.4%	24.9%	22.6%	12.4%	55.4%
	만55세 이상	100	7.0%	14.0%	35.0%	27.0%	14.0%	51.0%

		빈도 (명)	희망 은퇴 연령대					희망 연령대까지 일자리 한 곳 전망 “아니오”
			40대- 50대	60세 (정년 연령)	61세- 65세	66세- 69세	70대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393	13.2%	31.6%	24.4%	17.6%	7.9%	53.2%
	비정규직	79	19.0%	19.0%	27.8%	13.9%	16.5%	78.5%
	특고·프리랜서	58	8.6%	20.7%	22.4%	25.9%	17.2%	55.2%
	실업자, 취준·학생	89	11.2%	27.0%	25.8%	19.1%	13.5%	71.9%
	가사노동/주부	63	12.7%	17.5%	20.6%	25.4%	17.5%	68.3%
산업	제조업	74	16.2%	29.7%	29.7%	12.2%	10.8%	54.1%
	건설업	39	15.4%	17.9%	33.3%	17.9%	10.3%	51.3%
	생산자서비스업	99	8.1%	34.3%	22.2%	19.2%	8.1%	57.6%
	유통서비스업	112	17.0%	30.4%	20.5%	18.8%	8.9%	59.8%
	개인서비스업	69	21.7%	18.8%	23.2%	13.0%	14.5%	63.8%
	사회서비스업	144	11.8%	28.5%	26.4%	20.1%	9.7%	54.9%
	전체	700	13.7%	27.1%	24.4%	18.6%	11.1%	59.7%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한 값임

-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복수응답)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31.7%)이 가장 높고, 자격
증 공부(24%) > 외국어 공부(17.7%) > 진로정보탐색(17.6%) 등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8]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1순위+2순위)



-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음” 비율이 높은 한편, 청년층(만19세-25세 15.1%, 만26세-34세 19.6%)의 경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비율이 낮음.
- 진로 재설계를 하고 있는 만55세 이상은 구인정보 검색(11%)과 진로상담·멘토링 조언

(10%), 진로정보탐색(9%) 등 정보 취득에 대한 내용 비율이 높은 편임. 청년층의 경우 외국어 공부, 학위공부, 자격증 공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5-29]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1순위)

		진로·상담·멘토링 조언	검사 등 통한 진로적성/흥미 탐색	진로 프로그램 참여	진로정보 탐색	외국어 공부	학위 공부	자격증 공부	구인정보 검색	관련 분야 인맥 구성	취·창업 교육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성별	여성	5.5%	2.9%	3.5%	9.6%	13.1%	3.5%	13.1%	5.5%	3.8%	3.2%	34.4%
	남성	4.8%	2.5%	4.8%	10.1%	10.6%	6.7%	13.2%	6.4%	8.4%	2.8%	29.1%
연령대	만19세-만25세	6.5%	2.2%	2.2%	10.8%	18.3%	17.2%	16.1%	1.1%	6.5%	3.2%	15.1%
	만26세-만34세	3.1%	5.5%	6.1%	11.0%	12.9%	6.1%	17.8%	8.0%	4.3%	4.3%	19.6%
	만35세-만44세	6.6%	0.6%	4.2%	7.8%	12.6%	2.4%	13.2%	5.4%	9.0%	3.6%	34.1%
	만45세-만54세	2.3%	4.0%	4.5%	10.7%	8.5%	2.3%	10.2%	4.5%	5.1%	2.3%	44.1%
	만55세 이상	10.0%	0.0%	2.0%	9.0%	9.0%	2.0%	8.0%	11.0%	6.0%	1.0%	41.0%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4.8%	2.8%	4.8%	10.4%	10.2%	3.8%	13.0%	5.9%	7.1%	3.3%	33.1%
	비정규직	8.9%	0.0%	1.3%	10.1%	15.2%	2.5%	19.0%	3.8%	7.6%	1.3%	29.1%
	특고·프리랜서	1.7%	0.0%	1.7%	5.2%	19.0%	3.4%	8.6%	6.9%	8.6%	5.2%	37.9%
	실업자, 취준·학생	4.5%	5.6%	4.5%	12.4%	14.6%	16.9%	13.5%	3.4%	3.4%	3.4%	16.9%
	가사노동/주부	4.8%	3.2%	4.8%	6.3%	4.8%	3.2%	12.7%	14.3%	0.0%	1.6%	42.9%
산업	제조업	6.8%	4.1%	2.7%	6.8%	23.0%	1.4%	5.4%	6.8%	6.8%	1.4%	35.1%
	건설업	7.7%	0.0%	5.1%	5.1%	10.3%	2.6%	20.5%	7.7%	7.7%	0.0%	33.3%
	생산자서비스업	5.1%	2.0%	2.0%	8.1%	10.1%	3.0%	20.2%	2.0%	8.1%	4.0%	35.4%
	유통서비스업	3.6%	3.6%	4.5%	8.9%	10.7%	2.7%	12.5%	6.3%	7.1%	3.6%	35.7%
	개인서비스업	5.8%	1.4%	2.9%	8.7%	10.1%	2.9%	8.7%	10.1%	8.7%	7.2%	33.3%
	사회서비스업	5.6%	1.4%	4.9%	13.9%	11.8%	6.3%	13.9%	3.5%	6.3%	2.1%	27.8%
전체		5.1%	2.7%	4.1%	9.9%	11.9%	5.1%	13.1%	6.0%	6.1%	3.0%	31.7%

- 이용 용이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시설은 온라인(57.4%) > 서울일자리+센터(8%) > 고용복지플러스센터(7.6%) > 주민센터(6.4%) > 평생교육센터(5.9%) 순으로 나타났음.
- 만 45세-54세는 서울일자리+센터(11.9%)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7%)가, 그리고 만 55세 이상은 주민센터(15%)와 서울일자리+센터(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11%) 비율이 비교적 높음.
- 가사노동/주부의 경우 온라인(39.7%) 비율이 낮고, 주민센터(28.6%)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연계 강화될 필요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30] 이용 용이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시설

		온라인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기술포육원	서울일자리+센터	민간교육시설	기타
성별	여성	53.9%	7.9%	7.6%	7.0%	5.5%	2.6%	6.1%	3.8%	1.2%
	남성	60.8%	5.0%	4.2%	8.1%	0.0%	3.1%	9.8%	5.6%	2.5%
연령대	만19세-만25세	69.9%	3.2%	5.4%	4.3%	1.1%	3.2%	7.5%	2.2%	1.1%
	만26세-만34세	69.9%	4.9%	4.3%	3.1%	6%	4.3%	4.3%	5.5%	2.5%
	만35세-만44세	58.1%	6.0%	6.0%	8.4%	2.4%	3.0%	4.8%	6.6%	1.8%
	만45세-만54세	48.6%	5.1%	6.8%	10.7%	4.0%	1.1%	11.9%	4.5%	2.8%
	만55세 이상	40.0%	15.0%	7.0%	11.0%	6.0%	3.0%	13.0%	3.0%	0.0%
경제활동상태	정규직	56.2%	4.1%	7.4%	9.4%	2.3%	3.3%	7.4%	5.9%	2.0%
	비정규직	58.2%	3.8%	3.8%	7.6%	6.3%	3.8%	12.7%	2.5%	0.0%
	특고·프리랜서	56.9%	1.7%	5.2%	8.6%	1.7%	3.4%	6.9%	6.9%	6.9%
	실업자, 취준·학생	75.3%	6.7%	1.1%	3.4%	0.0%	2.2%	6.7%	3.4%	0.0%
	가사노동/주부	39.7%	28.6%	6.3%	3.2%	6.3%	0.0%	4.8%	1.6%	0.0%
산업	제조업	55.4%	4.1%	5.4%	8.1%	1.4%	4.1%	9.5%	5.4%	2.7%
	건설업	41.0%	5.1%	5.1%	23.1%	0.0%	5.1%	10.3%	7.7%	0.0%
	생산자서비스업	63.6%	5.1%	6.1%	10.1%	2.0%	0.0%	5.1%	3.0%	3.0%
	유통서비스업	57.1%	2.7%	4.5%	6.3%	2.7%	5.4%	7.1%	8.9%	2.7%
	개인서비스업	62.3%	7.2%	5.8%	5.8%	2.9%	1.4%	8.7%	2.9%	2.9%
	사회서비스업	54.2%	2.1%	10.4%	7.6%	4.9%	4.2%	10.4%	4.2%	1.4%
전체		57.4%	6.4%	5.9%	7.6%	2.7%	2.9%	8.0%	4.7%	1.9%

○ 앞서 제시한 시설 외 독립적 교육훈련 및 진로지원 전담시설 필요성은 “있음”이 84.9%로 나타났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도는 모르거나(28%) 알고 있더라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32.1%)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경험은 17.6%로 응답자 중 약 2명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31] 독립적 교육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전담시설 필요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

		별도 교육훈련 전담시설 필요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				
		예	아니오	모른다	알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으나, 지원 내용과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을 알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
성별	여성	86.9%	13.1%	17.2%	22.2%	35.6%	9.6%	15.5%
	남성	82.9%	17.1%	38.4%	13.2%	28.9%	8.1%	11.5%
연령대	만19세-만25세	81.7%	18.3%	36.6%	14.0%	31.2%	6.5%	11.8%
	만26세-만34세	83.4%	16.6%	12.3%	30.7%	31.3%	9.2%	16.6%
	만35세-만44세	84.4%	15.6%	32.3%	16.2%	31.7%	8.4%	11.4%
	만45세-만54세	87.6%	12.4%	35.0%	12.4%	32.8%	7.9%	11.9%
	만55세 이상	86.0%	14.0%	26.0%	11.0%	34.0%	13.0%	16.0%

		별도 교육훈련 전담시설 필요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				
		예	아니오	모른다	알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으나, 지원 내용과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을 알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85.0%	15.0%	27.5%	17.8%	32.1%	8.9%	13.7%
	비정규직	83.5%	16.5%	22.8%	24.1%	30.4%	5.1%	17.7%
	특고·프리랜서	82.8%	17.2%	27.6%	15.5%	27.6%	12.1%	17.2%
	실업자, 취준·학생	82.0%	18.0%	36.0%	16.9%	30.3%	4.5%	12.4%
	가사노동/주부	88.9%	11.1%	20.6%	12.7%	46.0%	15.9%	4.8%
산업	제조업	83.8%	16.2%	33.8%	20.3%	28.4%	9.5%	8.1%
	건설업	79.5%	20.5%	28.2%	12.8%	28.2%	10.3%	20.5%
	생산자서비스업	77.8%	22.2%	27.3%	25.3%	27.3%	5.1%	15.2%
	유통서비스업	86.6%	13.4%	24.1%	19.6%	35.7%	8.9%	11.6%
	개인서비스업	88.4%	11.6%	29.0%	10.1%	31.9%	11.6%	17.4%
	사회서비스업	87.5%	12.5%	27.1%	17.4%	30.6%	9.0%	16.0%
전체		84.9%	15.1%	28.0%	17.6%	32.1%	8.9%	13.4%

- 서울시 제공 교육훈련 및 진로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서울일자리+센터(7.1%) > 서울
 시기술교육원(3.7%)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3%) > 시니어직업능력학교(2.4%) >
 굿잡5060(2%) > 어르신아카데미(1.7%) > 내일행복학교(1.6%) 순으로 나타났음.
- 인지도(알고있음+이용경험 있음)는 서울일자리+센터(64.6%) > 서울시기술교육원
 (35.3%) > 시니어직업능력학교(27.4%)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24.3%) > 내일
 행복학교(20.1%). > 어르신아카데미(19.7%) > 굿잡5060(17%) 순임.

[표 5-32]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1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일자리+센터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성별	여성	63.3%	33.8%	2.9%	29.7%	62.7%	7.6%	76.7%	20.7%	2.6%
	남성	66.1%	29.4%	4.5%	40.9%	52.4%	6.7%	74.8%	21.8%	3.4%
연령대	만19세-만25세	73.1%	25.8%	1.1%	34.4%	59.1%	6.5%	71.0%	26.9%	2.2%
	만26세-만34세	64.4%	29.4%	6.1%	35.6%	53.4%	11.0%	66.3%	28.2%	5.5%
	만35세-만44세	67.1%	29.3%	3.6%	42.5%	53.3%	4.2%	80.2%	16.2%	3.6%
	만45세-만54세	61.6%	37.3%	1.1%	35.0%	58.2%	6.8%	79.1%	19.8%	1.1%
	만55세 이상	59.0%	34.0%	7.0%	25.0%	68.0%	7.0%	82.0%	16.0%	2.0%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60.8%	33.8%	5.3%	37.7%	55.7%	6.6%	75.1%	21.6%	3.3%
	비정규직	68.4%	30.4%	1.3%	26.6%	58.2%	15.2%	82.3%	16.5%	1.3%
	특고·프리랜서	65.5%	32.8%	1.7%	29.3%	63.8%	6.9%	70.7%	27.6%	1.7%
	실업자, 취준·학생	80.9%	19.1%	0.0%	46.1%	50.6%	3.4%	70.8%	25.8%	3.4%
	가사노동/주부	65.1%	33.3%	1.6%	25.4%	71.4%	3.2%	84.1%	14.3%	1.6%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일자리+센터			청년활력공간 무종류지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산업	제조업	68.9%	23.0%	8.1%	43.2%	51.4%	5.4%	81.1%	13.5%	5.4%
	건설업	71.8%	20.5%	7.7%	41.0%	51.3%	7.7%	76.9%	20.5%	2.6%
	생산자서비스업	59.6%	35.4%	5.1%	32.3%	58.6%	9.1%	74.7%	20.2%	5.1%
	유통서비스업	68.8%	28.6%	2.7%	41.1%	50.9%	8.0%	78.6%	19.6%	1.8%
	개인서비스업	66.7%	31.9%	1.4%	30.4%	58.0%	11.6%	73.9%	23.2%	2.9%
	사회서비스업	50.7%	45.8%	3.5%	29.2%	63.2%	7.6%	71.5%	26.4%	2.1%
전체		64.7%	31.6%	3.7%	35.4%	57.4%	7.1%	75.7%	21.3%	3.0%

[표 5-33]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2

		굿잡5060			시니어직업능력학교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성별	여성	84.8%	12.5%	2.6%	72.6%	25.7%	1.7%
	남성	81.2%	17.4%	1.4%	72.5%	24.4%	3.1%
연령 대	만19세-만25세	86.0%	12.9%	1.1%	78.5%	20.4%	1.1%
	만26세-만34세	87.7%	10.4%	1.8%	79.1%	17.8%	3.1%
	만35세-만44세	86.8%	10.8%	2.4%	75.4%	20.4%	4.2%
	만45세-만54세	85.9%	12.4%	1.7%	72.9%	26.6%	0.6%
	만55세 이상	61.0%	36.0%	3.0%	51.0%	46.0%	3.0%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82.4%	15.8%	1.8%	71.8%	24.7%	3.6%
	비정규직	84.8%	11.4%	3.8%	72.2%	26.6%	1.3%
	특고·프리랜서	82.8%	13.8%	3.4%	75.9%	22.4%	1.7%
	실업자, 취준 학생	92.1%	7.9%	0.0%	86.5%	13.5%	0.0%
	가사노동/주부	74.6%	23.8%	1.6%	58.7%	41.3%	0.0%
산업	제조업	78.4%	21.6%	0.0%	67.6%	29.7%	2.7%
	건설업	82.1%	15.4%	2.6%	76.9%	20.5%	2.6%
	생산자서비스업	80.8%	14.1%	5.1%	70.7%	23.2%	6.1%
	유통서비스업	83.9%	15.2%	0.9%	75.9%	22.3%	1.8%
	개인서비스업	92.8%	5.8%	1.4%	81.2%	17.4%	1.4%
	사회서비스업	81.3%	15.3%	3.5%	67.4%	29.2%	3.5%
전체		83.0%	15.0%	2.0%	72.6%	25.0%	2.4%

[표 5-34]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3

		내일행복학교			어르신아카데미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성별	여성	80.5%	18.1%	1.5%	80.2%	17.2%	2.6%
	남성	79.3%	19.0%	1.7%	80.4%	18.8%	0.8%
연령 대	만19세-만25세	84.9%	12.9%	2.2%	90.3%	8.6%	1.1%
	만26세-만34세	79.8%	19.0%	1.2%	84.0%	14.1%	1.8%
	만35세-만44세	79.6%	19.2%	1.2%	81.4%	16.8%	1.8%
	만45세-만54세	81.4%	18.1%	0.6%	79.7%	19.2%	1.1%
	만55세 이상	73.0%	23.0%	4.0%	64.0%	33.0%	3.0%
경제	정규직	77.4%	21.1%	1.5%	79.4%	18.8%	1.8%

		내일행복학교			어르신아카데미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활동 상태	비정규직	79.7%	19.0%	1.3%	79.7%	19.0%	1.3%
	특고·프리랜서	79.3%	17.2%	3.4%	82.8%	15.5%	1.7%
	실업자, 취준·학생	89.9%	10.1%	0.0%	91.0%	9.0%	0.0%
	가사노동/주부	82.5%	15.9%	1.6%	71.4%	25.4%	3.2%
산업	제조업	83.8%	13.5%	2.7%	86.5%	12.2%	1.4%
	건설업	79.5%	17.9%	2.6%	84.6%	15.4%	0.0%
	생산자서비스업	76.8%	21.2%	2.0%	74.7%	22.2%	3.0%
	유통서비스업	78.6%	20.5%	0.9%	82.1%	17.0%	0.9%
	개인서비스업	87.0%	11.6%	1.4%	81.2%	17.4%	1.4%
	사회서비스업	71.5%	26.4%	2.1%	77.1%	20.1%	2.8%
전체		79.9%	18.6%	1.6%	80.3%	18.0%	1.7%

○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필요도)는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대 흐름 반영(79.1%)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시설 확대 강화(76%) >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교육훈련 지원(75.8%) > 정부 및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사업 적극 홍보(75.6%) >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계좌제(비용) 지원(71%)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반조성 강화(69.8%) 등 순임.

[표 5-35]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필요	매우 필요	“필요함”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대 흐름 반영	1.6%	2.1%	17.1%	49.1%	30.0%	79.1%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시설 확대 강화	2.1%	2.1%	19.7%	50.6%	25.4%	76.0%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교육훈련 지원	1.3%	4.7%	18.1%	49.7%	26.1%	75.8%
정부 및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사업 적극 홍보	1.9%	3.6%	19.0%	53.6%	22.0%	75.6%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계좌제(비용) 지원	1.7%	3.6%	23.7%	45.1%	25.9%	71.0%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취약층 프로그램 확대	1.4%	5.7%	22.0%	49.3%	21.6%	70.9%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반조성 강화	1.6%	4.9%	23.9%	49.9%	19.9%	69.8%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지원	1.6%	5.3%	27.0%	43.9%	22.3%	66.2%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1.9%	5.9%	27.4%	44.4%	20.4%	64.8%
정부 직업·교육훈련 사업 개인 자부담 보조	2.6%	4.1%	29.1%	50.4%	13.7%	64.1%

[표 5-36] 주요 집단별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1

		전체	정부 직업·교육훈련 사업 개인 자부담 보조	정부 및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사업 적극 홍보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교육훈련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반조성 강화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취약층 프로그램 확대
성별	여성	73.8	69.2	75.9	75.4	72.2	74.1
	남성	69.4	65.1	69.4	72.0	68.7	67.9
연령 대	만19세-만25세	71.2	65.6	72.0	75.5	68.0	68.8
	만26세-만34세	67.2	64.0	69.8	68.1	66.1	65.8
	만35세-만44세	71.3	67.2	70.8	74.3	71.9	70.2
	만45세-만54세	73.4	68.8	73.2	76.3	71.3	73.2
	만55세 이상	76.6	70.8	79.5	75.5	75.5	78.8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70.5	67.0	71.3	71.9	69.0	68.8
	비정규직	76.5	69.3	74.4	80.1	76.3	77.2
	특고·프리랜서	74.0	69.8	76.7	78.0	72.0	78.9
	실업자, 취준 학생	69.9	64.9	71.6	73.6	69.4	67.4
	가사노동/주부	73.9	67.9	75.8	75.8	72.2	75.8
산업	제조업	71.7	68.6	73.0	69.6	71.3	70.9
	건설업	68.0	65.4	67.9	71.2	66.7	64.1
	생산자서비스업	67.9	64.9	69.2	72.5	66.7	65.4
	유통서비스업	72.4	67.4	71.0	74.6	70.1	71.7
	개인서비스업	73.1	68.1	75.4	76.8	72.5	75.7
	사회서비스업	73.8	69.8	75.0	74.5	72.7	73.6
전체		71.6	67.1	72.6	73.7	70.4	71.0

* 전혀 필요없음 0점 ~ 매우 필요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년 값임

[표 5-37] 주요 집단별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2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대 흐름 반영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시설 확대 강화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계좌제(비 용) 지원
성별	여성	70.9	69.9	78.4	77.0	75.3
	남성	69.1	68.0	73.6	70.7	69.7
연령 대	만19세-만25세	69.4	67.5	77.2	76.3	71.2
	만26세-만34세	64.4	63.5	74.2	68.1	67.6
	만35세-만44세	69.8	69.8	74.0	72.9	72.0
	만45세-만54세	72.5	71.6	76.3	75.6	75.1
	만55세 이상	75.8	73.0	80.5	78.8	77.5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69.3	68.2	75.1	72.3	71.9
	비정규직	77.2	75.6	78.5	78.5	77.5
	특고·프리랜서	69.4	69.4	76.3	75.4	74.1
	실업자, 취준 학생	67.4	66.3	77.8	71.9	68.3
	가사노동/주부	70.2	70.6	76.2	79.4	75.0
산업	제조업	70.9	70.9	76.7	72.6	72.3
	건설업	69.2	69.9	68.6	67.9	69.2
	생산자서비스업	64.4	64.6	72.5	69.7	68.9
	유통서비스업	72.8	70.5	78.1	74.3	73.9
	개인서비스업	68.8	65.9	75.4	76.8	75.7
	사회서비스업	73.1	71.7	77.8	75.7	74.5
전체		70.0	68.9	76.0	73.8	72.5

* 전혀 필요없음 0점 ~ 매우 필요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년 값임

6장. 요약 및 과제

1. 조사요약

(1) 서울시 교육훈련 제도화 현황

- 첫째, 서울시 교육훈련 조례는 7건(제정 2건, 미제정 5건)이며, 교육훈련 정책 관련 기본 계획 수립은 5건이었음. 반면 직업훈련 조례는 7건(제정 4건, 미제정 3건)이었고, 직업훈련 관련 기본계획 수립은 5건이며, 연구나 실태조사는 3건이었음. 직업훈련 관련 자문심의 위원회는 1개였고, 위원회 위원은 18명이었음.
- 둘째, 서울시 교육훈련 담당 부서 인원은 15명(전문채용인력 0명)이었고, 부서는 여성과 장애인 및 기타 부서(2곳)이었음. 서울지역 교육훈련 전담 팀은 2곳이었고, 전담인력을 갖춘 곳도 2곳이었음. 서울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부서 과업)는 10개였고, 연간 평균 사업비는 18억6천만원(수행 기관/시설 10곳: 민간 5곳, 보조금 2곳, 기타 1곳)이었음.
- 셋째, 서울시 교육훈련 중 취약층 프로그램은 여성 500개, 장애인 140개, 청년 13개이나 장애인은 전무했음. 특히 취약층 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대상 프로그램은 전무했고, 미취업자 대상만 174개가 운영되고 있었음(2021년 기준).
- 넷째, 서울지역의 시민 중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는 50,722명(2020년 기준)이고, 저소득층은 7.8%(3,999명), 중장년은 1.5%(797명)이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5개 취약 계층별 지원자는 476명이었는데, 이중 특수고용노동자는 115명, 건설일용직은 11명에 불과 했음(플랫폼노동 21년 신설).
- 다섯째, 서울지역의 시민 중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172,134명(여성 65.8%: 113,416명, 10대와 20대 청년층 37.4%: 64,539명, 50대 이상 중고령층 20.2%: 34,898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6.3%(10,859명)였음. 일반고 특화 훈련은 528명, 기업맞춤형 170명,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403명, 디지털 신기술 K-Digital 489명이었고, 기존 국가기간산업 직종은 14,650명이었음.

(2) 서울지역 취약집단 현황과 실태 분석

- 첫째, 서울지역 경제적 취약계층 유형별로는 저소득 임금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원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 서울지역 저소득 임금노동자 규모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현재 710천명으로 2008년 304천명보다 406천명(133.6%)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18.7%로 2008년 8.5%보다 10.2%p 증가하였음.
 - 감소: 서울지역 2019년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는 1,065천명으로 2011년 1,146천명보다 81천명(7.1%) 감소하였고, 비율은 2019년 11.0%로 2011년 11.4%보다 0.4%p 감소하였음. 여성 저소득 가구주 규모도 2020년 168천명으로 2008년 481천명보다 313천명(65.1%) 감소하였고, 비율은 2020년 4.1%로 2008년 13.0%보다 8.9%p 감소하였음.

- 둘째, 서울지역 고용 취약계층 중 비정규직/초단시간 노동자/고령노동자/미스매치 실업자는 증가하였으나, 단기계약직/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장시간 노동자/기후위기영향 노동자/장기 실업자는 감소하였음.
 - 증가: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1,362천명으로 2010년 1,045천명보다 317천명(30.3%) 증가하였고,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00천명으로 2008년 89천명보다 11천명(12.4%) 증가하였음. 고령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199천명으로 2008년 91천명보다 108천명(118.7%) 증가하였고, 비율은 2020년 5.3%로 2008년 2.5%보다 2.8%p 증가하였음. 미스매치 실업자 규모는 2020년 90천명으로 2008년 17천명보다 73천명(429.4%) 증가하였음.
 - 감소: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는 2019년 492천명으로 2010년 546천명보다 54천명(9.9%) 감소하였음. 단기계약직 노동자 규모는 2020년 718천명으로 2008년 1,108천명보다 390천명(35.2%) 감소하였음.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19년 67천명으로 2010년 111천명보다 44천명(39.6%) 감소하였음. 장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0년 168천명으로 2008년 837천명보다 669천명(79.9%) 감소하였음. 기후위기영향 노동자 규모는 2020년 4천명으로 2008년 9천명보다 5천명(55.6%) 감소하였음. 장기실업자 규모는 2020년 5천명으로 2008년 18천명보다 14천명(74.5%) 감소하였음.

- 셋째, 서울지역 건강 취약계층 중 만성질환자는 증가하였고, 낮은 건강상태인구/심리상태 우울증상자는 감소하였음.
 - 증가: 서울지역 만성질환자 규모는 2019년 3,839천명으로 2011년 3,147천명보다 692천명(22.0%) 증가하였고,

- 감소: 낮은 건강상태인구 규모는 2019년 931천명으로 2011년 948천명보다 17천명(1.8%) 감소하였고, 심리상태 우울증상자 규모는 2019년 1,543천명으로 2011년 1,605천명보다 62천명(3.9%) 감소하였음.
- 넷째, 서울지역 사회관계 취약집단 중 사회적자본 취약자/청소년가구주/교육훈련 미경험자는 증가하였고, 저학력저숙련 노동자/노동조합 미가입자/노사협의회 미운영사업장 종사자/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감소하였음.
- 증가: 사회적자본 취약자 규모는 2017년 2,637천명으로 2011년 2,299천명보다 338천명(14.7%) 증가하였고, 청소년가구주 규모는 2020년 10천명으로 2008년 8천명보다 2천명(25.0%) 증가하였음. 교육훈련 미경험규모는 2019년 369천명으로 2010년 252천명보다 117천명(46.4%) 증가하였음. 서울지역 노동조합 가입자 규모는 2019년 324천명으로 2010년 192천명보다 132천명(68.8%) 증가하였음.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종사자 규모는 2020년 428천명으로 2008년 346천명보다 82천명(23.7%) 증가하였음.
- 감소: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규모는 2020년 346천명으로 2008년 438천명보다 92천명(21.0%) 감소하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규모는 2019년 336천명으로 2010년 413천명보다 77천명(18.6%) 감소하였음.

(3)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와 인식 및 수요도 조사

- 첫째, 설문조사 응답자 중 15.6%가 현재 일자리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같은 직종 다른 일자리에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했음. 이 중 비정규직(29.1%), 사회서비스업(21.6%), 서비스·판매종사자(2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27.6%)는 현재 일자리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이 다른 일자리에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한편, 종사하고 있거나 지망하는 업무가 AI 등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가 “그렇다(약간 그렇다 39.1% + 매우 그렇다 15.9%)”고 응답했음
-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61.9%)는 지난 3년 취·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사노동/주부(81%)는 교육훈련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고, 개인서비스업(71%)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교육훈련 경험률이 낮음.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정보, 혹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55%)임.

- 셋째, 교육훈련 받은 기관(복수응답)은 정부 공공교육시설(21.3%) > 사설학원(20.2%)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19.5%) > 직업훈련법인(16.9%) > 서울시 교육시설(16.1%) 등 순임. 정규직은 정부 공공교육시설(20.5%)과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24%), 그리고 협회나 단체·연구소(18.7%) 비율이 높은 한편 비정규직은 서울시 교육시설(25.9%), 정부 공공교육시설(25.9%), 직업훈련법인(25.9%),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22.2%) 비율이 고루 높은 것으로 파악됨. 한편 교육훈련 받은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업무관리 분야(24.7%)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4.3%)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여성은 업무관리(28.3%)와 서비스 분야(20.5%) 비율이 높고 남성은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9.3%)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교육훈련 비용 부담(복수응답)은 다니는 회사 지원(47.6%) > 본인 부담(36%) >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30.7%) 서울시 지원(10.5%) 등 순임. 교육훈련 개인 지출 비용은 평균 17.4만원(1개 교육 기준)이고, 만19세-25세 청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이 교육훈련 위해 지출하는 비용(26.3만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실업자·취준·학생(26.7만원) 지출 비용이 높은 것과 연결됨. 지난 3년 자격증 취득한 응답자는 10명 중 2~3명(24.9%)이고, 자격증 취득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평균 27.6만원임. 만19세-25세(41.9%)와 만26세-34세(36.2%) 등 청년층이 가장 활발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희망 은퇴 연령대는 정년 연령(60세) 이후까지 일하기 희망하는 경우가 54.1%로 절반 수준임. 특히 비정규직(16.5%)과 특고·프리랜서(17.2%), 가사노동/주부(17.5%)의 경우 희망 은퇴 연령대 70대 비율이 높은 편임.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오래 일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임. 한편, 희망 연령대까지 한 곳의 일자리나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59.7%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 비율이 높으며, 남성(54.6%) 보다 여성(65%)이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여섯째,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31.7%)이 가장 높고, 자격증 공부(24%) > 외국어 공부(17.7%) > 진로정보탐색(17.6%) 등 순으로 나타났음.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음” 비율이 높은 한편, 청년층(만19세-25세 15.1%, 만26세-34세 19.6%)의 경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비율이 낮음.

- 일곱째, 교육훈련 이용이 용이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시설은 온라인(57.4%) > 서울일자리+센터(8%) > 고용복지플러스센터(7.6%) > 주민센터(6.4%) > 평생교육센터(5.9%) 등 순으로 나타났음. 가사노동/주부의 경우 온라인(39.7%) 비율이 낮고, 주민센터(28.6%)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연계 강화될 필요성 있음.
- 여덟째,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필요도)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대 흐름 반영(79.1%)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시설 확대 강화(76%) >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교육훈련 지원(75.8%) > 정부 및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사업 적극 홍보(75.6%) >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계좌제(비용) 지원(71%)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반조성 강화(69.8%) 등 순임.

[참조] 서울지역 취약계층 각 유형별 규모(2019년)

구분	취약계층	규모(천명)	구분	취약계층	규모(천명)
경제력	저소득임금노동자	820	건강	만성질환자	3,839
	저소득 가구원	1,065		낮은 건강상태	931
	여성 저소득 가구주	204		심리상태(우울)	1,543
고용	비정규직	1,362	사회적 자본	사회관계 취약집단(17년)	2,637
	프리랜서	492		청소년가구주	17
	단기계약직	811		저학력+저숙련 임금노동자	396
	5인미만 사업장종사자	67		교육훈련 미경험	369
	초단시간노동자	129		노동조합 가입자	324
	장시간 노동자	294		노사협의회 운영사업장	428
	고령 노동자	214		고용보험 미가입자	336
	기후위기 직접 산업 노동자	4			
	장기실업자	12.2			
	미스매치 실업자	80			

2. 정책 방향

- 고령화 및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과 직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훈련과 직업능력 향상 문제는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비임금노동자(독립취업자, 종속-의존적 노동자 등)로 구분되는 고용형태와 중고령층의 취약층 대상 교육훈련 문제가 사회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에서도 그동안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최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⁹⁾ 향후 정부 정책에서 평생학습 사회와 맞물린 교육훈련 정책 영역은 확대 강화 될 영역으로 판단됨.
- 최근 유럽연합(EU, 2020·2021)은 앞으로 의사소통과 협업이 빨라지고,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창출하고, 육체적 노동과 반복적 과업은 로봇과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취약층 자신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지원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음. 실제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중장년 세대, 저임금(저학력) 노동자 등 노동취약층의 경우 학습기회가 제약되는 것임.
- 결국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이는 노동시장의 주체(일하는 시민)가 ‘이행의 이익이 되도록’(making transitions pay)하는 교육훈련 전략을 모색해야 함. 결국 기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다른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activating labor market policy)을 활용하되, 생애주기 경력 모형에 따라 직업능력향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역량강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 기존 주요 업종과 지역별 산업기반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숙련체계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 특히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동하는 것은 1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제공되고 정부의 특화된 교육기

9) 국제노동기구(ILO, 1998)는 직업훈련을 직장과 사회에서의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숙련개발 과정,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숙련은 교육, 훈련, 경험을 비롯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적 능력을 의미함.

관 선정 또는 설치, 형식적 지원(내일배움카드 등)에서 확인된바 있음.

[참조] 고용노동부 국민평생교육 방향 사업(안, 2021.9.9)



○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응한 직업교육이 평생학습 사회라는 정책 방향과 숙련형성을 함께 모색해야 함. 향후 일자리와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산업 및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 유럽(EU)은 디지털 교육 비전에 대한 질문색션은 디지털 교육의 주요 목표와 세부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유럽연합은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있음.

유럽연합(EU) '디지털 교육 지원 항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및 지도 • 연결 및 인프라(예: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고속 인터넷) •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제공 • 디지털 교육 전략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지원 • 고품질의 온라인 리소스-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 • 모범 사례 및 동료 학습의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개발 • 디지털 기술 및 역량 평가 및 인증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기술 및 역량 프레임 워크 구축 •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거나 외딴 지역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전용 조치 • 교육 및 훈련 기관 / 조직과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 • 기타(아래에 명시) • 해당사항 없음
--	---

10)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53-Digital-Education-Action-Plan/public-consultation>

- 일반적 수준에서는 노동자 및 취약층의 직업능력향상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 및 지방정부가 유관 시설 및 센터 및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진행하는 것임. 교육훈련의 연구개발은 국립대학교를 활용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민간영역의 기존 인프라는 협력(MOU)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전략분야 및 중소기업재직자를 위한 공동교육훈련장으로 운영되는 ‘공동훈련센터’(대·중·소·상생형 66개, 전략형 73개)는 전면 개편(운영방식, 산업업종 및 참여대상 등)하여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모색해야 함.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에 따라 일정하게 인센티브(세액 공제)를 검토해야 함.¹¹⁾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교육훈련은 운영 필요성이 높은 영역 중 하나임.

[핀란드 직업교육 전달체계 사례] 역량센터 운영모델 인트로(Osaamiskeskus Intro)¹²⁾

마리따 빌야넨(Marita Viljanen) 교사는 역량센터 운영모델 인트로(Intro)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모델은 개인의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고려해 일터학습으로의 전환하는 기간에 다양한 학습환경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일터 학습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의 다양한 영역과 단계에서 교육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빌야넨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유튜브 비디오와 팟 캐스트 제작 워크숍을 한 후, 학생들은 제작실에서 구직하는 데 도움이 될 비디오 이력서를 스스로 만들었다. 올해 가을부터 교육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공통역량자격시험(Yhteiset tutkinnot, YTO)을 치를 수 있다). 또한 빌야넨은 비즈니스 협력기업들과 함께 스타트업 하우스(Starttaamo)를 개발했다. 스타트업 하우스는 학생의 기업가적 기술과 태도를 강화하여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운영모델은 학생들의 학업 기간에 기업이 정신과 일터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팀 프로젝트 작업을 위한 캠퍼스의 공동 작업공간에는 전공교사가 있으며, 학생들을 지원하는 강사도 따로 있다.

- 교육훈련 기관, 시설, 센터는 단순 직업능력향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업종과 지역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그 효과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증장기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노사참여형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이와 같은 주요 사례는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모델 이외에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의 도심 일자리 프로젝트나 오스트리아 빈의 노동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¹³⁾

11) 한편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비임금노동자) 이외에 중소기업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년 간 직업훈련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 우수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음. 총 58개 훈련기관과 1,089개의 훈련과정이 선정되었고, 21년 연말까지 500개 기업으로 확대 예정임.

12) 직업자격은 총 180학점으로 구성됨. 이 가운데 공통필수역량은 총 35학점(Osaamispistetta, OSP)이며 모든 기본직업자격에 의무적으로 포함됨. 자격의 공통필수역량 부분은 필수 26학점과 선택 9학점으로 영역마다 역량목표가 기술되어 있음. 공통필수역량(26 학점)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기술(11학점), 수학·과학 능력(6학점), 사회와 직무생활 기술(9학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선택영역 9학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선택 영역은 하나 이상의 자격 취득 시에 학습결과와 일부로 인정됨(이동섭, 2020).

13) 오스트리아 빈 ‘노동지원센터’(Arbeitsmarktservice)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1) 여성비율이 낮은 업종의 직업훈련과정 여성이 주되게 참여하고 있고, (2) 불이익을 받는 직업훈련 구직자나 (3) 직업훈련기간이 연장된 직업훈련생이 주요 대상임.

-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시(130만명, 면적 181.67km²)는 2017년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도시에서의 디지털 제조업 경제를 위한 “Manifattura Milano”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 교외에 제조 기업 투자를 지자체에서 지원(이해당사자 참여, 학교와 학생 참여 등)하는 것인데, 단순 일자리와 교육훈련만이 아니라, 도시의 좋은 일자리(노동조건 데이터 수집과 판단)를 목표로 진행된 것이 핵심임.
- 향후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제도는 프랑스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기활동계좌제(직업훈련 및 자기활동) 방식으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이는 국민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교육훈련 수당(학습수당, 연간 35만원~50만원)을 지급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변화되어야 함.¹⁴⁾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기관(전달체계 : 기술교육원, 50플러스센터, 여성개발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개편과 프로그램 및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기업 지원 중심의 교육훈련제도에서 탈피하여, 노동자 당사자 지원 중심의 학습역량 강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임. 또한 개인의 희망과 적정 욕구에 기반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재양성이나 민간위탁 방식의 교육훈련을 개편하고, 개별 사업체에서 노동자의 교육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습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전환 대비 역량 개발과 활용 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NCS 개편 등)도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는 핀란드의 프로그램 가운데 ‘2020~2022 직업교육훈련의 질(laatu)과 평등(tasa-arvo)을 참조할 수 있음(이동섭, 2020).¹⁵⁾
- 2021년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훈련 경험이나 기회 및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고, 정부 및 서울시 프로그램 인지도나 이용도가 낮은 반면에 향후 기술과정에서의 불안감(55%)이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성(59.7%)을 인식하고 있음. 조사 결

14) 오스트리아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청년에게 사업장 밖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산학교(Produktionsschule)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프로그램 참여 청년은 의무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의 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을 통한 노동시장에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음.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설계된 지원제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진로상담,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별적인 도움 등을 주는 것임. 생산학교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15) 의무교육을 후기중등교육까지 연장하고 평생학습을 개혁하여, 나뉜 영역과 기관을 통합하는 양대 핵심정책의 법안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우선, 교육평등을 강화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직업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음. 실행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2030 비전, 유아교육과 기본교육에 대한 질과 평등 개선 프로그램, 후기중등교육 질 개선 프로그램,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및 정부의 고용대책 프로그램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

- 과 61.9%의 시민은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이 없고(15-24세 64.5%),
- 주된 사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8.6%), 교육 정보 부재(27.9%)나 적합한 프로그램 부재(24%) 등이 었음. 이런 이유로 교육훈련 전담 시설 필요성(84.9%) 인식이 높았으나, 서울시 이용 경험은 일자리 +센터(7.1%), 서울기술교육원(3.7%), 청년 대상 무중력 지대(3%), 시니어직업능력학교(2.4%), 굿잡5060(2%), 어르신아카데미(1.7%), 내일행복 학교(1.6%) 순에 그쳤음.
 - 서울시민들의 교육훈련 유경험자도 2.6회(교육기간 5.7개월) 정도에 그쳤고, 서울시 유관 시설 이용자는 16.4% 정도에 불과 했음. 그나마 업무 관련 분야(24.7%)와 정보통신(24.3%)이 대부분이었음. 정부 지원 훈련은 재직자(27.7%), 고용촉진(17%), 신규 졸업자 대상(13.4%) 등이었음. 교육훈련 비용은 주로 회사(46.6%)와 본인부담(36%)이 많았고, 평균 교육훈련 비용은 27.6만원이었음. 반면 현재 진로 설계 준비 등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비율이 31.7%나 되었고, 그나마 어학 공부(17.7%)를 제외하면 미흡한 현실임.

[참조] 전국 및 서울 비임금노동자, 사업소득자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규모

구분	정부 통계 '비임금 노동자' 규모 분석			규모 추계 조사 자료 서울시 규모 추정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	취업자 중 사업소득자	취업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서울 규모	91만6천명 (13.4%)	150만5천명 (24.55%)	52만6천명 (13.1%)	40만2천명 (18.2%)	47만명 (25.8%)
조사 시기	2018	2018	2018	2018	2020

자료: 김종진(2020). 『서울지역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결국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보면 현재 일반적 교육훈련 이외에 노동자 대상 직업훈련 제도화(조례, 정책, 전담기구, 전달체계,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를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직업훈련 조례나 자문기구가 미약하거나 전무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단 1개도 없는 현실임. 서울지역 저소득 노동자가 71만명이고, 비정규직이 1,362천명(단기계약직 71만8천명)이나 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만7천명), 초단시간 노동자 10만명,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16만8천명, 장기 실업자 5천명이나 됨.
- 게다가 저학력·저숙련 노동자가 34만6천명이고 교육훈련 미경험자가 36만9천명, 고용보험 미가입자 33만6천명이나 되기에 법제도의 사각지대 노동자가 많은 상황임. 프리랜서(52만6천명) 및 플랫폼노동자 47만명, 특수고용노동자 40만2천명 등 비임금노동자 중 사업소득자가 150만5천명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한 교육훈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독일 쾰른시 직업훈련 사례 - 콜센터 상담 사례]*

□ 개요 - 독일 콜센터 직업훈련

○ 콜센터 숙련인력 양성 직업훈련과정

- 대화마케팅 위한 직업훈련(Berufsausbildung im Dialogmarketing)

○ 콜센터 숙련인력 홍보 주요 내용

- 대화 마케팅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의 교육 직업과 대화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어시스턴트를 통해 콜센터 서비스 제공업체 및 통합 서비스 단위를 보유한 기업은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 대화 전문가와 자격을 갖춘 주니어는 구체적 필요 따라 교육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견습생 운영.

대화 마케팅 서기

직무 제목 및 학위
 교육 기간 및 조직
 전제 조건
 인터넷
 주제 / 학습 분야
 교육 프로필
 추가 자격 / 인증서 / 선택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견습 기간 동안 추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는 능력 (B1-C2)의 여러 수준에서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KMK 시험에 참여를 제공합니다.
- 최고의 사금의 일환으로 GATE 프로그램을 통해 bkaI이 배치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인턴십 직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또한 유럽 컴퓨터 운전 면허증 (ECDL)의 모듈을 완료 할 수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FHR을 획득하고 "직업 제목과 학위"라는 링크에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
 우리를 구별하는 것
 교육 과정의 활동
 연락처
 등록 절차 및 등록

□ 훈련 과정 - 이원화된 숙련훈련 과정

○ 이원 과정

- 1) 대화마케팅 서비스인력 (2년 코스)
- 2) 대화마케팅 사무관리직 양성과정 (3년 코스)

<https://callcenter-verband.de/themen/ausbildung/berufsausbildung-im-dialogmarketing/>

○ 참여기관

- 협회와 대화마케팅업종 교육훈련 연대(Bündnis für Ausbildung im Dialogmarketing) 별도 관련 협회 연합조직을 만듦.
- 독일콜센터협회, 독일대화마케팅협회, 쾰른시 직업학교,* CC-CLUB, 및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주도,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상공회의소 및 직업훈련을 위한 독일경제이사회 등이 자문기관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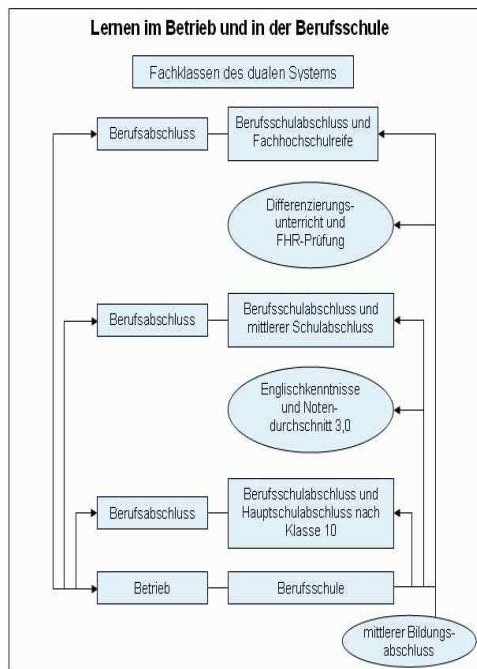
□ 쾰른시 교육훈련 주요 내용

○ 2년과 3년 과정 코스

[2년 코스] "대화 마케팅 서비스인력

[3년 코스] "대화 마케팅 서비스 전문가

: 대화 마케팅 서비스 전문가로 2년 계약을 시작하면 3년을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교육을 완료한 경우 대화 마케팅 담당자가 될 수 있음.



- 이원화과정은 직업훈련은 학교에서 이론과정 학습 받고, 동시에 관련 분야의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이수하는 전통적인 독일의 직업훈련방식.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매년 5월 실시되는 독일상공회의소 쾰른지부의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자에게는 공인 자격증이 발급

- 대화마케팅 서비스인력과 대화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직 양성과정도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으로 구분되어 진행. 대화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직 양성과정의 이론교육은 크게 커뮤니케이션과정, 프로젝트관리, 경제 및 사회 등의 영역으로 구분

* 쾰른시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 홈페이지 주요 내용 재구성
<https://www.bkal.de/dialogmarketing>

○ 교육활동 과정

- 디지털화는 성공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만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이 필요. 베루프스콜레그 안 데르 린덴슈트라세(Berufskolleg a der Lindenstraße)가 창립 멤버인 대화 마케팅 교육 연맹은 7월 2일 "챗봇과 인공지능-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라는 모토아래 인사 및 교육 관리자를 위한 심포지엄을 조직.

전문 세계와의 디지털 만남 - 프로젝트 "눈 높이에서 경력 지도"가 한창입니다!



[참조] 쾰른시 대화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직 훈련과정 프로그램

	학습분야1	학습분야2	학습분야3	학습분야4	학습분야5
1년차	60시간 대화마케팅 직업훈련 소개	60시간 대화마케팅 서비스 분석 및 비교	80시간 고객과의 소통	40시간 즉각적 대화법 DB활용 정보처리	80시간 대화마케팅 고객 관리
2년차	학습분야6 40시간 고객상담	학습분야7 60시간 기업성과를 위한 프로젝트의 경영경제적 평가	학습분야8 80시간 고객창출과 판매상담	학습분야9 100시간 대화마케팅 기획, 실행 및 문서화	
3년차	학습분야10 80시간 인력배치와 인력관리	학습분야11 80시간 대화마케팅 사업의 성공적 관리	학습분야12 40시간 과업수행의 질 관리 및 최적화	학습분야13 80시간 대화마케팅업종의 서비스 상품화	

<참고문헌>

- 김인엽 외(2021),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종진(2021a),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KLSI 이슈페이퍼 2021-15》, 제15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2021b),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와 특징」,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의 원실.
- 김종진 외(2021), 『미래의 노동』, 서울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철희·백원영·김문길 외(2020),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남재욱(2021),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능력 관련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 내부 발표자료.
- 반가운(2013), 「사업주 직업훈련제도가 교육훈련투자 성과를 촉진하는가: 기업규모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6권 제2호. 노동경제학회.
- 서유정·이재열 외(202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섭(2020),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미래직업교육훈련」,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오호영(2021),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와 보상의 성별 격차」, 《노동정책연구》, 제21권 1호, 한국노동연구원.
- 안전화(2016), 「숙련형성 시스템의 동학과 분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상준(2021), 「AI 시대에 대비한 고용과 교육훈련의 뉴 노멀 - 고용(Employment) 기반 사회에서 일(Work) 기반 사회로의 전환」,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동렬(202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 내부 발표자료.
- 통계청(2020),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220.12.29.)

[부록] 서울지역 교육훈련 실태와 인식 및 수요도 조사: 직업별

[부표 1] 현재 일자리 근속

		근속						평균 근속 (년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	11년차- 15년차	16년차 이상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24 12.6%	48 25.3%	34 17.9%	18 9.5%	23 12.1%	43 22.6%	9.6
사무종사자 (235)	빈도 %	38 16.2%	58 24.7%	48 20.4%	33 14.0%	33 14.0%	25 10.6%	7.4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18 25.7%	24 34.3%	7 10.0%	9 12.9%	5 7.1%	7 10.0%	6.1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15 31.9%	19 40.4%	7 14.9%	2 4.3%	2 4.3%	2 4.3%	4.2
전체 (542)	빈도 %	95 17.5%	149 27.5%	96 17.7%	62 11.4%	63 11.6%	77 14.2%	7.7

[부표 2] 총 일자리 경력

		경력						평균 근속 (년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	11년차- 15년차	16년차 이상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7 3.7%	27 14.2%	36 18.9%	16 8.4%	32 16.8%	72 37.9%	14.3
사무종사자 (235)	빈도 %	25 10.6%	33 14.0%	43 18.3%	37 15.7%	40 17.0%	57 24.3%	10.8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8 11.4%	15 21.4%	10 14.3%	14 20.0%	11 15.7%	12 17.1%	9.2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8 17.0%	14 29.8%	10 21.3%	5 10.6%	1 2.1%	9 19.1%	8.4
전체 (542)	빈도 %	48 8.9%	89 16.4%	99 18.3%	72 13.3%	84 15.5%	150 27.7%	11.6

[부표 3] 지난 3개월 주된 일 통한 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7	9	13	24	23	32	28	54
	%	3.7%	4.7%	6.8%	12.6%	12.1%	16.8%	14.7%	28.4%
사무종사자 (235)	빈도	4	9	32	46	32	51	25	36
	%	1.7%	3.8%	13.6%	19.6%	13.6%	21.7%	10.6%	15.3%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10	7	10	17	11	9	4	2
	%	14.3%	10.0%	14.3%	24.3%	15.7%	12.9%	5.7%	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7	4	6	8	8	12	2	0
	%	14.9%	8.5%	12.8%	17.0%	17.0%	25.5%	4.3%	0.0%
전체 (542)	빈도	28	29	61	95	74	104	59	92
	%	5.2%	5.4%	11.3%	17.5%	13.7%	19.2%	10.9%	17.0%

[부표 4] 사업장(일터) 속성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업장 규모 무관)	민간부문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부문 30~300인 미만 사업장	민간부문 5~30인 미만 사업장	민간부문 5인 미만 사업장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20	42	38	49	41
	%	10.5%	22.1%	20.0%	25.8%	21.6%
사무종사자 (235)	빈도	31	65	74	39	26
	%	13.2%	27.7%	31.5%	16.6%	11.1%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6	13	12	18	21
	%	8.6%	18.6%	17.1%	25.7%	3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5	4	19	14	5
	%	10.6%	8.5%	40.4%	29.8%	10.6%
전체 (542)	빈도	62	124	143	120	93
	%	11.4%	22.9%	26.4%	22.1%	17.2%

[부표 5]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 대상이 안 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했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38	16	18	18
	%	72.6%	8.4%	9.5%	9.5%
사무종사자 (235)	빈도	160	25	18	32
	%	68.1%	10.6%	7.7%	13.6%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61	1	1	7
	%	87.1%	1.4%	1.4%	1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37	1	6	3
	%	78.7%	2.1%	12.8%	6.4%
전체 (542)	빈도	396	43	43	60
	%	73.1%	7.9%	7.9%	11.1%

[부표 6] 현재 일자리 습득 지식·기술 유용성 인식

		현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	부분적으로만 유용	거의 쓸모가 없음	특별한 기술, 지식 습득 가능 일자리 아님	유용함*	유용하지 않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110 57.9%	62 32.6%	15 7.9%	3 1.6%	172 90.5%	18 9.5%
사무종사자 (235)	빈도 %	89 37.9%	109 46.4%	28 11.9%	9 3.8%	198 84.3%	37 15.7%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27 38.6%	27 38.6%	9 12.9%	7 10.0%	54 77.1%	16 2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21 44.7%	13 27.7%	5 10.6%	8 17.0%	34 72.3%	13 27.7%
전체 (542)	빈도 %	247 45.6%	211 38.9%	57 10.5%	27 5.0%	458 84.5%	84 15.5%

[부표 7] 지난 3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받아본 경험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받아본 적이 없다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70 36.8%	18 9.5%	102 53.7%
사무종사자 (235)	빈도 %	86 36.6%	9 3.8%	140 59.6%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20 28.6%	5 7.1%	45 64.3%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13 27.7%	3 6.4%	31 66.0%
전체 (542)	빈도 %	189 34.9%	35 6.5%	318 58.7%

[부표 8] 교육받지 못한 주된 이유 (1순위+2순위)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받고 싶은 교육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급전적 여유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정보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원하는 교육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교육장소 너무 멀어서	기타
관리자·전문가 (102)	빈도 %	47 46.1%	24 23.5%	42 41.2%	15 14.7%	20 19.6%	19 18.6%	3 2.9%	4 3.9%
사무종사자 (140)	빈도 %	40 28.6%	38 27.1%	61 43.6%	25 17.9%	36 25.7%	33 23.6%	3 2.1%	1 .7%
서비스·판매종사자 (45)	빈도 %	12 26.7%	12 26.7%	18 40.0%	11 24.4%	14 31.1%	7 15.6%	1 2.2%	0 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31)	빈도 %	15 48.4%	5 16.1%	10 32.3%	8 25.8%	6 19.4%	4 12.9%	1 3.2%	1 3.2%
전체 (318)	빈도 %	114 35.8%	79 24.8%	131 41.2%	59 18.6%	76 23.9%	63 19.8%	8 2.5%	6 1.9%

[부표 9] 지난 3년 경험한 교육훈련 횟수

		교육 훈련 횟수				평균 교육 훈련 수 (개)
		1개	2개	3-5개	6개 이상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42	15	23	8	2.7
	%	47.7%	17.0%	26.1%	9.1%	
사무종사자 (95)	빈도	36	24	28	7	2.9
	%	37.9%	25.3%	29.5%	7.4%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13	6	4	2	2.2
	%	52.0%	24.0%	16.0%	8.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7	2	5	2	3.4
	%	43.8%	12.5%	31.3%	12.5%	
전체 (224)	빈도	98	47	60	19	2.8
	%	43.8%	21.0%	26.8%	8.5%	

[부표 10] 교육훈련 받은 기관 (1순위+2순위)

		사설학원	직업훈련 법인	서울시 교육시설	정부 공공교육 시설	공공직업 훈련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복지관, 구청	통신 교육 기관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12	20	15	24	13	17	9	23	1	4
	%	13.6%	22.7%	17.0%	27.3%	14.8%	19.3%	10.2%	26.1%	1.1%	4.5%
사무종사자 (95)	빈도	24	12	11	21	11	24	10	14	1	9
	%	25.3%	12.6%	11.6%	22.1%	11.6%	25.3%	10.5%	14.7%	1.1%	9.5%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4	1	6	4	5	6	5	0	2	3
	%	16.0%	4.0%	24.0%	16.0%	20.0%	24.0%	20.0%	0.0%	8.0%	12.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2	4	7	2	4	0	1	2	0	2
	%	12.5%	25.0%	43.8%	12.5%	25.0%	0.0%	6.3%	12.5%	0.0%	12.5%
전체 (224)	빈도	42	37	39	51	33	47	25	39	4	18
	%	18.8%	16.5%	17.4%	22.8%	14.7%	21.0%	11.2%	17.4%	1.8%	8.0%

[부표 11]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교육훈련 받은 시기					평균 교육 기간 (주)
		현재 교육훈련 받고 있음	최근 6개월 이내 받음	6개월-1년 이내 받음	1년-2년 이내 받음	2년-3년 이내 받음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11	28	21	25	30	5.4
	%	12.5%	31.8%	23.9%	28.4%	34.1%	
사무종사자 (95)	빈도	11	25	19	19	41	6.8
	%	11.6%	26.3%	20.0%	20.0%	43.2%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1	4	13	5	5	8.0
	%	4.0%	16.0%	52.0%	20.0%	2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4	2	4	1	7	5.2
	%	25.0%	12.5%	25.0%	6.3%	43.8%	
전체 (224)	빈도	27	59	57	50	83	6.3
	%	12.1%	26.3%	25.4%	22.3%	37.1%	

[부표 12]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 관리자·전문가

	분야	비율 (%)
관리자 전문가 (88)	업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26.1%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25.0%
	서비스 분야 (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14.8%
	의료분야 (물리치료, 간호 등)	11.4%
	건설분야 (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6.8%

[부표 13]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 사무종사자

	분야	비율 (%)
사무 종사자 (95)	업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36.8%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31.6%
	서비스 분야 (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7.4%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	7.4%
	어학분야	7.4%

[부표 14]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 서비스·판매종사자

	분야	비율 (%)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	서비스 분야 (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28.0%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16.0%
	기계·장비 분야 (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12.0%
	의료분야 (물리치료, 간호 등)	12.0%
	업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8.0%

[부표 15] 교육훈련 받은 분야 (상위 5개) - 기능·단순노무종사자

	분야	비율 (%)
기능· 단순 노무 종사자 (16)	전기·전자 분야 (기계 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18.8%
	건설분야 (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18.8%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12.5%
	의료분야 (물리치료, 간호 등)	12.5%
	업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12.5%

[부표 16] 교육훈련 성격 (1순위+2순위)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정부지원훈련	서울시 지원훈련	개인선택 교육훈련	기타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	31 35.2%	43 48.9%	9 10.2%	28 31.8%	2 2.3%
사무종사자 (95)	빈도 %	49 51.6%	29 30.5%	12 12.6%	26 27.4%	1 1.1%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	9 36.0%	4 16.0%	7 28.0%	8 32.0%	3 12.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	2 12.5%	6 37.5%	3 18.8%	6 37.5%	0 0.0%
전체 (224)	빈도 %	91 40.6%	82 36.6%	31 13.8%	68 30.4%	6 2.7%

[부표 17] 교육훈련 성격: 회사 시행 업무능력 향상 훈련

		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등 현장에서 받는 훈련(OJT)	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이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받는 직업 훈련(OFF-JT)	인터넷이나 우편 등 통신을 이용한 훈련 (e-learning, 우편통신훈련 등)
관리자전문가 (31)	빈도 %	13 41.9%	12 38.7%	10 32.3%
사무종사자 (49)	빈도 %	16 32.7%	19 38.8%	17 34.7%
서비스·판매종사자 (9)	빈도 %	2 22.2%	1 11.1%	6 66.7%
기능·단순노무종사자 (2)	빈도 %	1 50.0%	1 50.0%	1 50.0%
전체 (91)	빈도 %	32 35.2%	33 36.3%	34 37.4%

[부표 18] 교육훈련 성격: 정부지원 훈련

		기능사 양성 훈련 또는 정부위탁훈 련	실업자 재취직 훈련(고용보 험사업장 이직자)	고용촉진훈 련(주부 등 기타 실업자)	재직자 훈련	취업훈련(신 규학교 졸업자)	근로자수강 지원금	잘 모르겠음
관리자전문가 (43)	빈도 %	8 18.6%	3 7.0%	10 23.3%	19 44.2%	2 4.7%	4 9.3%	3 7.0%
사무종사자 (29)	빈도 %	2 6.9%	8 27.6%	3 10.3%	9 31.0%	4 13.8%	3 10.3%	2 6.9%
서비스·판매종사자 (4)	빈도 %	2 50.0%	0 0.0%	0 0.0%	1 25.0%	0 0.0%	0 0.0%	1 25.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6)	빈도 %	2 33.3%	1 16.7%	0 0.0%	1 16.7%	1 16.7%	0 0.0%	2 33.3%
전체 (82)	빈도 %	14 17.1%	12 14.6%	13 15.9%	30 36.6%	7 8.5%	7 8.5%	8 9.8%

[부표 19] 교육훈련 성격: 서울시 지원 훈련

		청년인생 설계학교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직업훈련	서울일자리+ 센터 교육훈련	긱잡5060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 직업능력 학교	기타	잘 모르겠음
관리자전문가 (9)	빈도	0	1	2	1	0	2	3
	%	0.0%	11.1%	22.2%	11.1%	0.0%	22.2%	33.3%
사무종사자 (12)	빈도	1	3	7	0	0	0	1
	%	8.3%	25.0%	58.3%	0.0%	0.0%	0.0%	8.3%
서비스·판매종사자 (7)	빈도	1	0	3	0	2	1	1
	%	14.3%	0.0%	42.9%	0.0%	28.6%	14.3%	14.3%
기능·단순노무종사자 (3)	빈도	0	0	2	0	0	0	1
	%	0.0%	0.0%	66.7%	0.0%	0.0%	0.0%	33.3%
전체 (31)	빈도	2	4	14	1	2	3	6
	%	6.5%	12.9%	45.2%	3.2%	6.5%	9.7%	19.4%

[부표 20] 교육훈련 주된 목적 (1순위+2순위)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9	11	67	12
	%	10.2%	12.5%	76.1%	13.6%
사무종사자 (95)	빈도	3	23	72	10
	%	3.2%	24.2%	75.8%	10.5%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2	6	16	3
	%	8.0%	24.0%	64.0%	12.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0	6	7	4
	%	0.0%	37.5%	43.8%	25.0%
전체 (224)	빈도	14	46	162	29
	%	6.3%	20.5%	72.3%	12.9%

[부표 21] 교육훈련 받은 이유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서	상사 등의 권유로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7	16	54	19	15
	%	8.0%	18.2%	61.4%	21.6%	17.0%
사무종사자 (95)	빈도	10	28	57	5	17
	%	10.5%	29.5%	60.0%	5.3%	17.9%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0	7	9	5	10
	%	0.0%	28.0%	36.0%	20.0%	4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0	5	10	3	2
	%	0.0%	31.3%	62.5%	18.8%	12.5%
전체 (224)	빈도	17	56	130	32	44
	%	7.6%	25.0%	58.0%	14.3%	19.6%

[부표 22] 교육훈련 비용 부담 (1순위+2순위) 평균 개인지출 비용

		교육훈련 비용 부담						교육훈련 개인 평균 지출 비용 (만원)
		본인 부담	부모님이나 가족·친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	정부에서 지원 (국민내일배 움카드)	서울시에서 지원	기타	
관리자·전문가 (88)	빈도 %	26 29.5%	3 3.4%	48 54.5%	26 29.5%	8 9.1%	7 8.0%	21.5
사무종사자 (95)	빈도 %	34 35.8%	1 1.1%	55 57.9%	27 28.4%	6 6.3%	3 3.2%	13.4
서비스·판매종사자 (25)	빈도 %	10 40.0%	1 4.0%	12 48.0%	7 28.0%	6 24.0%	1 4.0%	9.6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6)	빈도 %	7 43.8%	0 0.0%	7 43.8%	4 25.0%	3 18.8%	0 0.0%	11.6
전체 (224)	빈도 %	77 34.4%	5 2.2%	122 54.5%	64 28.6%	23 10.3%	11 4.9%	16.0

[부표 23] 지난 3년 자격증 취득 여부(좌), 평균 자격증 취득 개인지출 비용(우)

		지난 3년 자격증 취득 여부		평균 자격증 취득 지출 비용 (만원)
		있다	없다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50 26.3%	140 73.7%	관리자·전문가 (50) 40.4
사무종사자 (235)	빈도 %	55 23.4%	180 76.6%	사무종사자 (55) 15.5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13 18.6%	57 81.4%	서비스·판매종사자 (13) 30.6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12 25.5%	35 74.5%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2) 26.7
전체 (542)	빈도 %	130 24.0%	412 76.0%	전체 (304) 27.5

[부표 24] 지난 3년 취득한 자격증 종류

		국가자격증						민간 자격증 (TEPS, 번역사, 정보검색사 증권분석사 등)	국제(외국) 자격증 (TOEIC, TOEFL, 국제재무분 석사 등)	잘 모름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국가기 술자격 1급)	기능사 (국가기 술자격 2급)	기타*			
관리자·전문가 (50)	빈도 %	5 10.0%	7 14.0%	4 8.0%	6 12.0%	10 20.0%	8 16.0%	11 22.0%	10 20.0%	3 6.0%
사무종사자 (55)	빈도 %	2 3.6%	13 23.6%	1 1.8%	4 7.3%	9 16.4%	7 12.7%	14 25.5%	8 14.5%	8 14.5%
서비스·판매종사자 (13)	빈도 %	0 0.0%	0 0.0%	0 0.0%	0 0.0%	2 15.4%	2 15.4%	5 38.5%	2 15.4%	3 23.1%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2)	빈도 %	4 33.3%	4 33.3%	1 8.3%	0 0.0%	1 8.3%	0 0.0%	1 8.3%	5 41.7%	0 0.0%
전체 (304)	빈도 %	11 8.5%	24 18.5%	6 4.6%	10 7.7%	22 16.9%	17 13.1%	31 23.8%	25 19.2%	14 10.8%

* 기타 국가 자격증: 의사, 교사, 변호사, 회계사 등

[부표 25] 자격증 취득 주된 목적 (1순위 +2순위)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타
		관리자·전문가 (50)	빈도 %	4 8.5%	15 31.9%	16 34.0%
사무종사자 (55)	빈도 %	1 2.1%	12 25.5%	19 40.4%	15 31.9%	2 4.3%
서비스·판매종사자 (13)	빈도 %	1 10.0%	4 40.0%	0 0.0%	5 50.0%	0 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2)	빈도 %	1 8.3%	4 33.3%	4 33.3%	4 33.3%	0 0.0%
전체 (304)	빈도 %	7 6.0%	35 30.2%	39 33.6%	39 33.6%	4 3.4%

* 기타: 미래준비, 취미, 자기만족, 장학금, 해외봉사활동 위해

[부표 26] 종사·지방 업무 일자리 전망: 새로운 기술 도입 인한 일자리 대체·감소

		일자리 전망					평균 점수 (100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0	62	36	63	19	52.5
	%	5.3%	32.6%	18.9%	33.2%	10.0%	
사무종사자 (235)	빈도	9	45	47	89	45	62.3
	%	3.8%	19.1%	20.0%	37.9%	19.1%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10	7	9	32	12	60.4
	%	14.3%	10.0%	12.9%	45.7%	17.1%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4	13	9	11	10	55.3
	%	8.5%	27.7%	19.1%	23.4%	21.3%	
전체 (542)	빈도	33	127	101	195	86	58.0
	%	6.1%	23.4%	18.6%	36.0%	15.9%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낸 값임

[부표 27] 희망 은퇴 연령대, 은퇴까지 일자리 고정 전망

		희망 은퇴 연령대						희망 연령대까지 일자리 한 곳 전망 “아니오”
		40대-50대	60세(정년 연령)	61세-65세	66세-69세	70대	80대 이상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26	53	40	44	17	10	90
	%	13.7%	27.9%	21.1%	23.2%	8.9%	5.3%	
사무종사자 (235)	빈도	32	80	54	33	26	10	139
	%	13.6%	34.0%	23.0%	14.0%	11.1%	4.3%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11	15	21	9	9	5	49
	%	15.7%	21.4%	30.0%	12.9%	12.9%	7.1%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7	6	19	10	3	2	29
	%	14.9%	12.8%	40.4%	21.3%	6.4%	4.3%	
전체 (542)	빈도	76	154	134	96	55	27	307
	%	14.0%	28.4%	24.7%	17.7%	10.1%	5.0%	

*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낸 값임

[부표 28] 진로 재설계 준비 여부 (1순위+2순위)

		진로·상담·멘토링 조연	검사 등 통한 진로적 성/흥미 탐색	진로 프로그램 참여	진로 정보 탐색	외국어 공부	학위 공부	자격증 공부	구인 정보 검색	관련 분야 인맥 구성	취·창업 교육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8	10	15	38	37	15	43	19	38	14	44
	%	9.5%	5.3%	7.9%	20.0%	19.5%	7.9%	22.6%	10.0%	20.0%	7.4%	23.2%
사무종사자 (235)	빈도	13	11	17	31	43	16	62	20	21	19	85
	%	5.5%	4.7%	7.2%	13.2%	18.3%	6.8%	26.4%	8.5%	8.9%	8.1%	36.2%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7	2	3	13	10	4	14	12	3	4	30
	%	10.0%	2.9%	4.3%	18.6%	14.3%	5.7%	20.0%	17.1%	4.3%	5.7%	42.9%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4	0	6	7	6	1	10	6	4	2	19
	%	8.5%	0.0%	12.8%	14.9%	12.8%	2.1%	21.3%	12.8%	8.5%	4.3%	40.4%
전체 (542)	빈도	42	23	41	89	96	36	129	57	66	39	178
	%	7.7%	4.2%	7.6%	16.4%	17.7%	6.6%	23.8%	10.5%	12.2%	7.2%	32.8%

[부표 29] 이용 용이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시설

		온라인	주민 센터	평생교육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서울일자리+센터	시민대학	민간교육시설	기타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13	6	19	14	2	5	5	13	2	7	4
	%	59.5%	3.2%	10.0%	7.4%	1.1%	2.6%	2.6%	6.8%	1.1%	3.7%	2.1%
사무종사자 (235)	빈도	131	10	8	22	4	5	8	23	2	18	4
	%	55.7%	4.3%	3.4%	9.4%	1.7%	2.1%	3.4%	9.8%	.9%	7.7%	1.7%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41	3	4	5	0	4	4	5	0	3	1
	%	58.6%	4.3%	5.7%	7.1%	0.0%	5.7%	5.7%	7.1%	0.0%	4.3%	1.4%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22	2	5	7	0	1	1	5	0	1	3
	%	46.8%	4.3%	10.6%	14.9%	0.0%	2.1%	2.1%	10.6%	0.0%	2.1%	6.4%
전체 (542)	빈도	307	21	36	48	6	15	18	46	4	29	12
	%	56.6%	3.9%	6.6%	8.9%	1.1%	2.8%	3.3%	8.5%	.7%	5.4%	2.2%

[부표 30] 독립적 교육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전담시설 필요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

		별도 교육훈련 전담시설 필요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지				
		예	아니오	모른다	알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으나, 지원 내용과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을 알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잘 모른다	지원 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160 84.2%	30 15.8%	61 32.1%	31 16.3%	52 27.4%	16 8.4%	30 15.8%
사무종사자 (235)	빈도 %	199 84.7%	36 15.3%	61 26.0%	45 19.1%	76 32.3%	20 8.5%	33 14.0%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65 92.9%	5 7.1%	17 24.3%	11 15.7%	27 38.6%	8 11.4%	7 1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35 74.5%	12 25.5%	10 21.3%	12 25.5%	13 27.7%	4 8.5%	8 17.0%
전체 (542)	빈도 %	459 84.7%	83 15.3%	149 27.5%	99 18.3%	168 31.0%	48 8.9%	78 14.4%

[부표 31]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1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일자리+센터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	114 60.0%	67 35.3%	9 4.7%	70 36.8%	103 54.2%	17 8.9%	143 75.3%	40 21.1%	7 3.7%
사무종사자 (235)	빈도 %	152 64.7%	74 31.5%	9 3.8%	87 37.0%	133 56.6%	15 6.4%	176 74.9%	49 20.9%	10 4.3%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	40 57.1%	28 40.0%	2 2.9%	18 25.7%	49 70.0%	3 4.3%	53 75.7%	17 24.3%	0 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	32 68.1%	11 23.4%	4 8.5%	15 31.9%	24 51.1%	8 17.0%	38 80.9%	9 19.1%	0 0.0%
전체 (542)	빈도 %	338 62.4%	180 33.2%	24 4.4%	190 35.1%	309 57.0%	43 7.9%	410 75.6%	115 21.2%	17 3.1%

[부표 32]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 · 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2

		굿잡5060			시니어직업능력학교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51	35	4	126	56	8
	%	79.5%	18.4%	2.1%	66.3%	29.5%	4.2%
사무종사자 (235)	빈도	197	31	7	176	51	8
	%	83.8%	13.2%	3.0%	74.9%	21.7%	3.4%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63	7	0	50	20	0
	%	90.0%	10.0%	0.0%	71.4%	28.6%	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37	8	2	38	8	1
	%	78.7%	17.0%	4.3%	80.9%	17.0%	2.1%
전체 (542)	빈도	448	81	13	390	135	17
	%	82.7%	14.9%	2.4%	72.0%	24.9%	3.1%

[부표 33] 서울시 제공 교육 및 직무훈련 · 진로지원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3

		내일행복학교			어르신아카데미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관리자·전문가 (190)	빈도	145	40	5	148	38	4
	%	76.3%	21.1%	2.6%	77.9%	20.0%	2.1%
사무종사자 (235)	빈도	184	47	4	191	38	6
	%	78.3%	20.0%	1.7%	81.3%	16.2%	2.6%
서비스·판매종사자 (70)	빈도	55	15	0	55	15	0
	%	78.6%	21.4%	0.0%	78.6%	21.4%	0.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빈도	39	7	1	38	9	0
	%	83.0%	14.9%	2.1%	80.9%	19.1%	0.0%
전체 (542)	빈도	423	109	10	432	100	10
	%	78.0%	20.1%	1.8%	79.7%	18.5%	1.8%

[부표 34]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1

	전체	정부 직업·교육훈련 사업 개인 자부담 보조	정부 및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사업 적극 홍보	서울지역 취약층 직업·교육훈련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반조성 강화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취약층 프로그램 확대
관리자·전문가 (190)	72.2	67.9	74.2	75.1	70.8	71.7
사무종사자 (235)	69.9	67.2	70.6	70.7	68.7	69.3
서비스·판매종사자 (70)	76.8	69.6	76.1	78.9	75.0	75.0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71.0	63.3	67.6	73.9	70.2	70.7
전체 (542)	71.7	67.4	72.3	73.6	70.4	71.0

* 전혀 필요없음 0점 ~ 매우 필요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낸 값임

[부표 35] 서울지역 시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확대 위한 정책 의견2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대 흐름 반영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시설 확대 강화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계좌제(비 용) 지원
관리자·전문가 (190)	69.6	70.0	76.6	73.3	73.0
사무종사자 (235)	68.4	67.1	74.0	72.2	70.2
서비스·판매종사자 (70)	77.9	74.3	80.7	79.3	81.1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7)	72.9	70.2	73.9	72.9	74.5
전체 (542)	70.4	69.3	75.8	73.6	73.0

* 전혀 필요없음 0점 ~ 매우 필요 100점으로 환산해 평균낸 값임